



 인천광역시 서구

2025년 제2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 인천 서구의 공간

발 행 일 2025년 10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기 획 총 괄 서덕현(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기 획 운 영 임혜선(인천서구문화원 문화경영팀 팀장)
원서영(인천서구문화원 서구학연구팀 사원)
인 쇄 원문사(032-573-4982)

식 순

◆ 일시 : 2025년 10월 31일 (금) 14:00~18:00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캠프 1, 2

◆ 사회 : 서덕현(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14:00~14:10	개회 안내
14:10~14:15	인사 말씀 정군섭(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14:15~14:20	내빈 축하
14:20~14:50	〈제1 발표〉 서구의 공간적 특성 변화 -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최정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14:50~15:20	〈제2 발표〉 지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보는 서구 최원길(전 서인천고등학교 지리 교사)
15:20~15:50	〈제3 발표〉 역사문화유산으로 보는 서구 김영준(인하대학교 박사)
15:50~16:20	〈제4 발표〉 사회·경제적 입지로 보는 서구 - 산업을 중심으로 강철구(인천대학교 강사)
16:20~16:30	중간휴식
16:30~18:00	종합토론 좌장: 강덕우(사단법인 개항장연구소 대표) 제1 발표 토론: 김경은(소설가) 제2 발표 토론: 남동걸(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제3 발표 토론: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제4 발표 토론: 김태훈((협)다운정책연구원)
18:00	사진 촬영 및 폐회

목 차

인사말	7
-----------	---

정군섭(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제1 발표

서구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11
---------------------------------------	----

발표: 최정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토론: 김경은(소설가)

제2 발표

지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보는 서구	75
--------------------------	----

발표: 최원길(전 서인천고등학교 지리 교사)

토론: 남동걸(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제3 발표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	103
--------------------------	-----

발표: 김영준(인하대학교 박사)

토론: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제4 발표

사회경제적 입지로 본 서구 - 산업을 중심으로	123
---------------------------------	-----

발표: 강철구(인천대학교 강사)

토론: 김태훈((협)다운정책연구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천서구문화원장 정군섭입니다.

2025년 제2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 〈인천 서구의 공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연구성과를 나누어 주시는 강덕우 좌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학 연구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 서구의 공간’을 주제로, 서구의 역사와 지리, 산업, 문화유산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삶의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서구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왔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이 지역을 지탱해 온 사람들의 생활사와 문화적 흔적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공간으로서의 서구’를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조명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지리, 산업과 문화유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구의 정체성을 탐구함으로써, 지역학 연구의 심화뿐 아니라 향후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서구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및 연구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구민 속의 서구학’, ‘참여하는 지역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천 서구학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지역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의 소중한 논의가 인천 서구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 발표〉

서구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최정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토론: 김경은(소설가)

서구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최정학(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구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

-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최 정 학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희망날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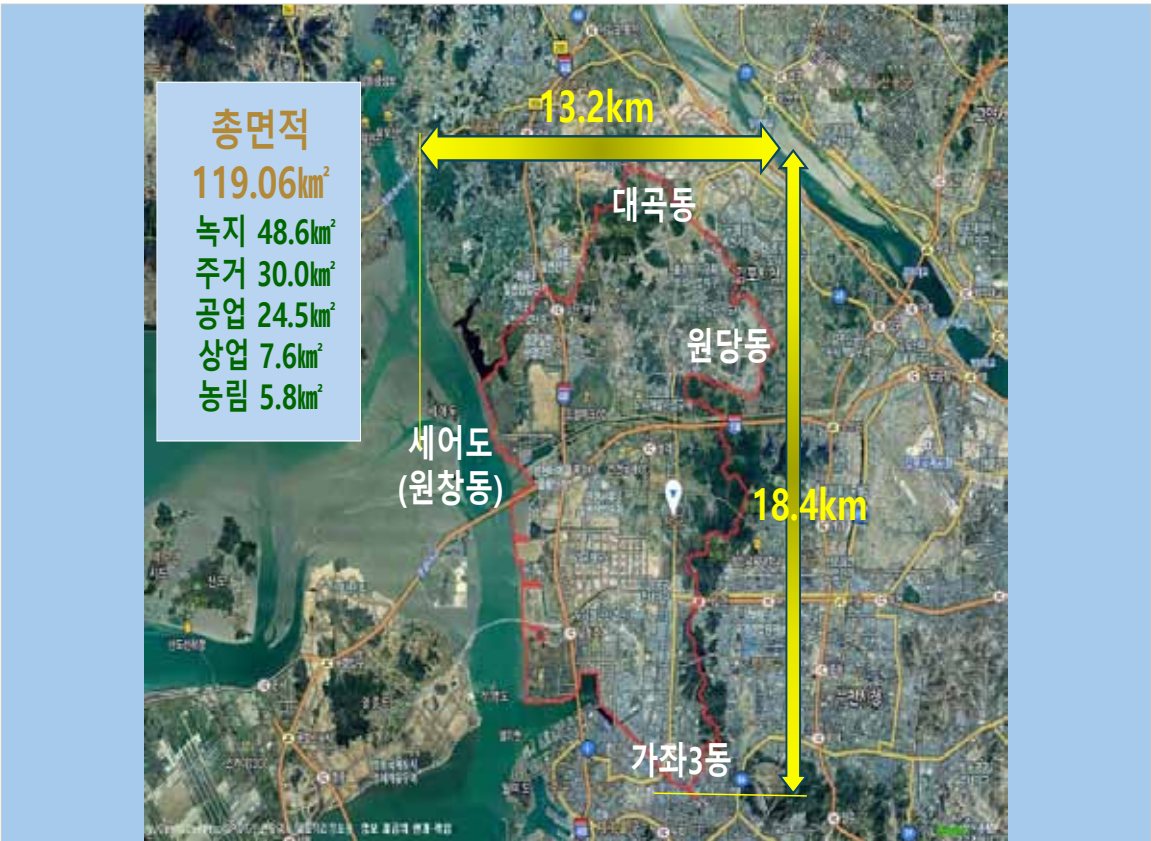
©blog.naver.com/rak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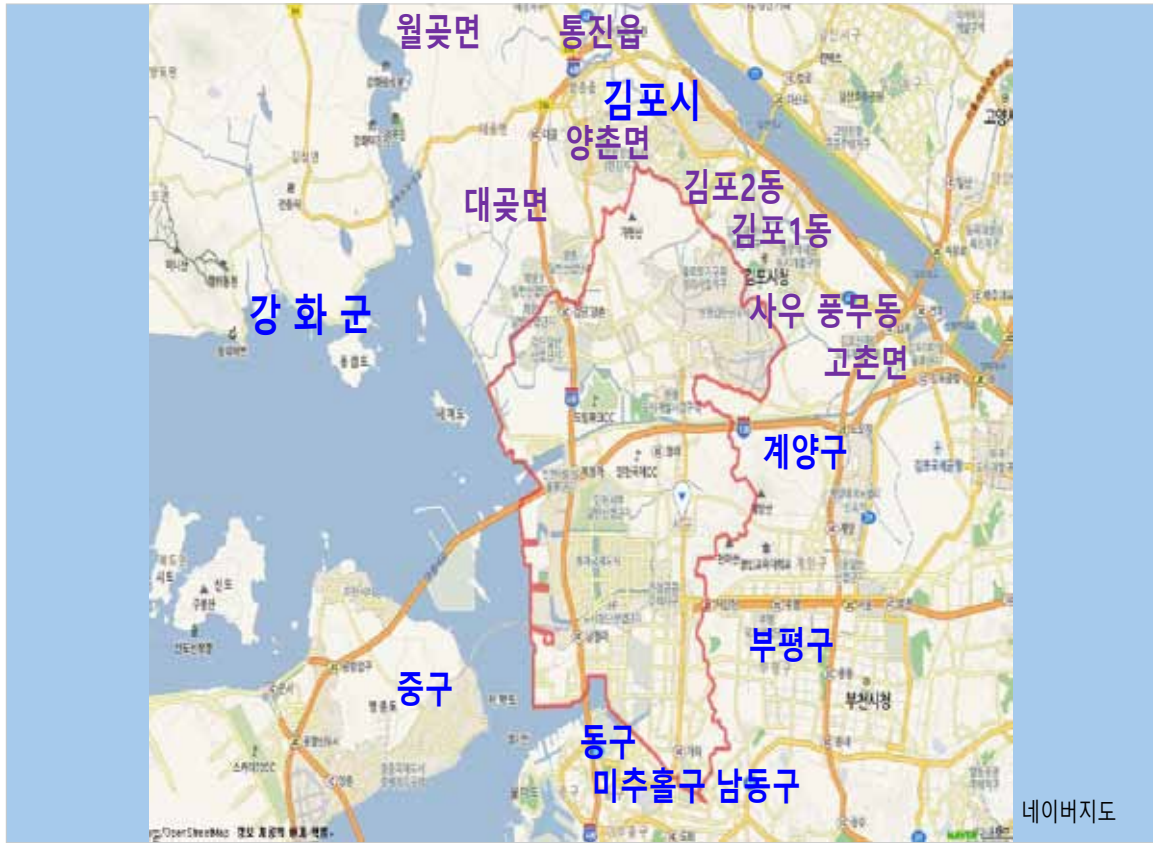
서구의 수리적 위치(4극점)

구분	지명	극점	연장거리
극동	원당동	동경 126° 43' 28" 북위 37° 35' 21"	13.2km
극서	원창동	동경 126° 33' 11.9" 북위 37° 43' 28.5"	
극남	가좌3동	동경 126° 60' 59.6" 북위 37° 28' 13.5"	18.4km
극북	대곡동	동경 126° 39' 15" 북위 37° 38' 13"	

서구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blog.naver.com/rak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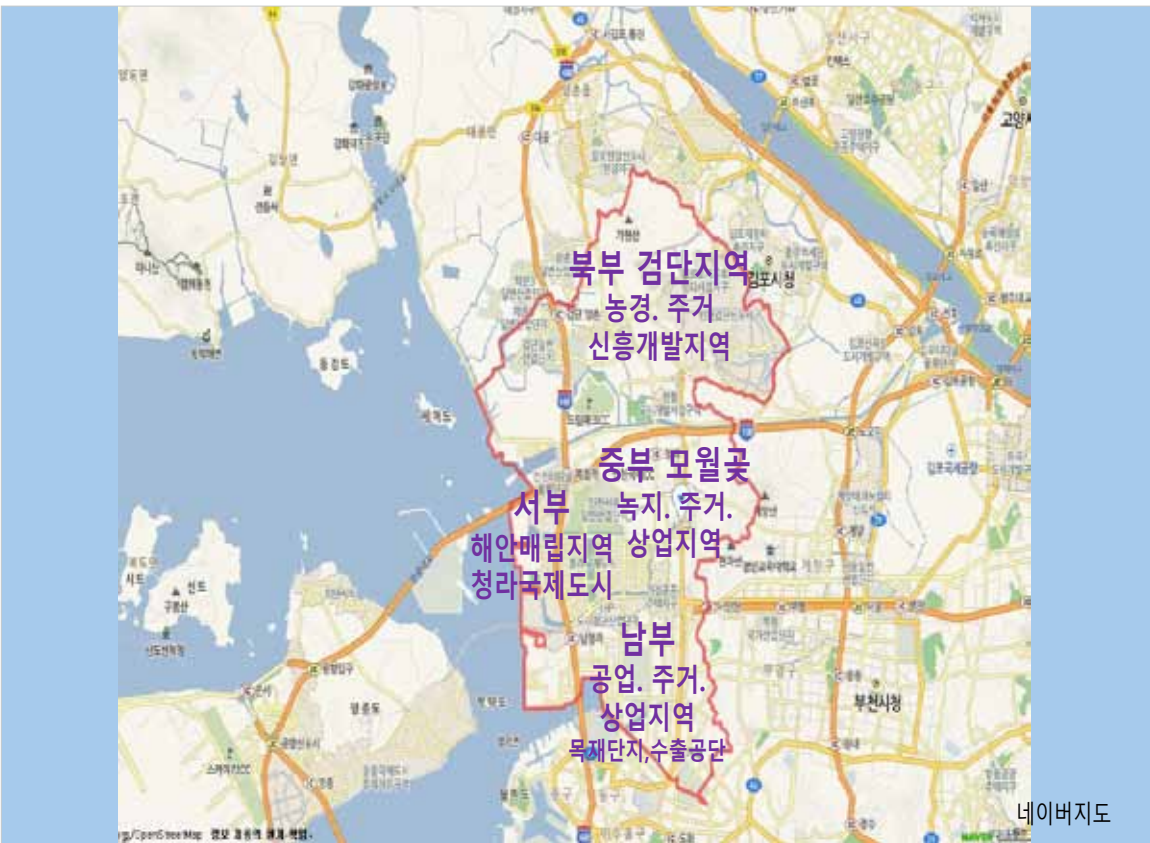
인천의 행정 구역별 면적(단위 km²) 1,067.04 km²(2023.03기준)

강화군	옹진군	중구	서구	남동구
411.42 (38.6)	172.05 (16.1)	140.37 (13.2)	119.06 (11.2)	57.45 (5.4)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동구
56.19 (5.3)	45.57 (4.3)	32.00 (3.0)	24.84 (2.3)	7.20 (0.7)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 당시 201.21km²였으며, 1989년 1월 1일 김포군 계양면 (30.9km²)과 옹진군 영종·용유면(72.0km²) 편입으로 310.83km²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강화군(401.3km²), 옹진군(163.6km²), 김포군 검단면(42.2km²)의 통합으로 955km²가 되었고, 2005년에는 994.12km²로 국토 면적의 1%로 확장되었으며 2023년 3월 31일 기준 1,067.04km²에 이르고 있다.

blog.naver.com/vtakein



인천광역시
서구의
21법정동
(2025년 3월 현재)



검단지역

8개 법정동

대곡동, 금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모월곶 지역

8개 법정동

대곡동, 금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석곶 지역

5개 법정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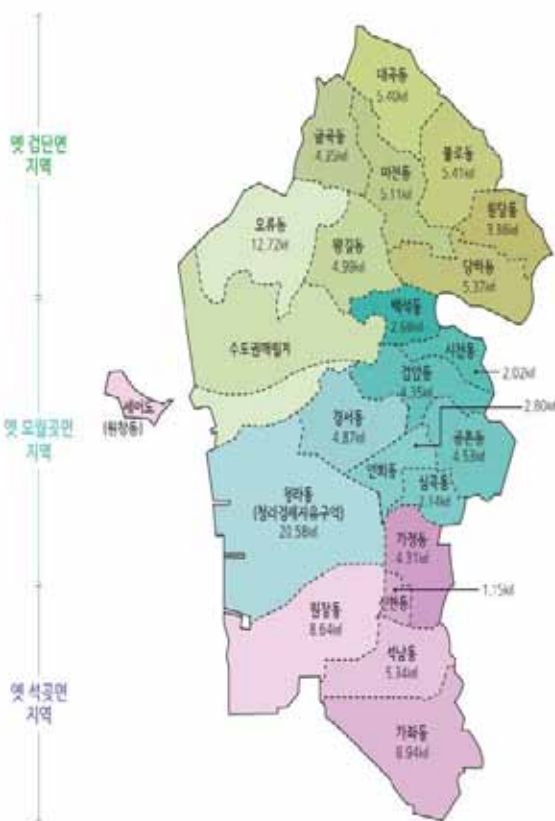
서구 21법정동

큰 법정동(단위 km²)

1. 청라동 20.58
2. 오류동 12.72
3. 가좌동 8.94
4. 원창동 8.64

작은 법정동(단위 km²)

1. 신현동 1.15
2. 시천동 2.02
3. 심곡동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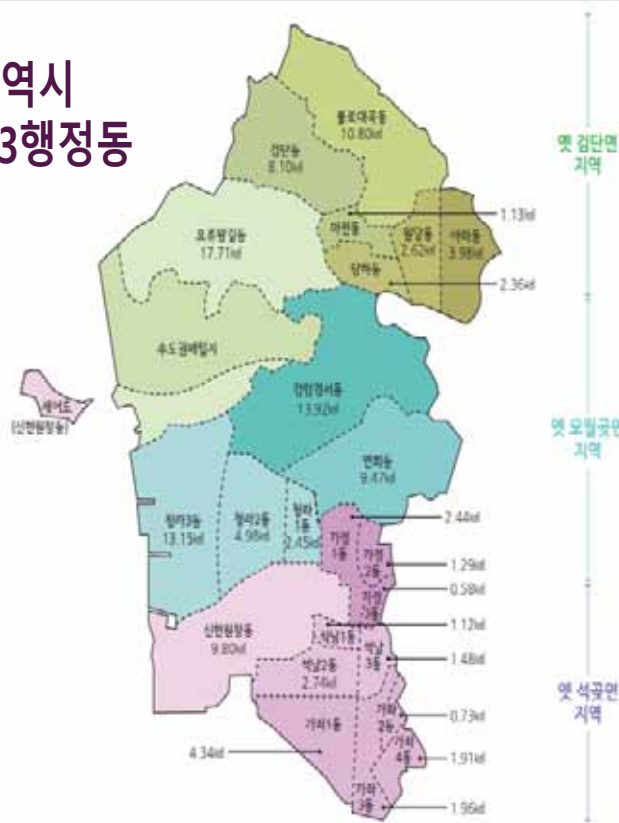


옛 검단면 지역

옛 모월곶면 지역

옛 석곶면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23행정동



검단지역 7행정동

불로대곡동, 검단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아라동

모월곶지역 5행정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2동, 3동

석곶지역 11행정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2동, 3동, 4동,
석남1동, 2동, 3동,
가정1동, 2동, 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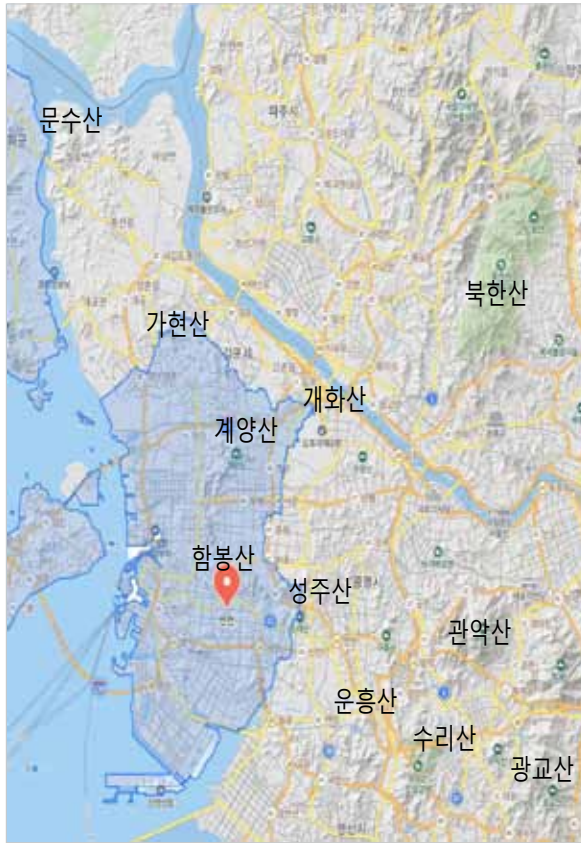
서구 23행정동

큰 행정동(km²)

1. 오류왕길동 17.71
2. 검암경서동 13.92
3. 청라3동 13.15
4. 불로대곡동 10.80

작은 행정동(km²)

1. 가정3동 0.58
2. 가좌2동 0.73
3. 석남1동 1.12
4. 마전동 1.13
5. 가정2동 1.29



인천까지 들어오는 산흐름



백두대간과 정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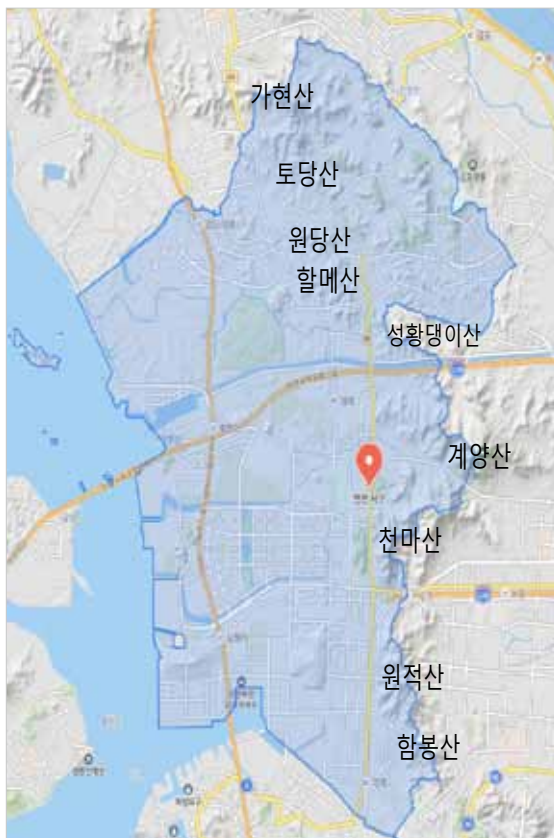
백두대간
(백두산~속리산~지리산)

한남금북정맥
(속리산~칠장산)

한남정맥
(칠장산~인천)

칠장산 - 광고산 - 수리산 - 운흥산 - 양지산 - 봉매산

성주산 - 거마산 - 무너미고개 - 무너미뒀산 - 광학산 -
철마산 - 만수산 - 주안산 - 법성산 - **함봉산**



서구의 산흐름과 물줄기

**한남정맥 인천·부평·검단 구간의 산들과
그 지맥들로 구성**

함봉산 - 원적산 - 천마산 - 계양산 - 가현산

남부(석곶면 : 함봉산~아나지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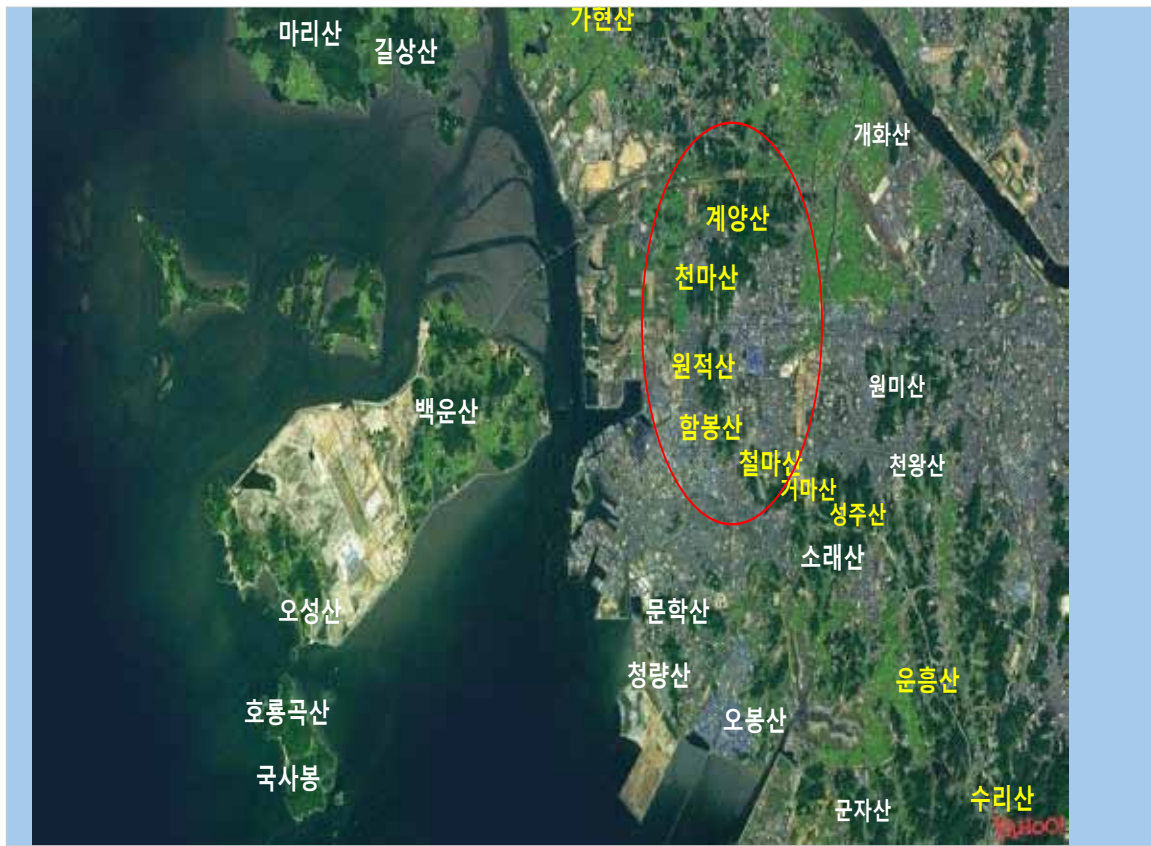
함봉산-장고개-철마산-철마산고개-원적산-아나지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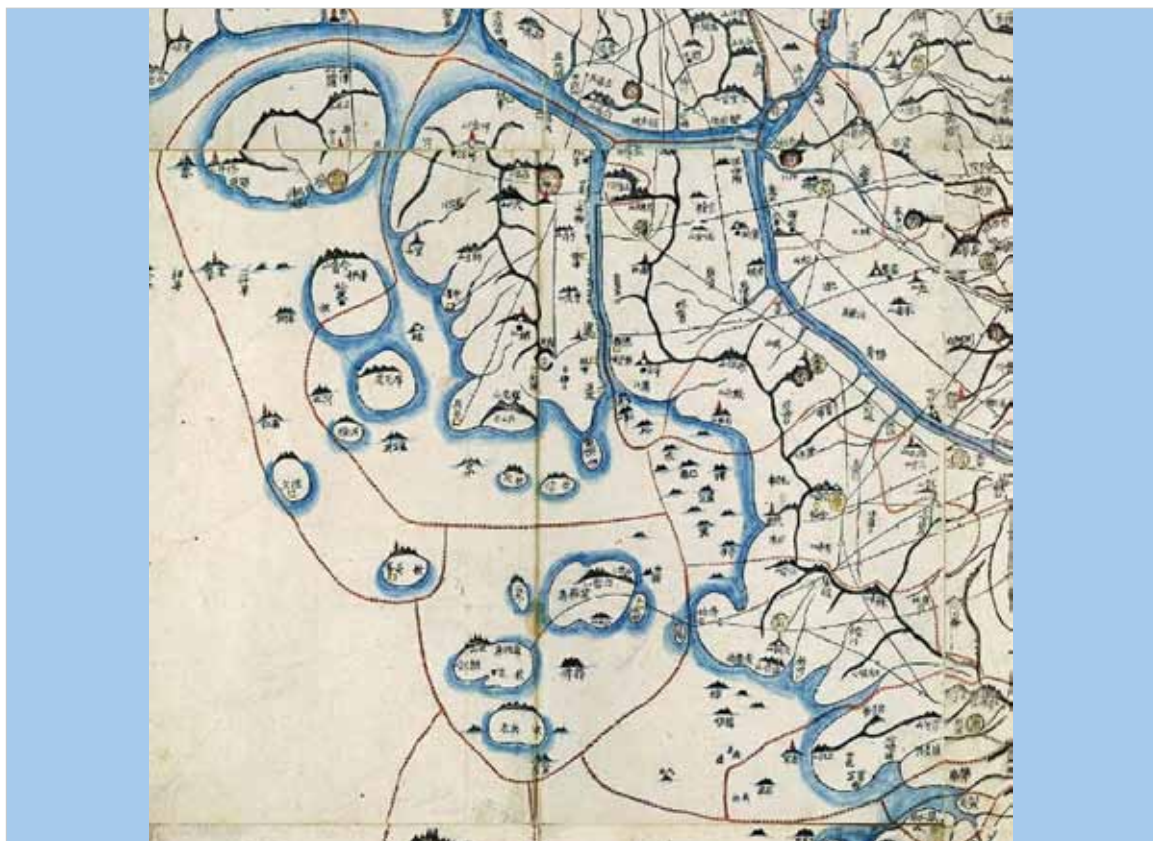
중부(모월곶면 : 아나지고개~아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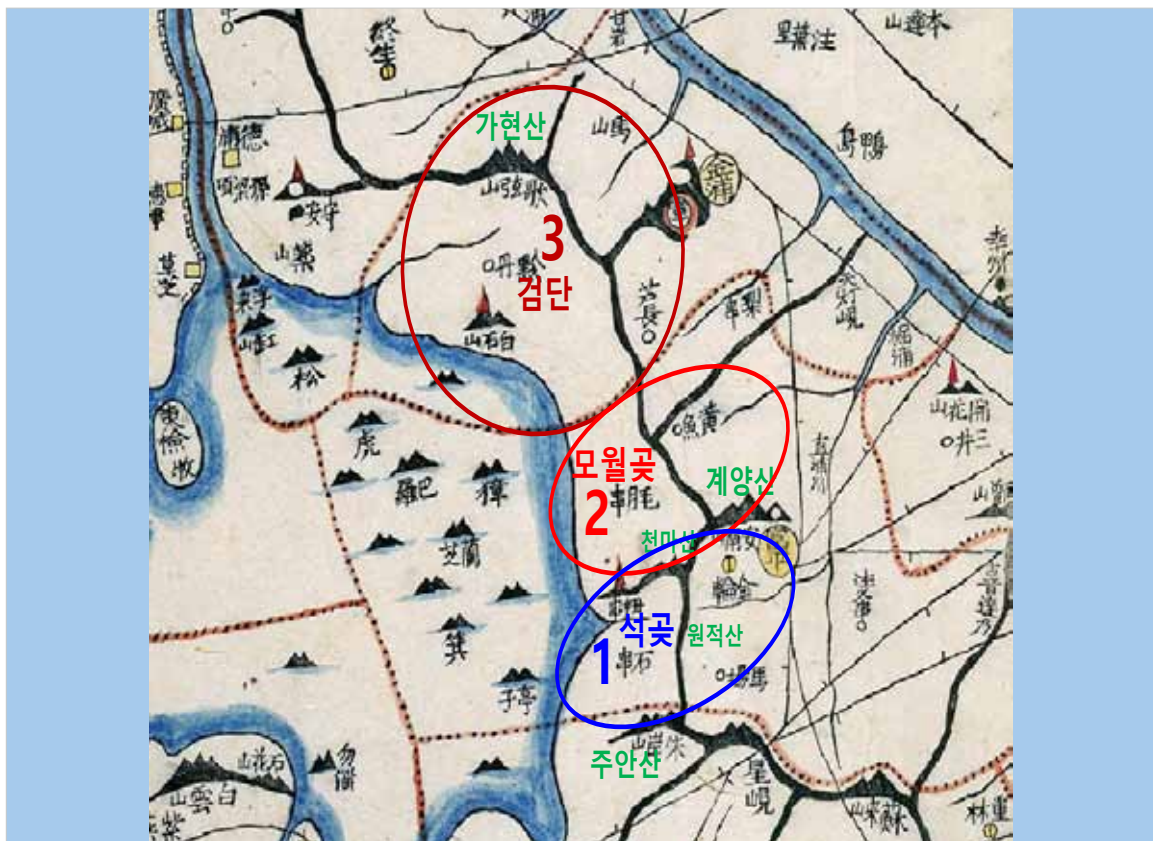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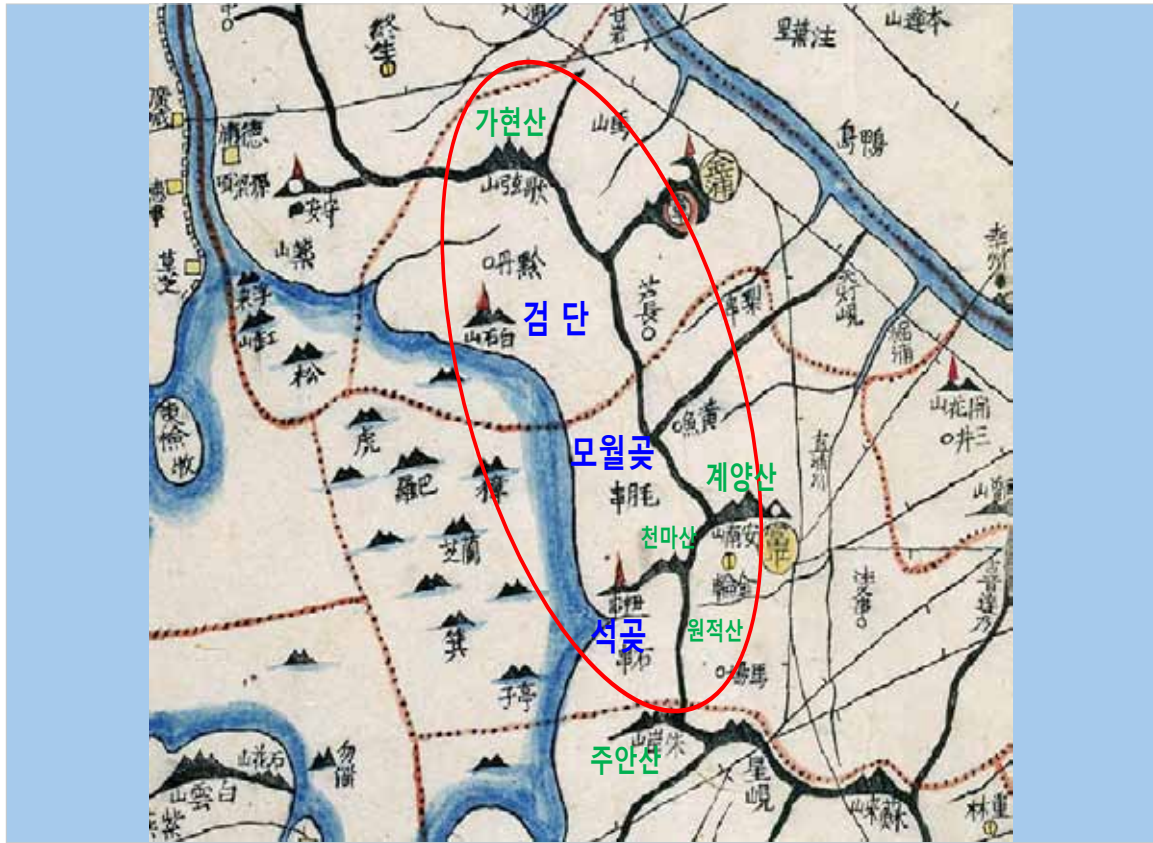
마제봉-길마봉-중구봉-경명현-계양산-피고개산-꽃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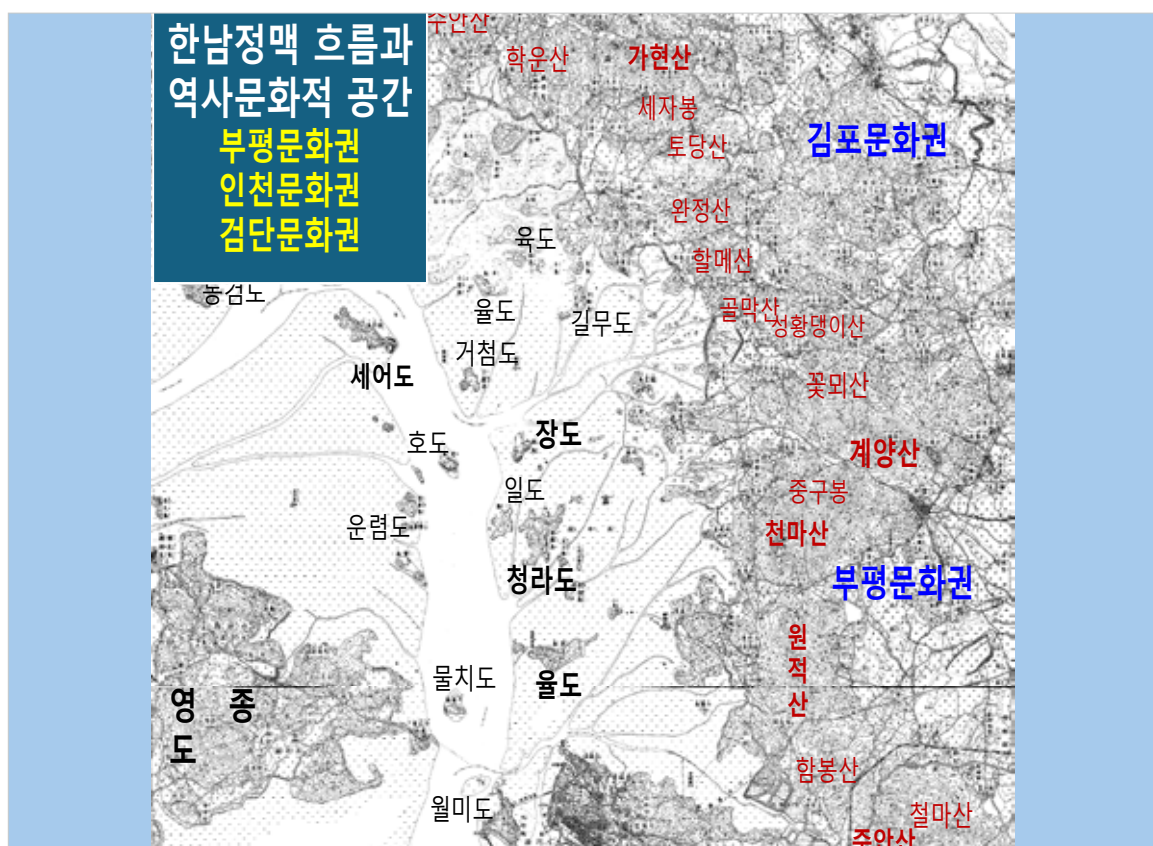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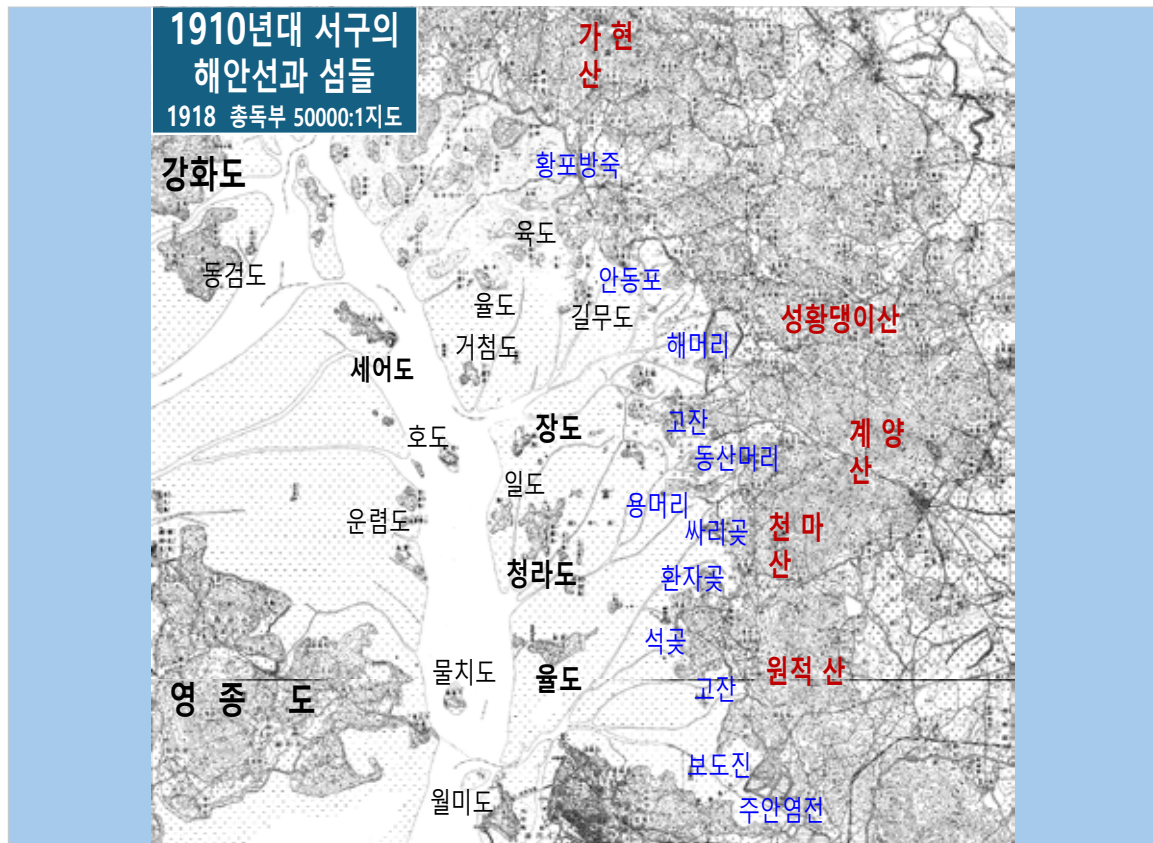
북부(검단면 지역 : 아라천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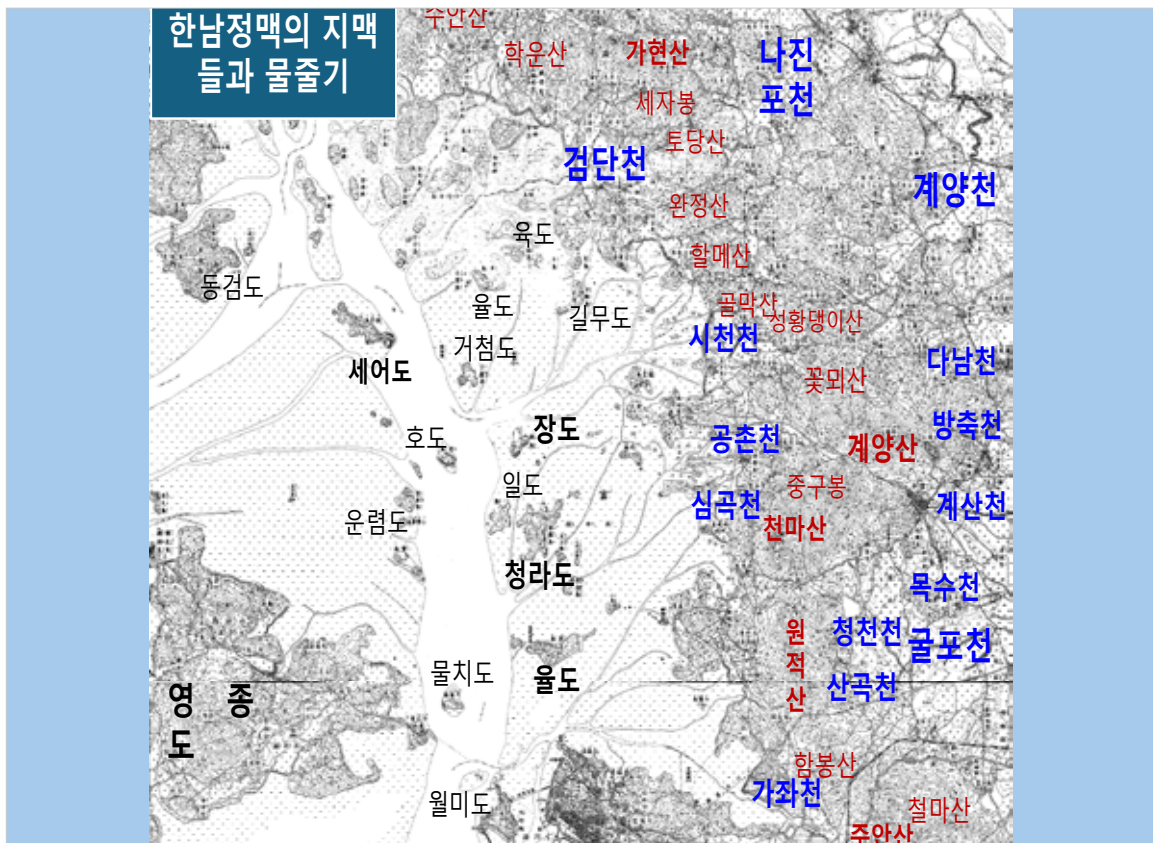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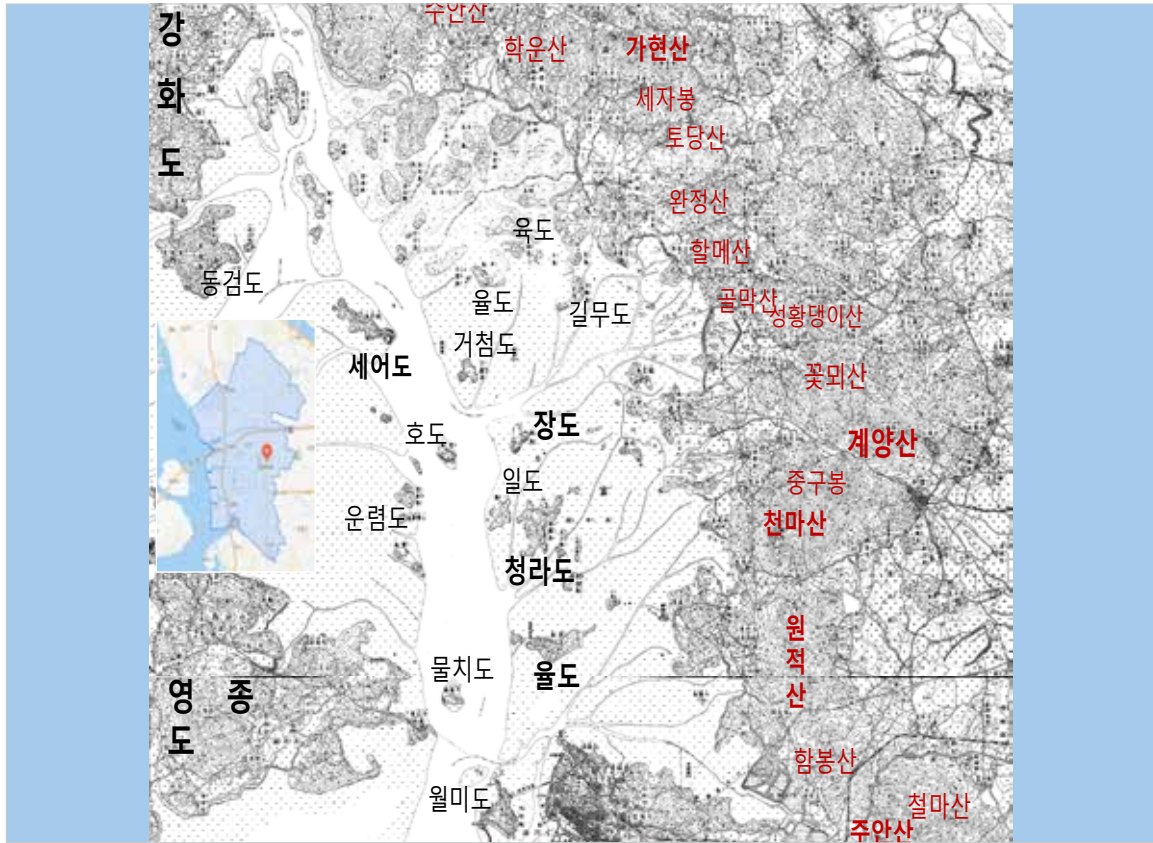
성황대이산-골막산-할메산-검단산-토당산-세자봉-가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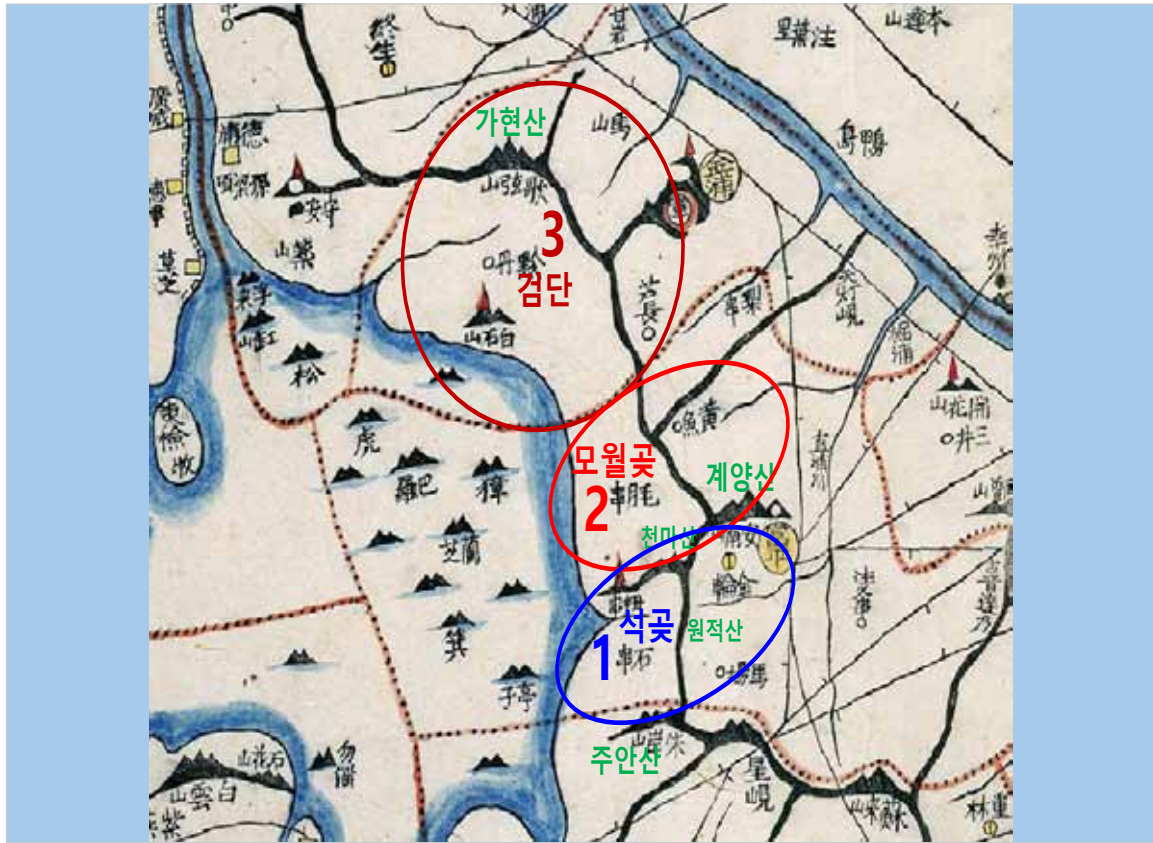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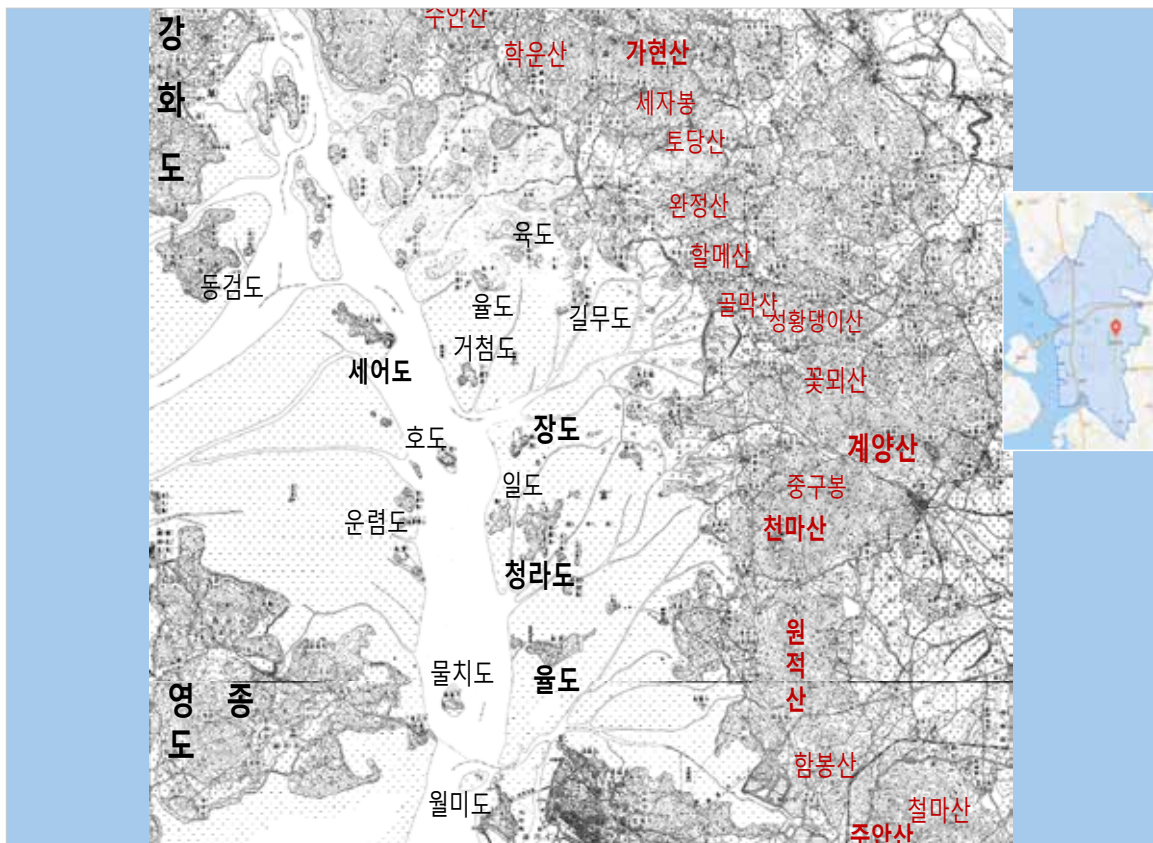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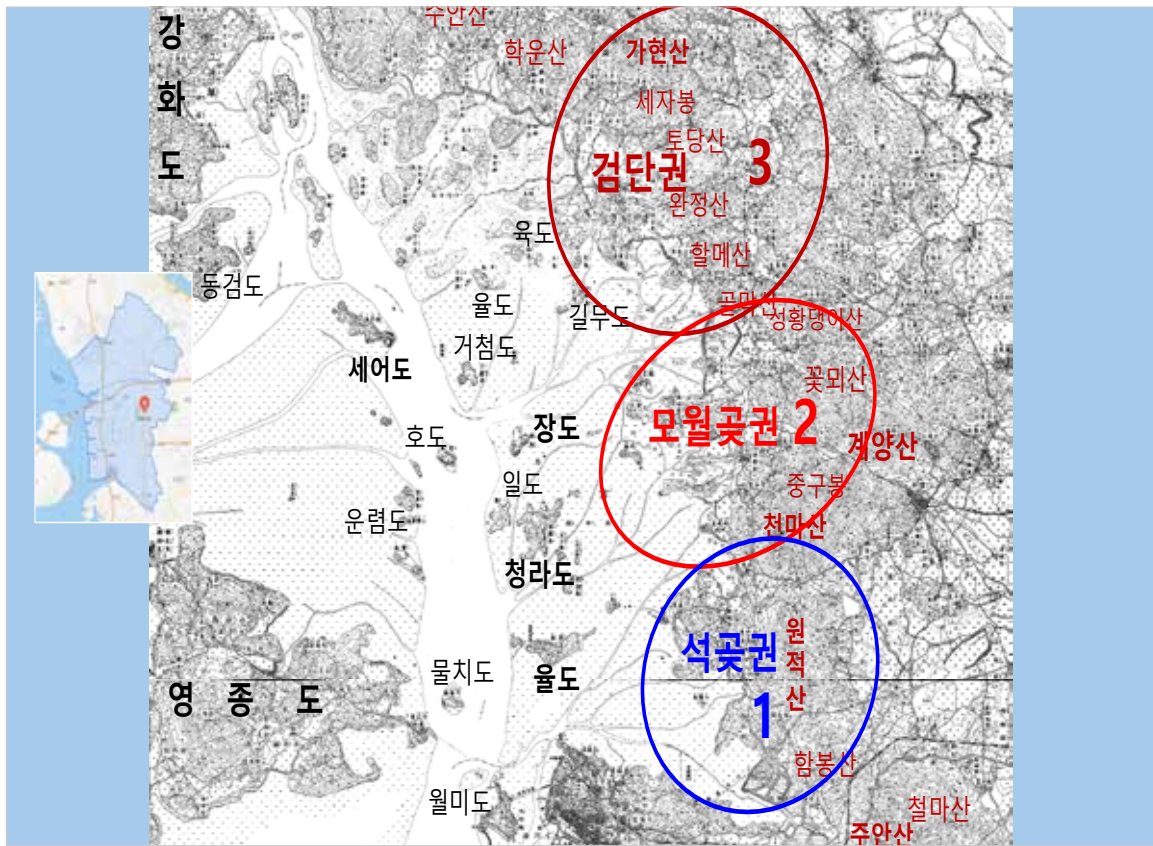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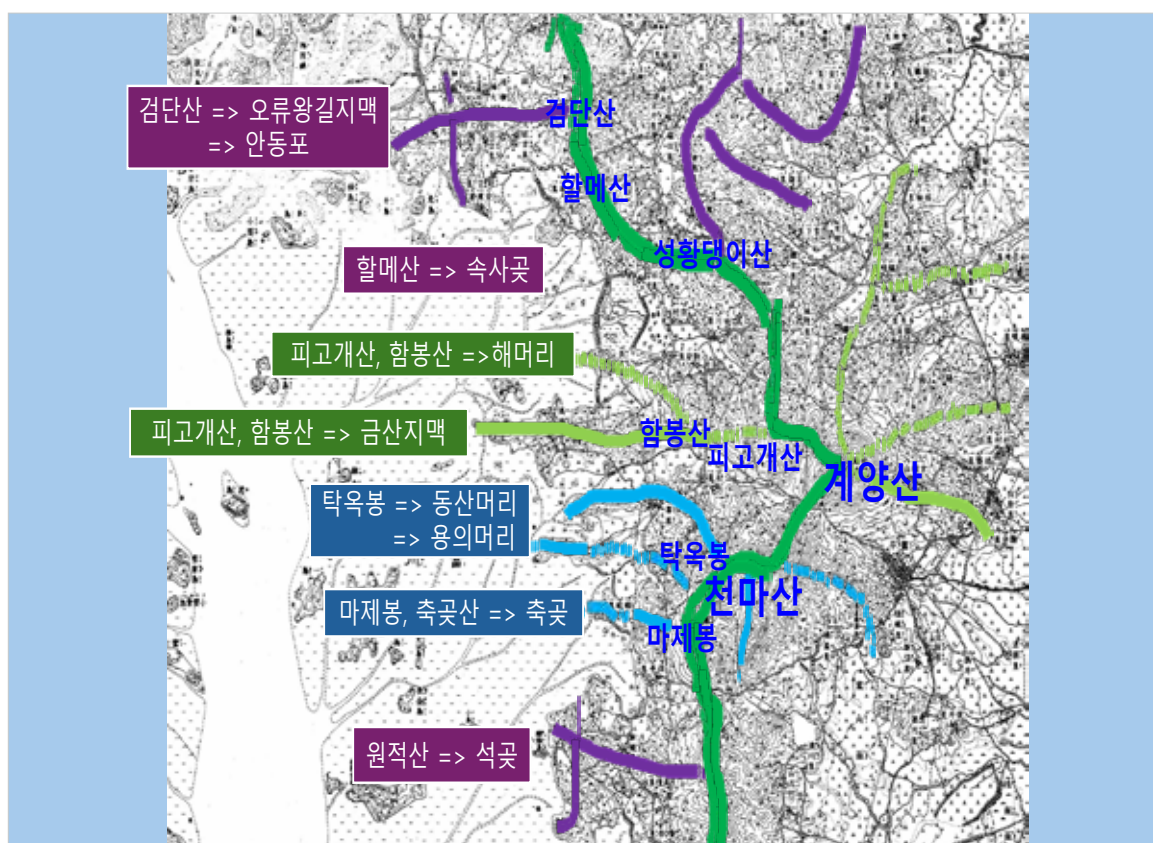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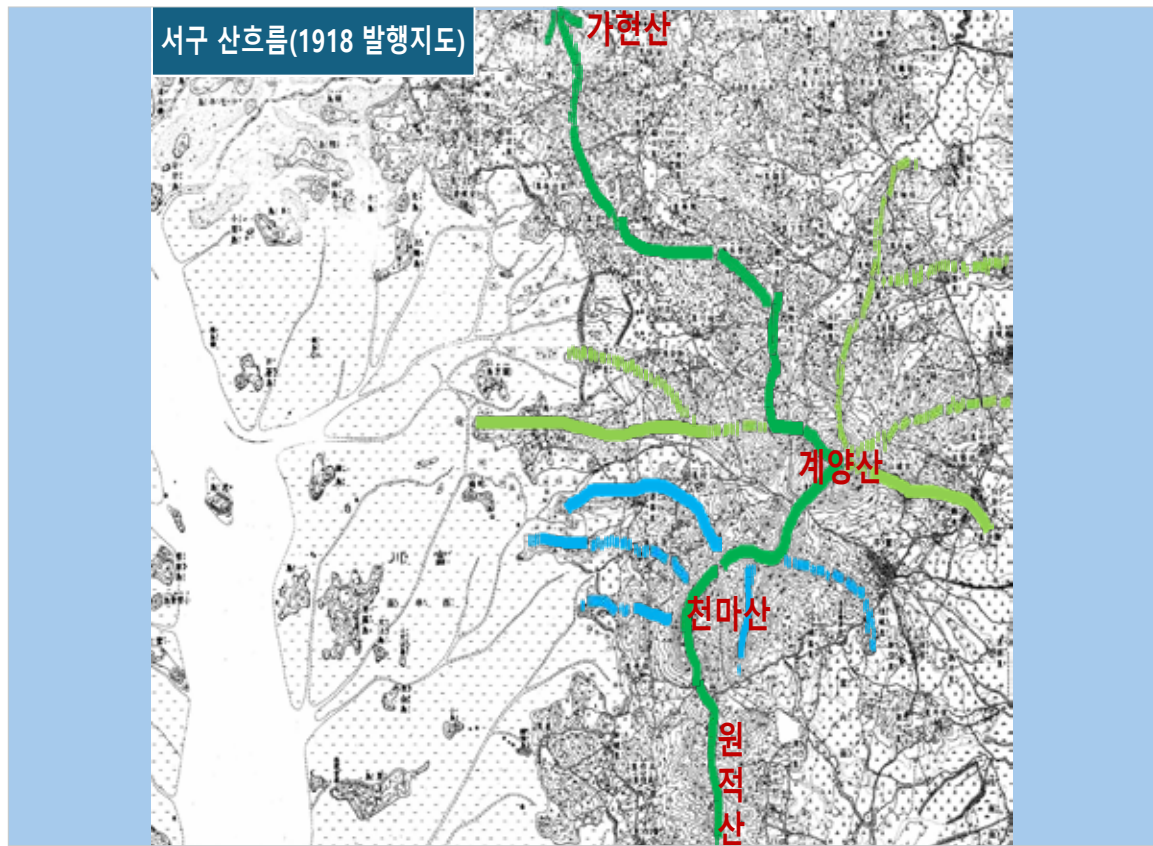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 지방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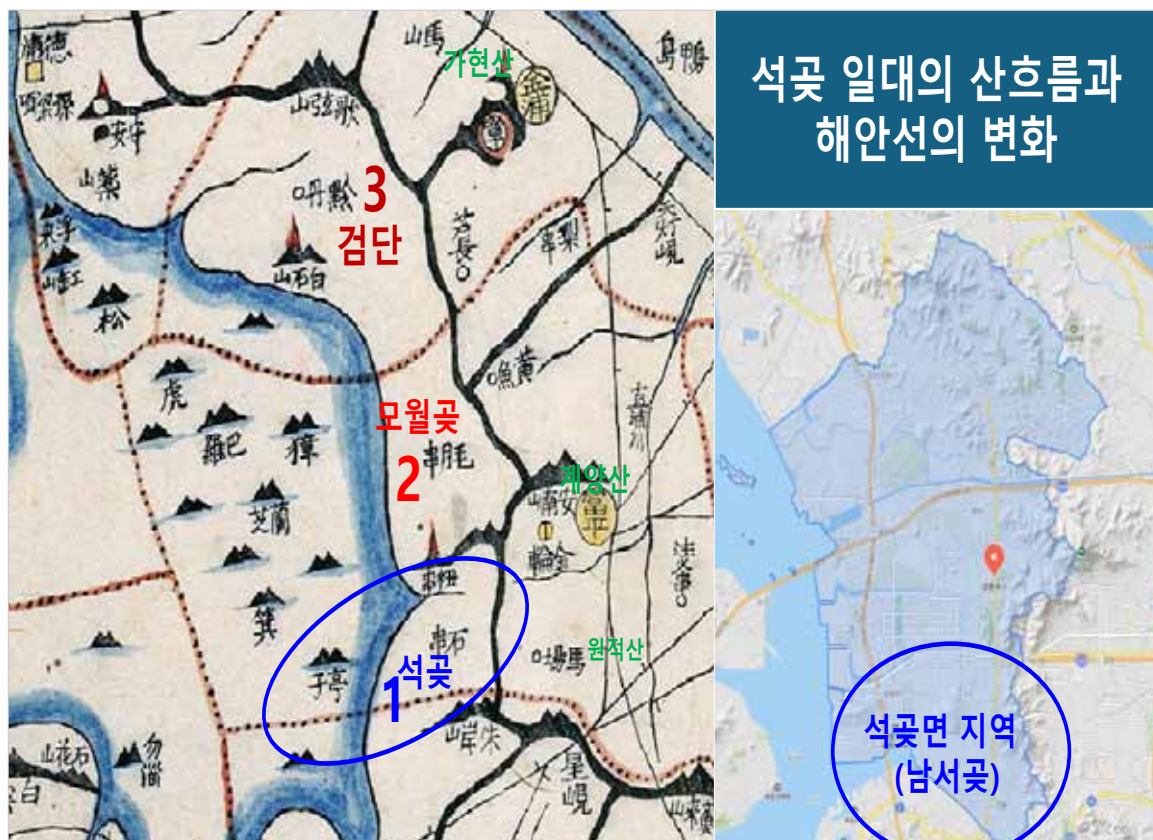
하천명	시 점	종 점	연 장(km)
계양천	서구 목상동 굴포천 방수로경계	서구 검단동 인천, 경기도계	3.30
나진포천	서구 마전동 470-4번지	서구 대곡동 452-8번지	3.91
대곡천	서구 대곡동 92-1번지 무명교	대곡동 나진포천 합류점	2.40
심곡천	서구 심곡동 51-1번지선	서구 연희동 배수갑문	7.67
공촌천	서구 공촌동 239-19번지선	서구 경서동 배수갑문	8.86
시천천	서구 검암동 9-1번지선	시천동 굴포천방수로 합류점	1.02
검단천	서구금곡동	서구오류동	6.60
대포천	서구 금곡동 지방도302호	검단동 검단천 합류점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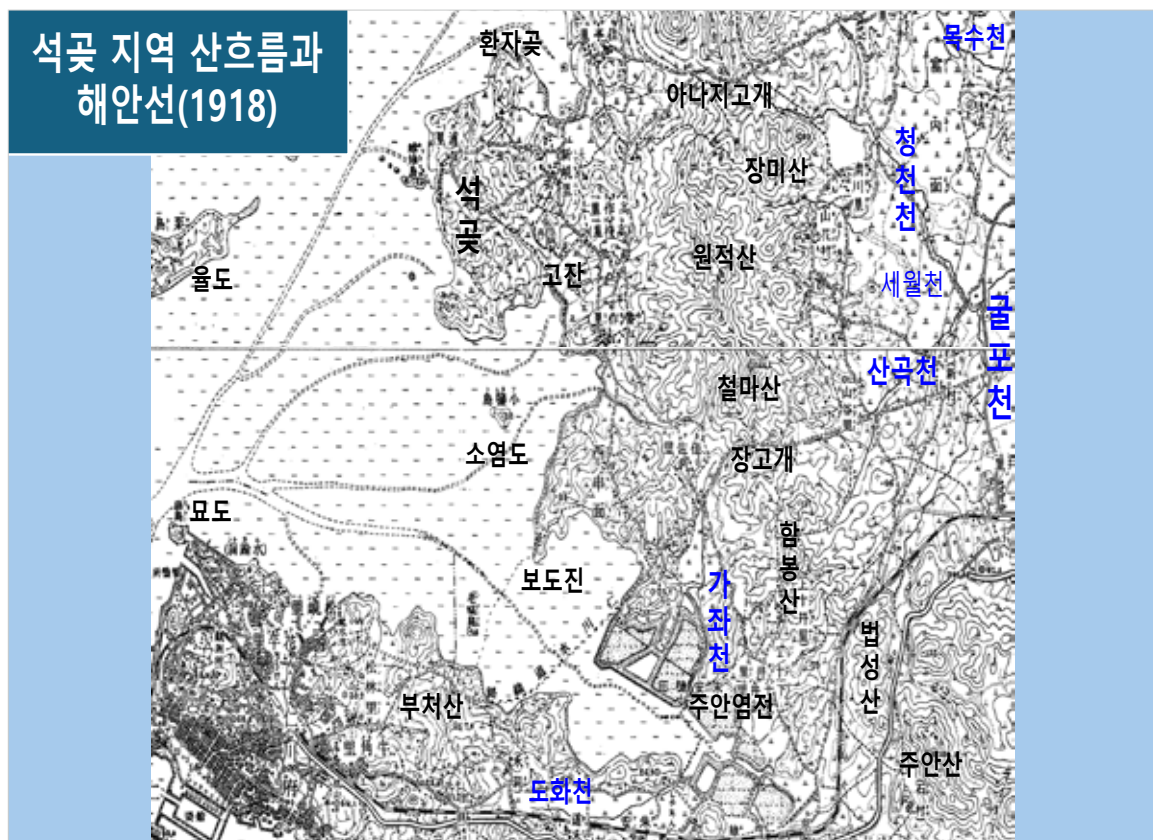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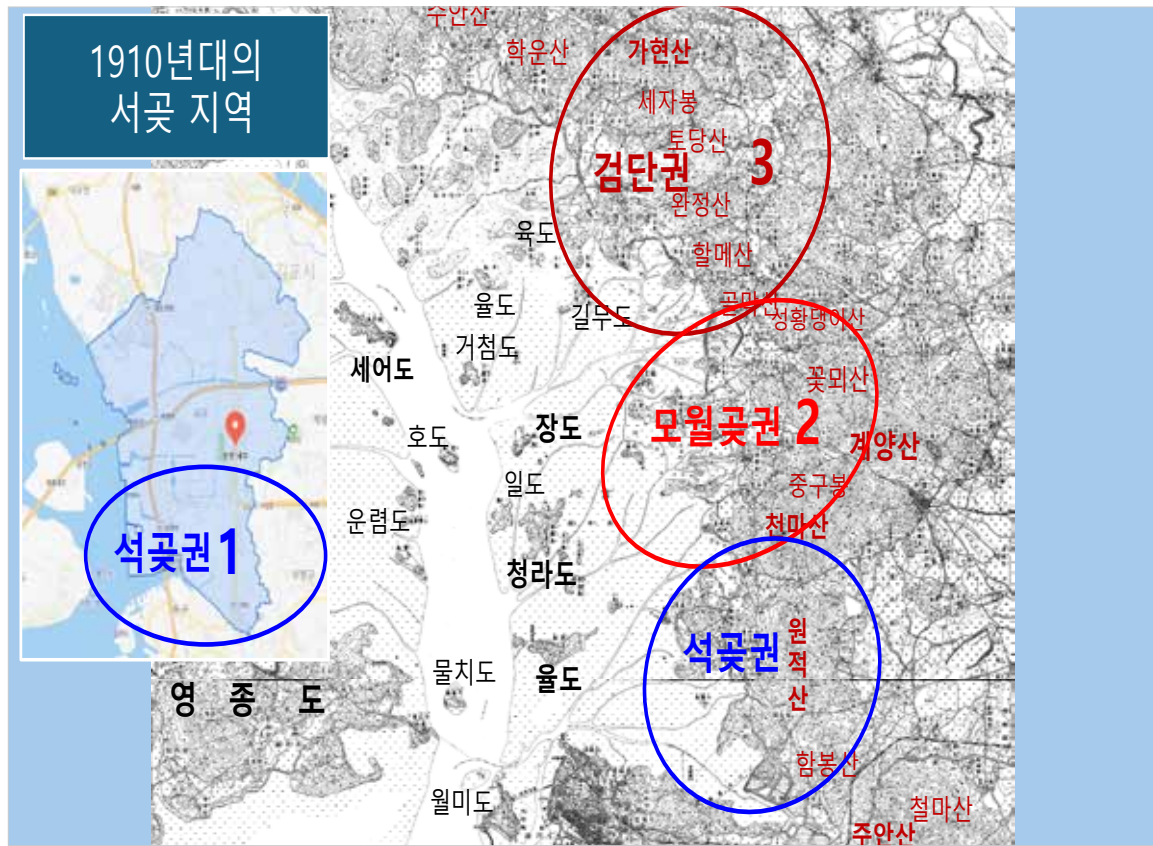
서구의 소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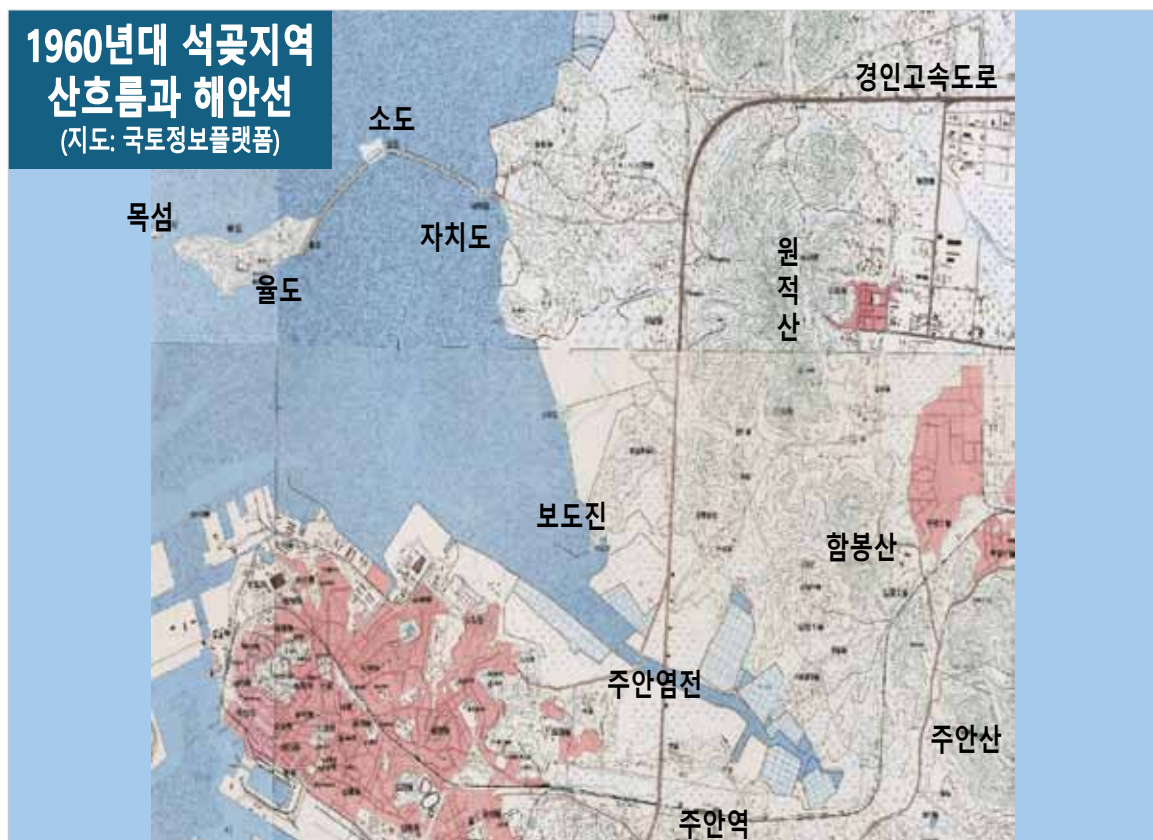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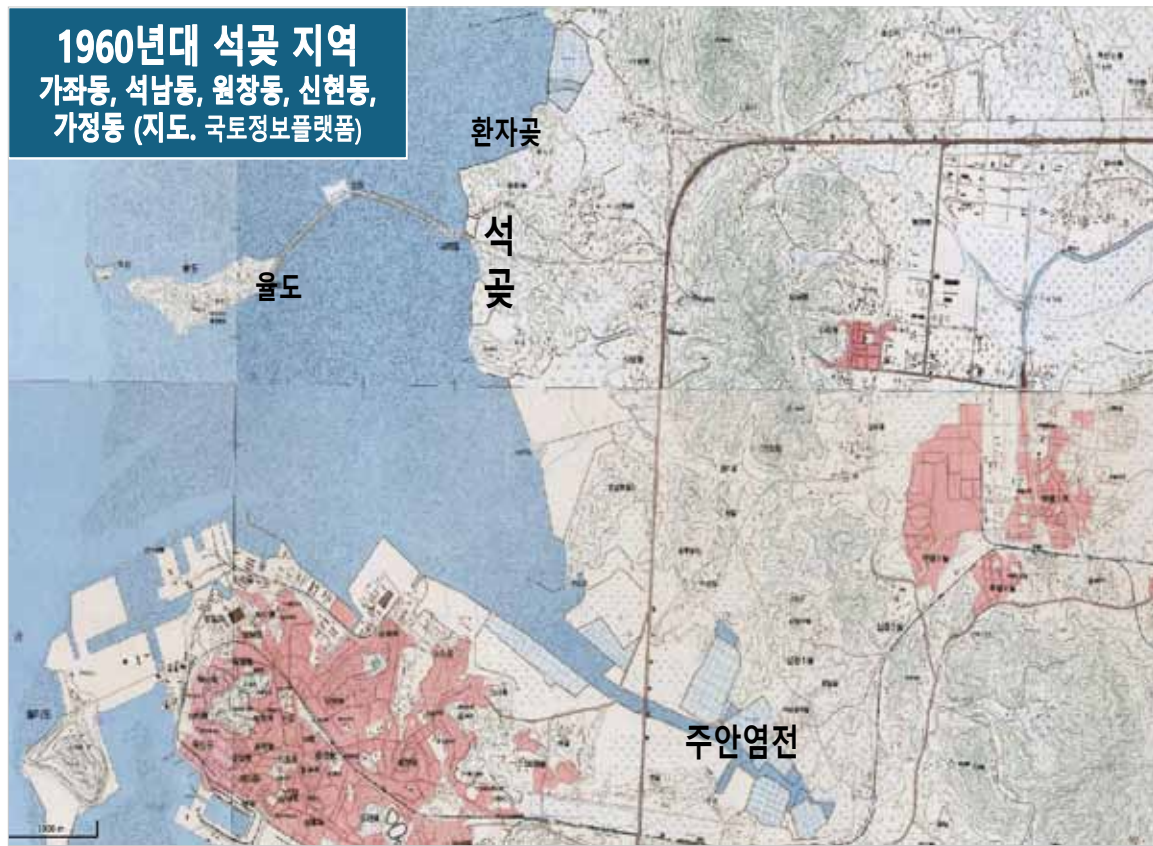
명칭	기점	종점	연장(m)
갈산천	금곡동 265-3	금곡동 318-4	910
가현천	금곡동 352	금곡동 444-2	2,050
매 천	백석동 산16-1	백석동 152-43	2,350
금곡천	검암동 산32-1	검암동 32	1,221
용천	대곡동 30	대곡동 87-20	944
목지천	불로동 464-3	불로동 520-6	650
오랑천	마전동 17-12	마전동 417-43	972
상동천	원당동 산103-1	원당동 408-1	603
황곡천	불로동 173-6	불로동 117-10	1,002



1. 석곶 지역의 산흐름과 해안선







1960년대 가좌동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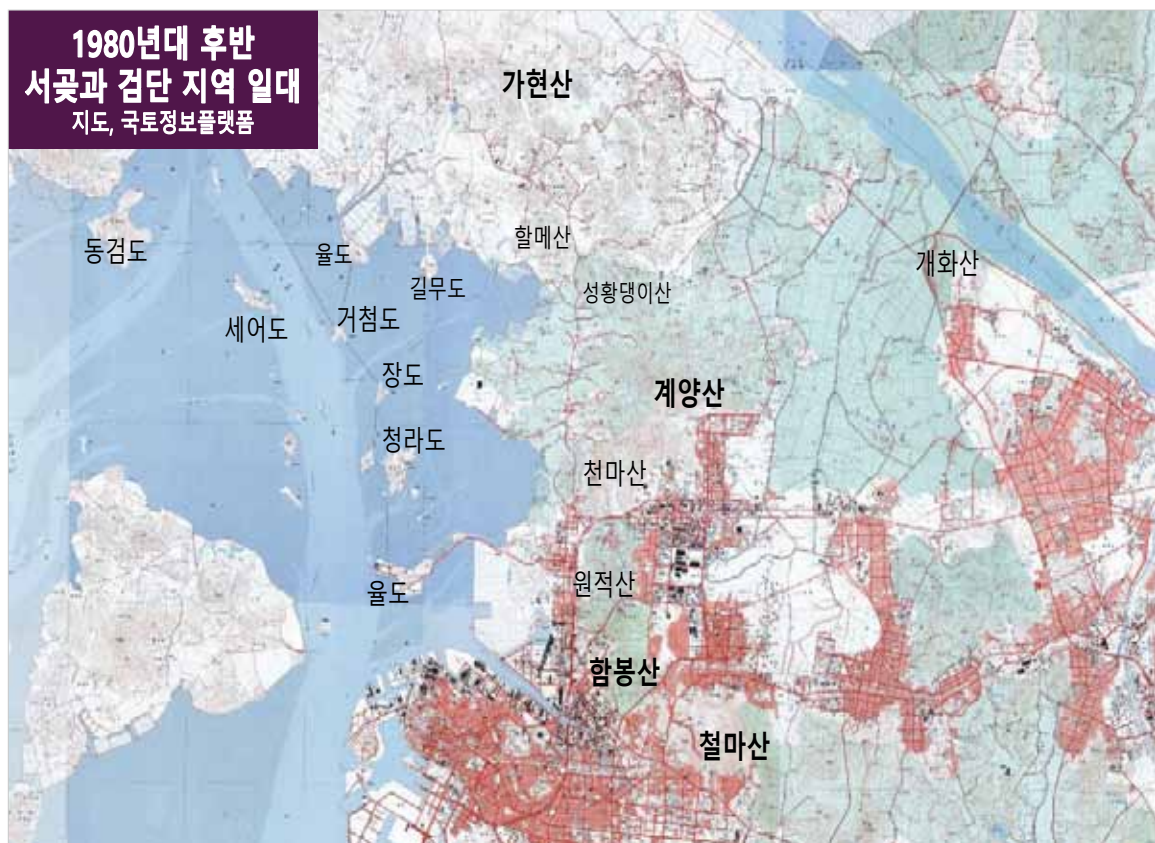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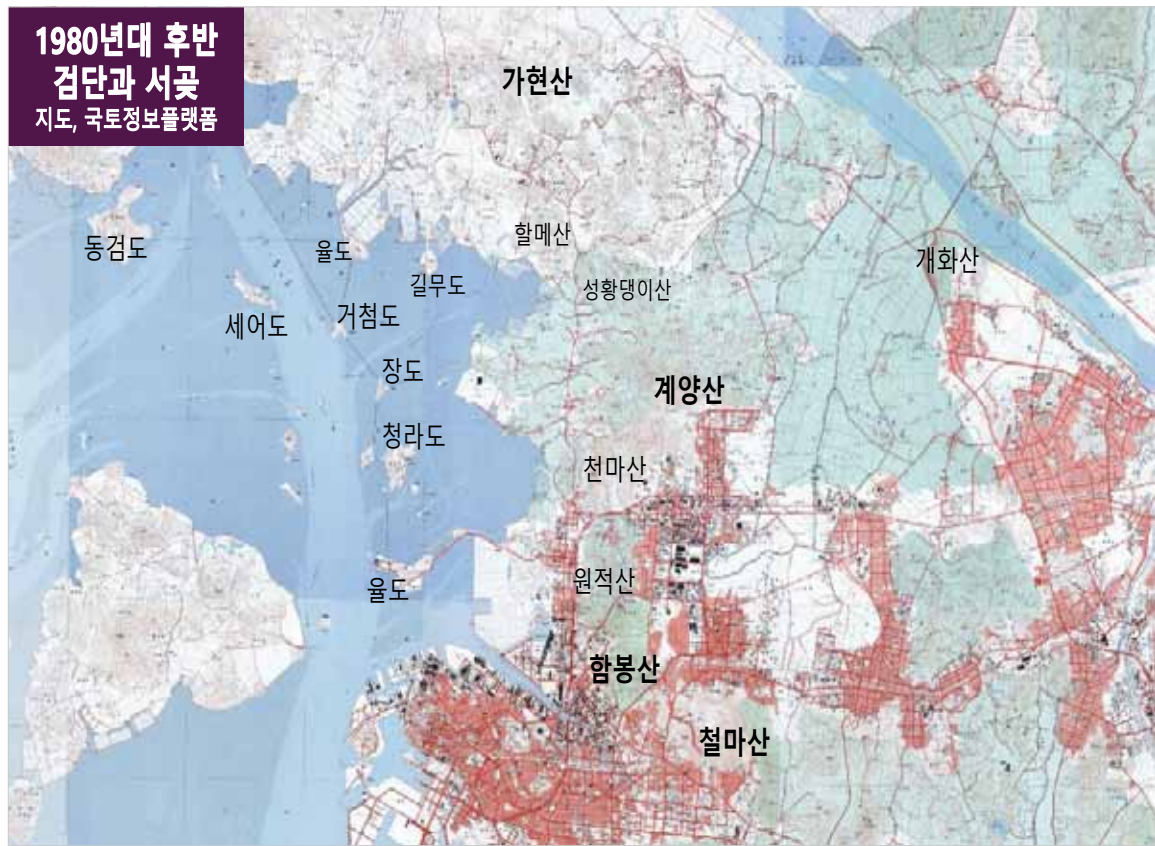
1960년대 가좌동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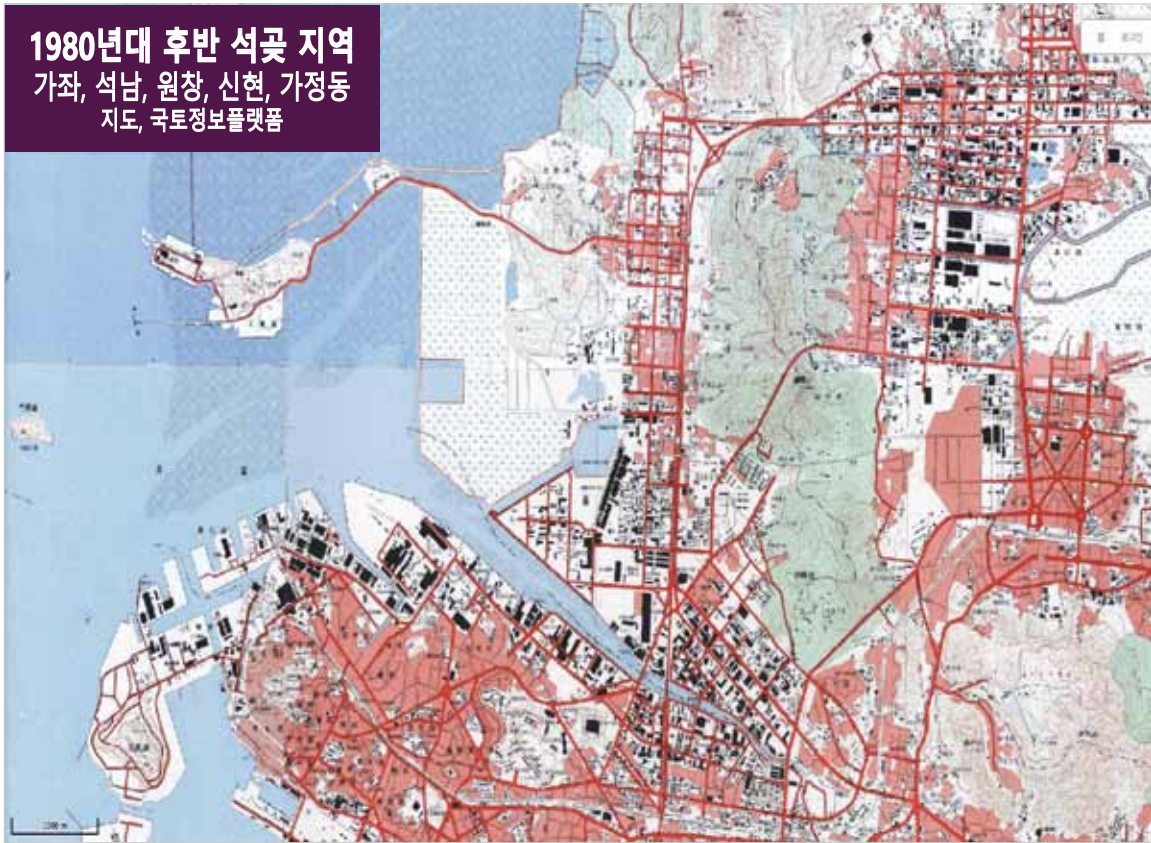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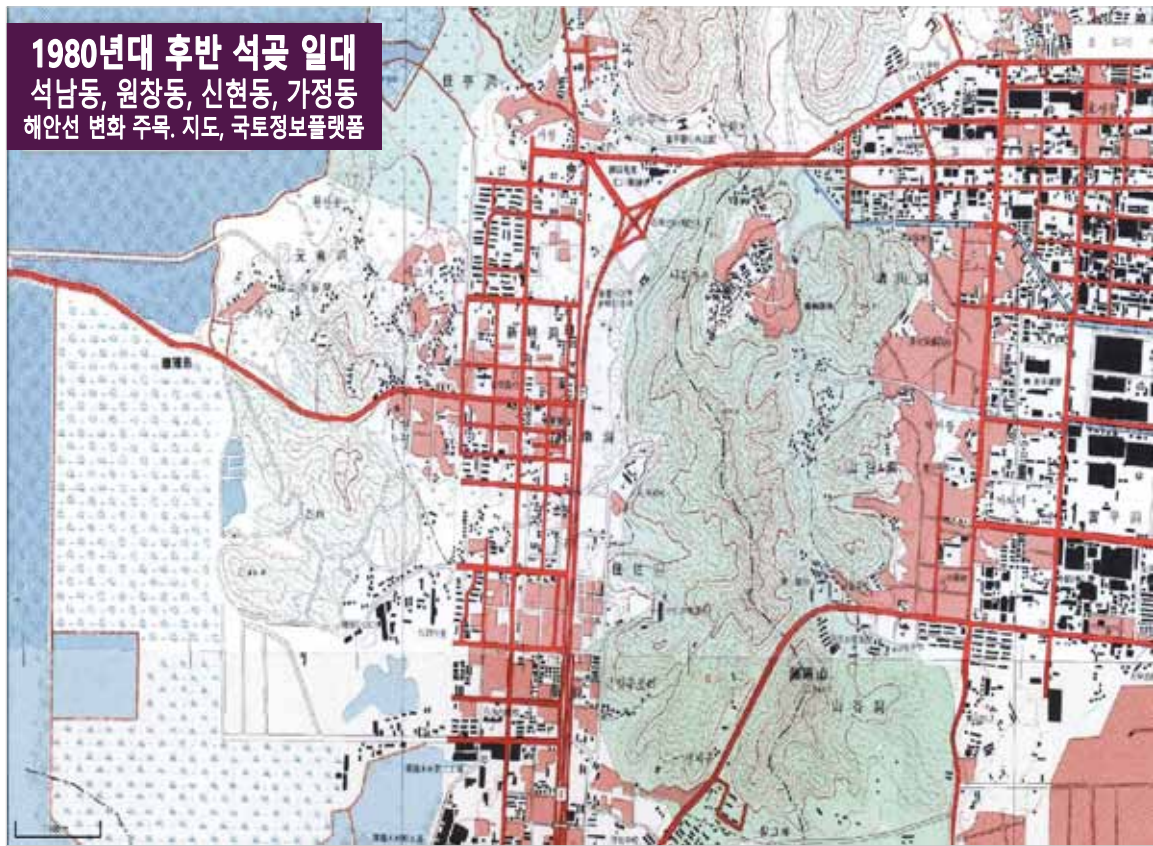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석곶 지역
가좌, 석남, 원창, 신현, 가정동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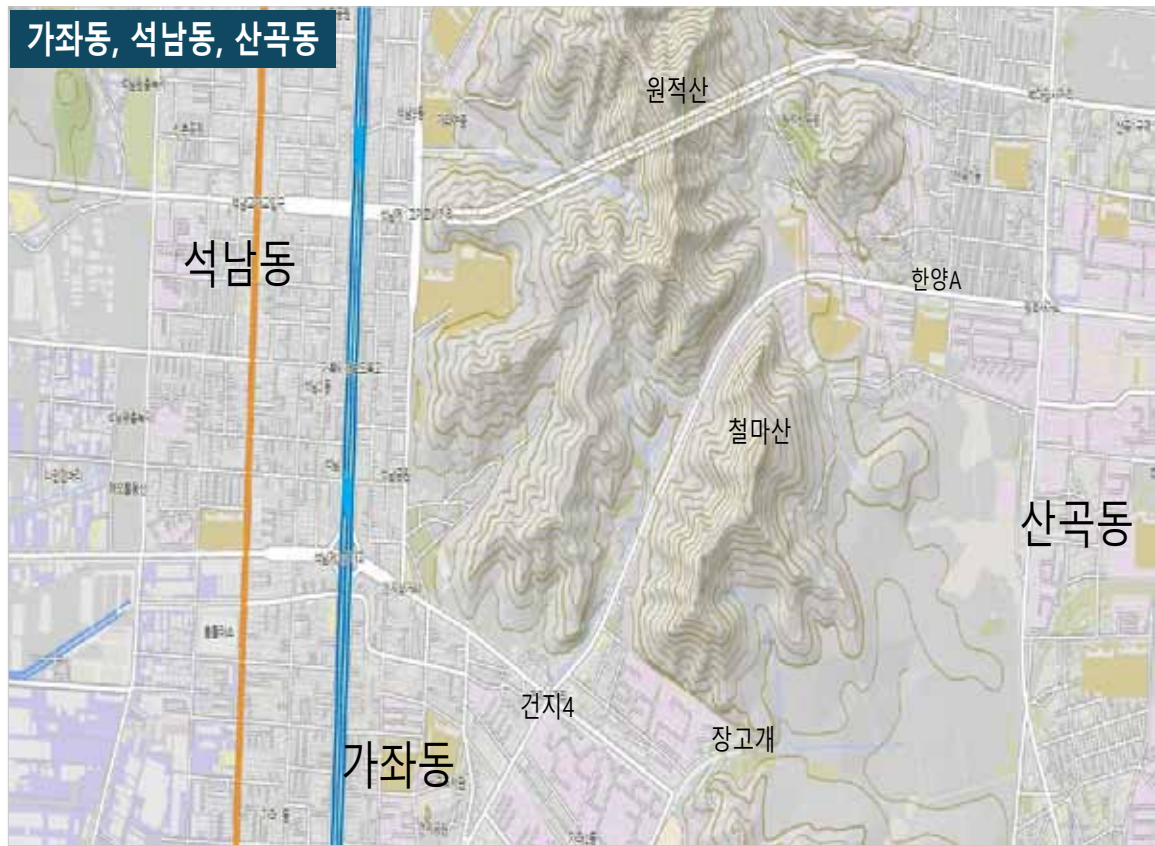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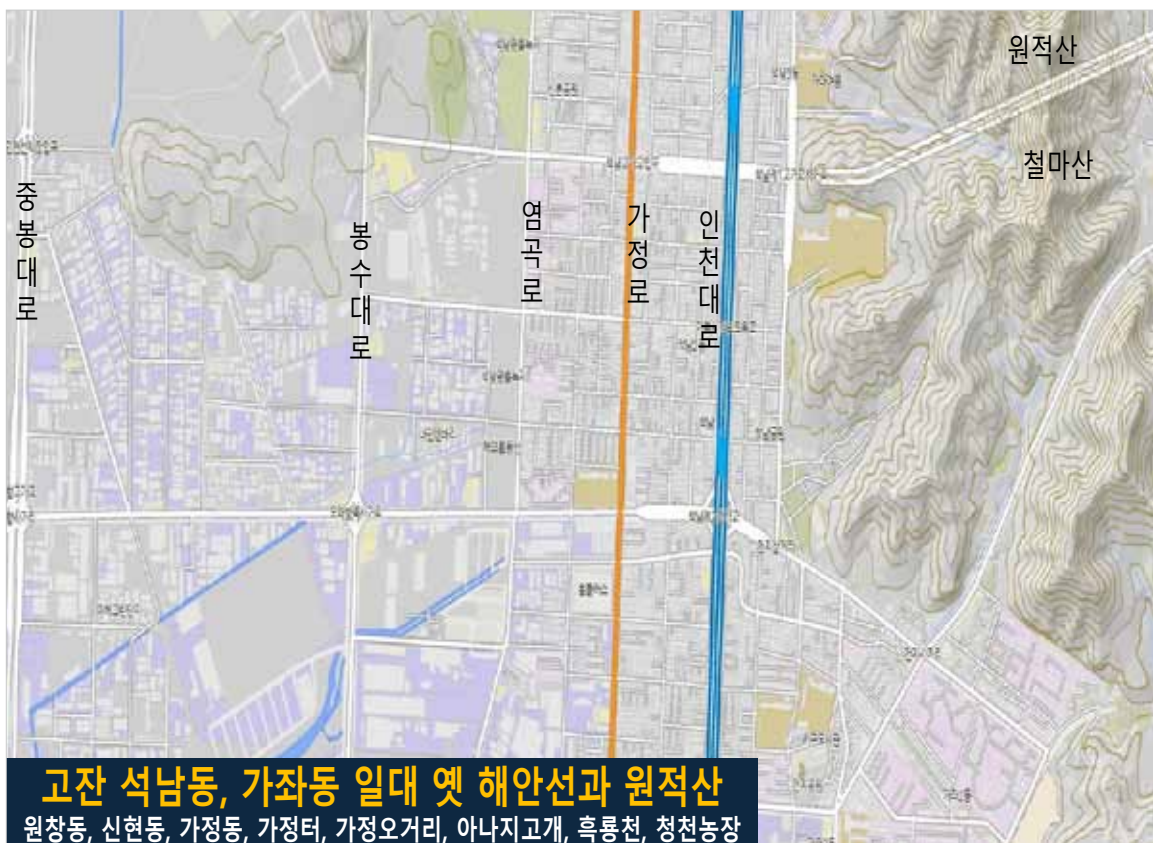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가좌동 일대
국가산업단지 5공단, 6공단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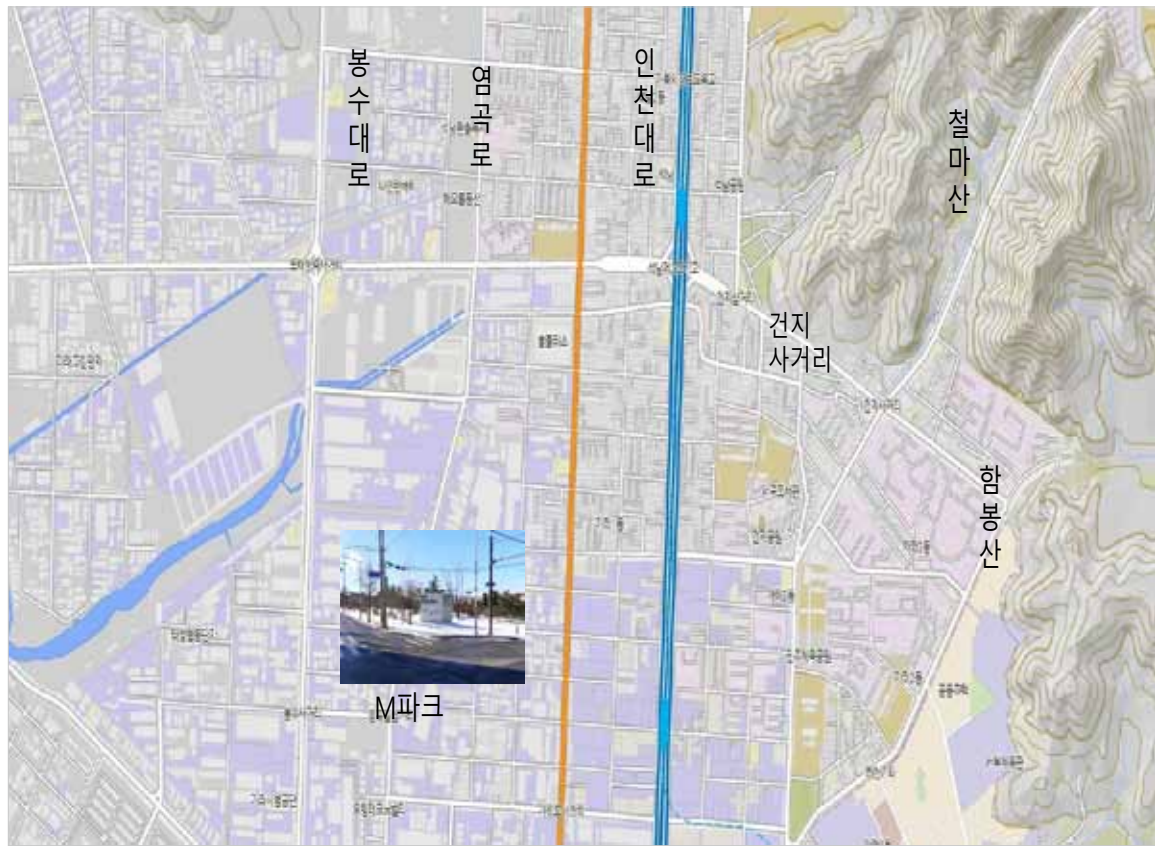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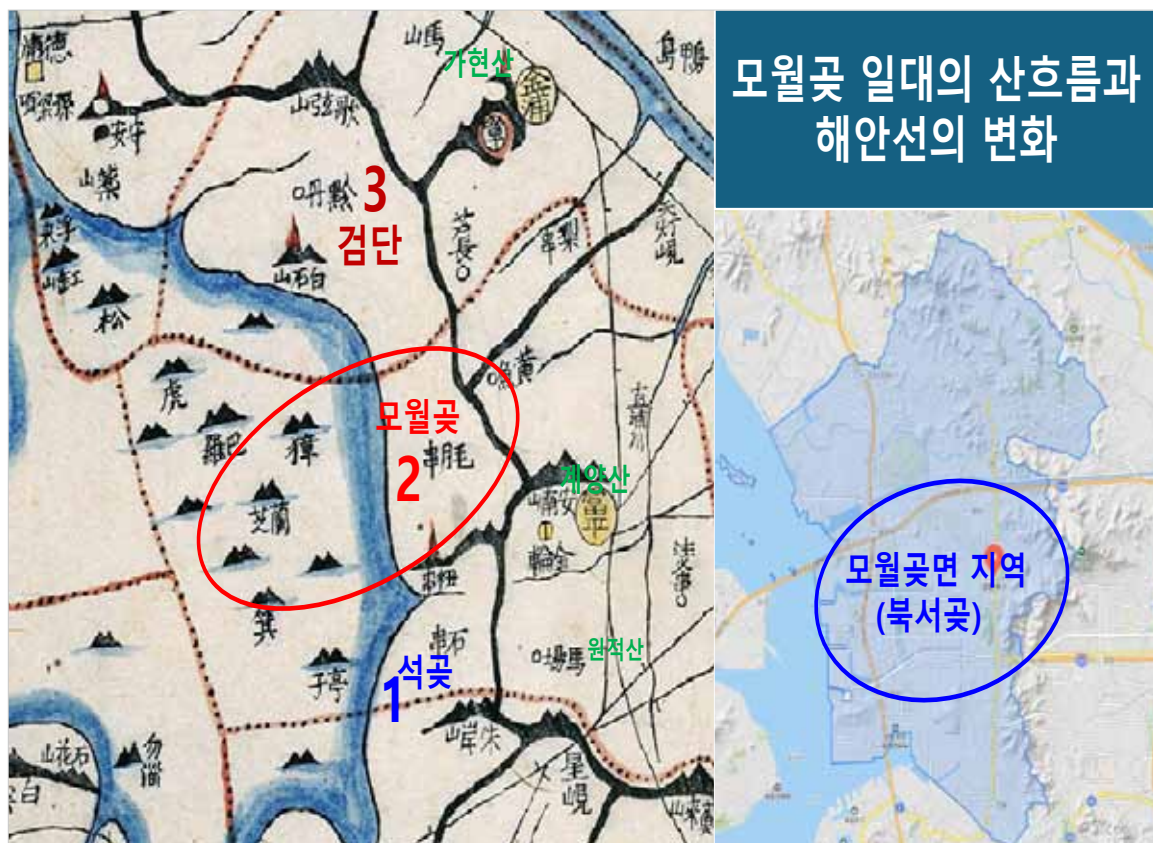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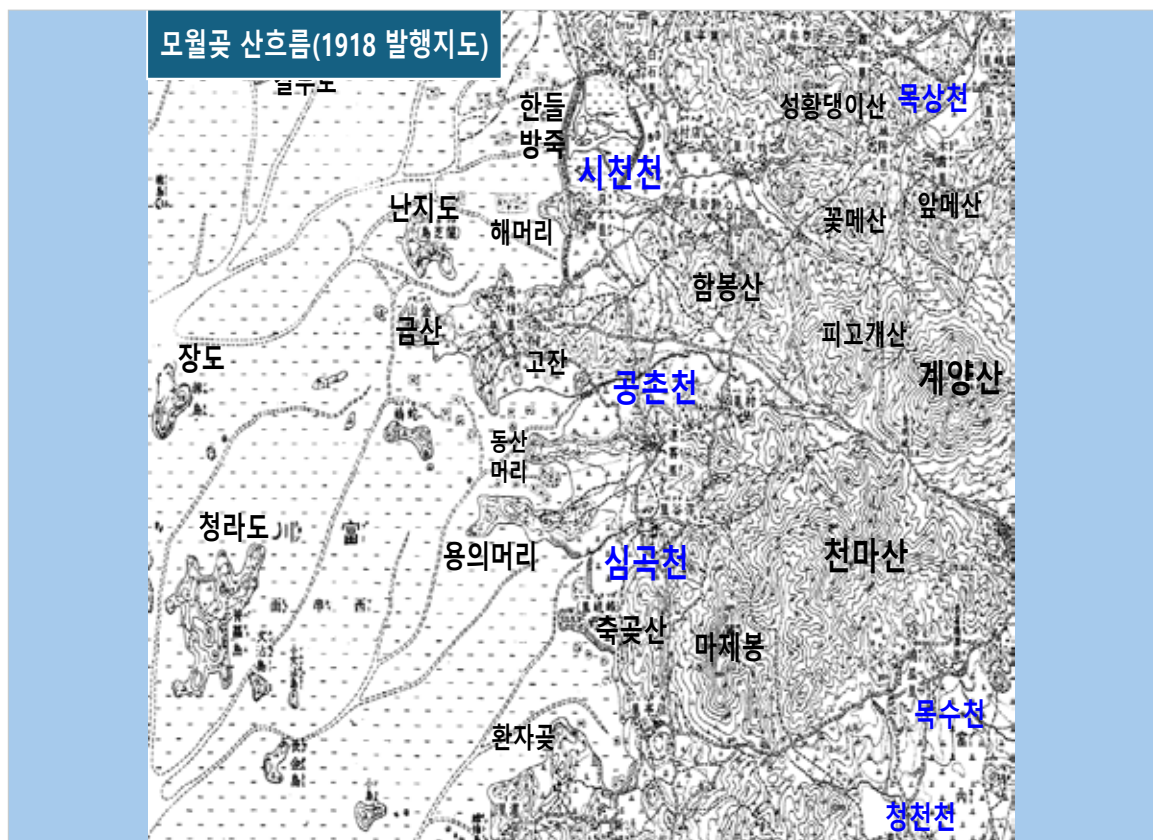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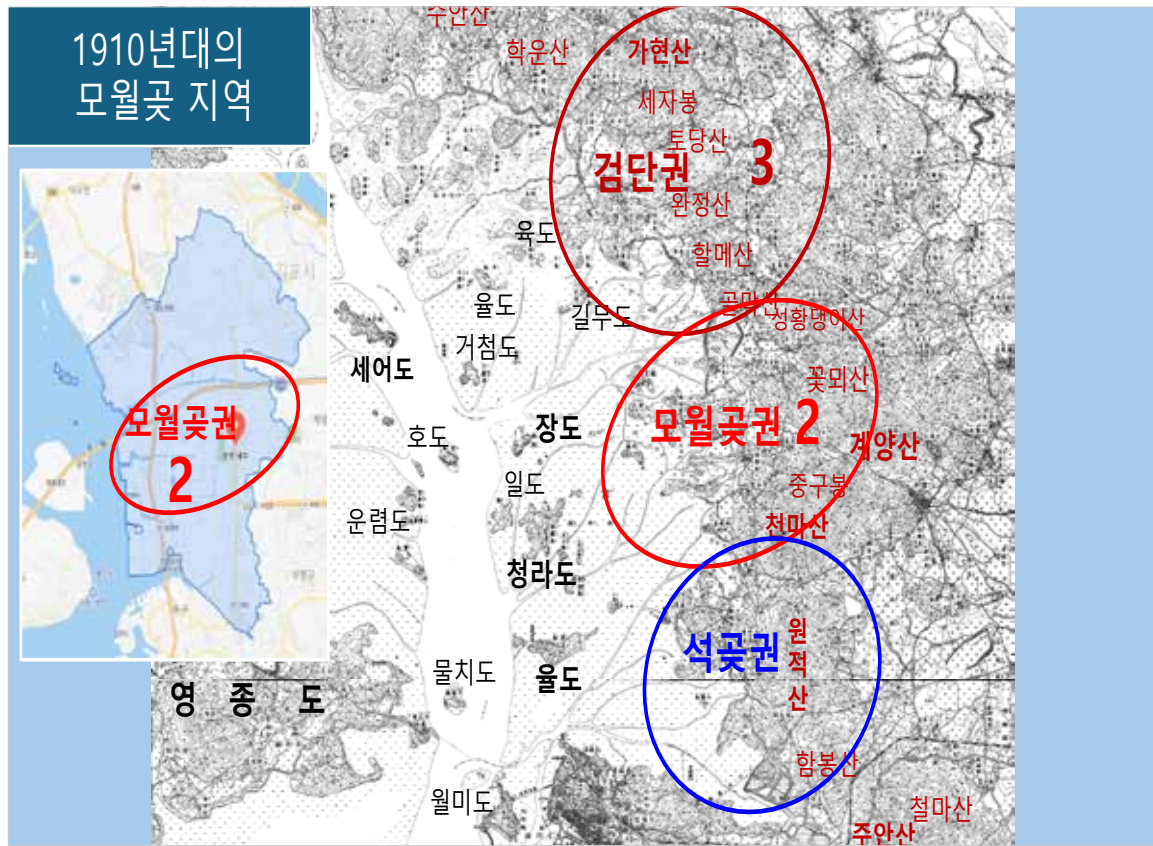






2. 모월곶 지역의 산흐름과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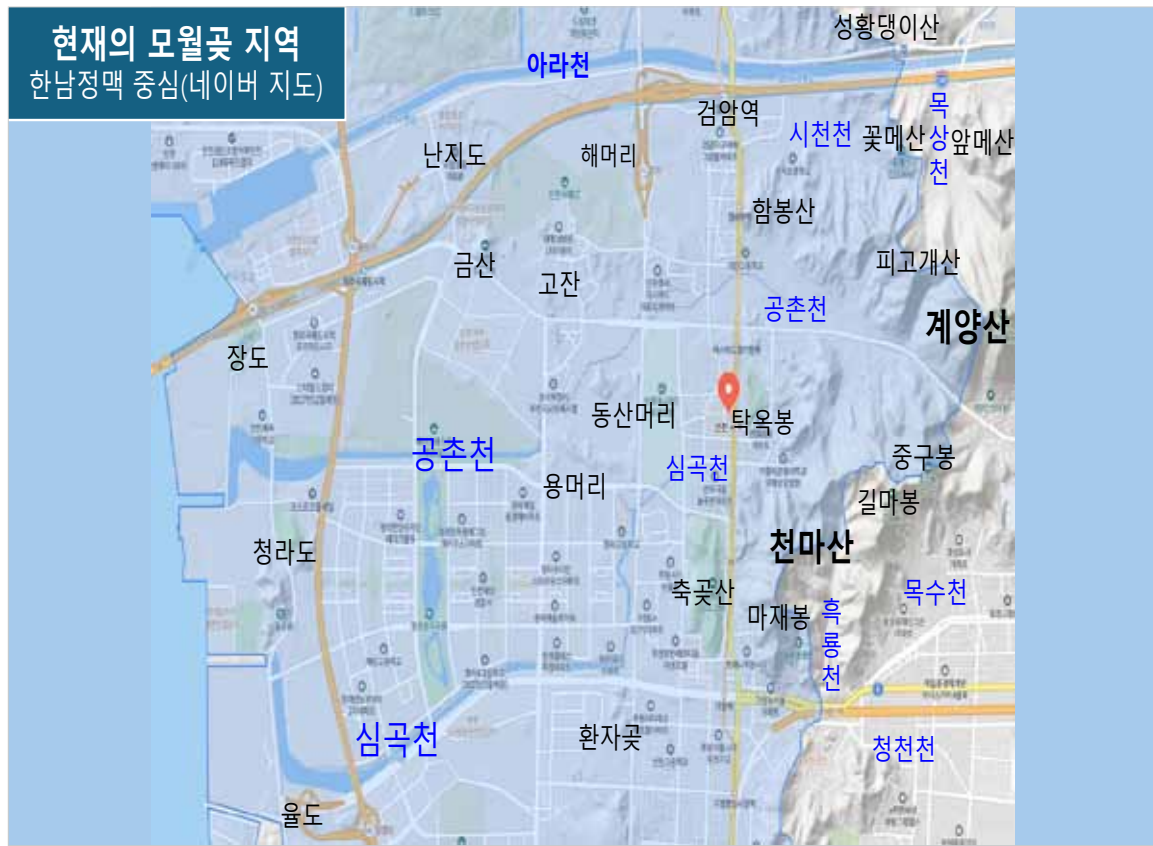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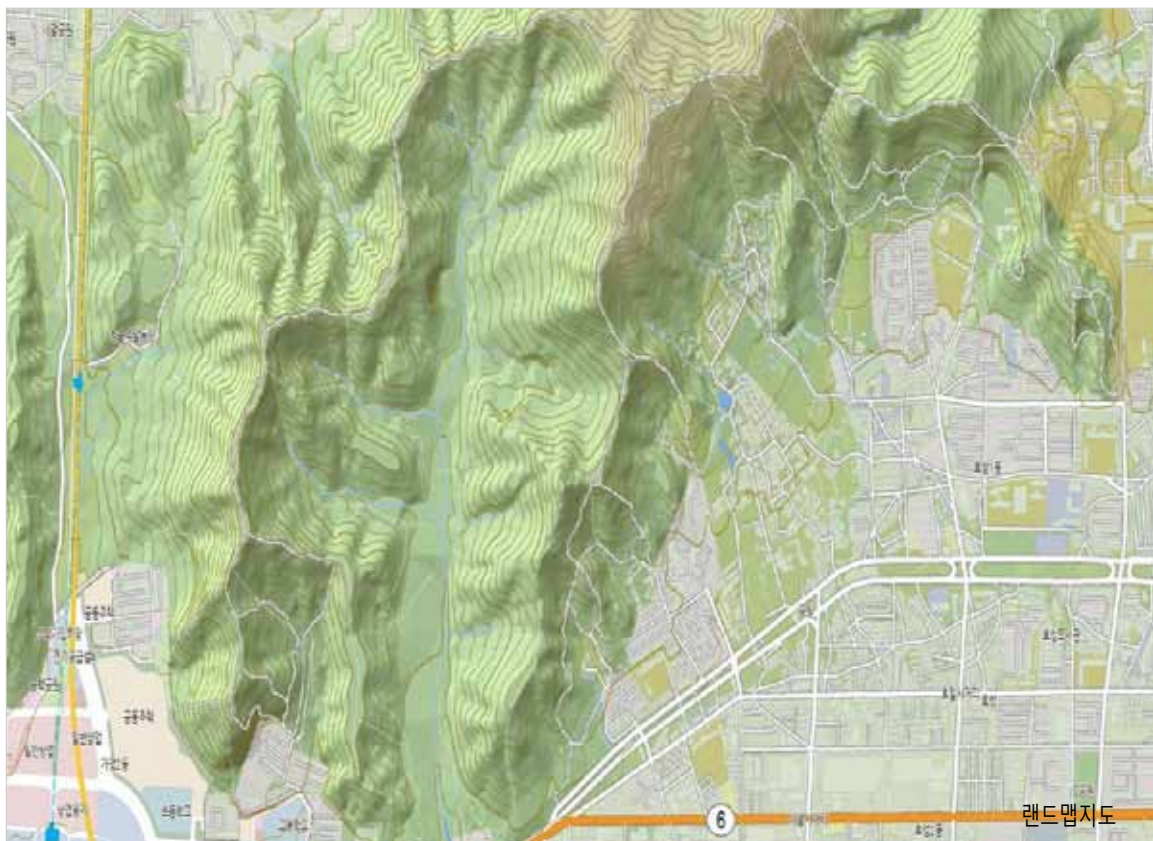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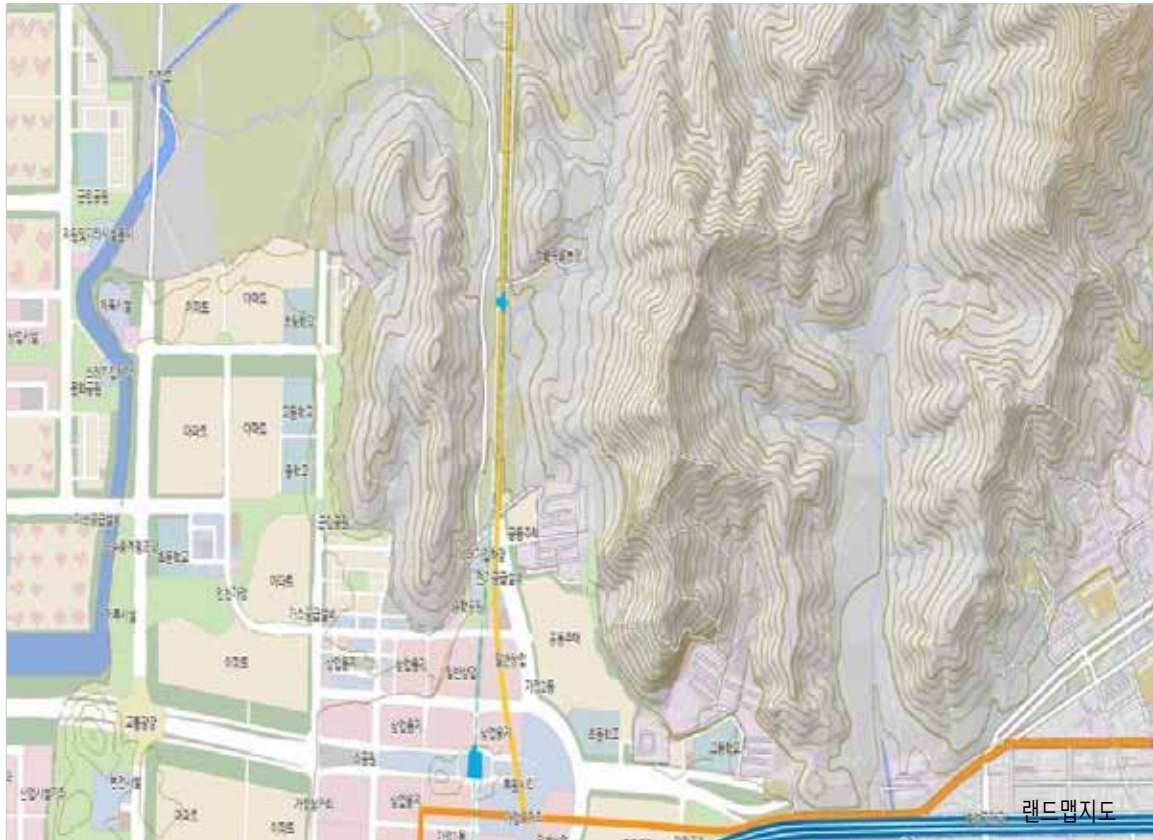
1960년대 해머리 일대
한들방죽, 검암염전, 백석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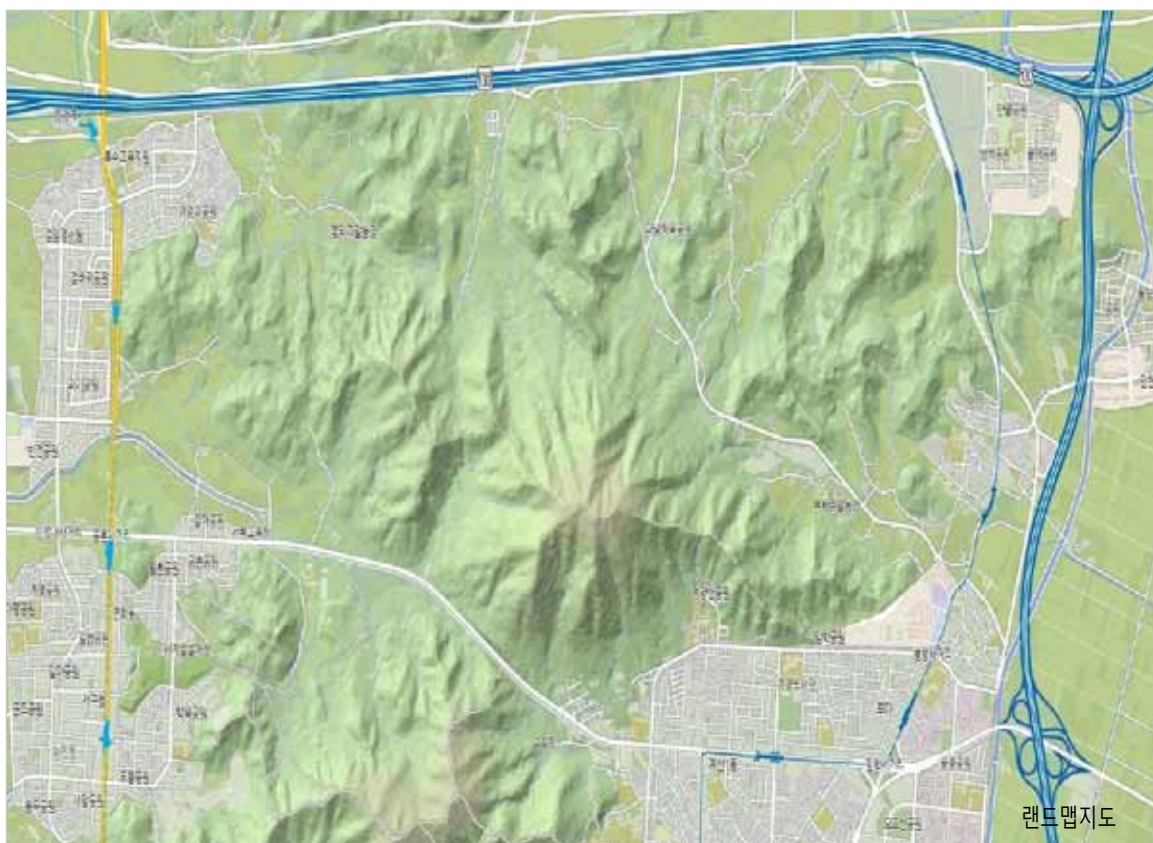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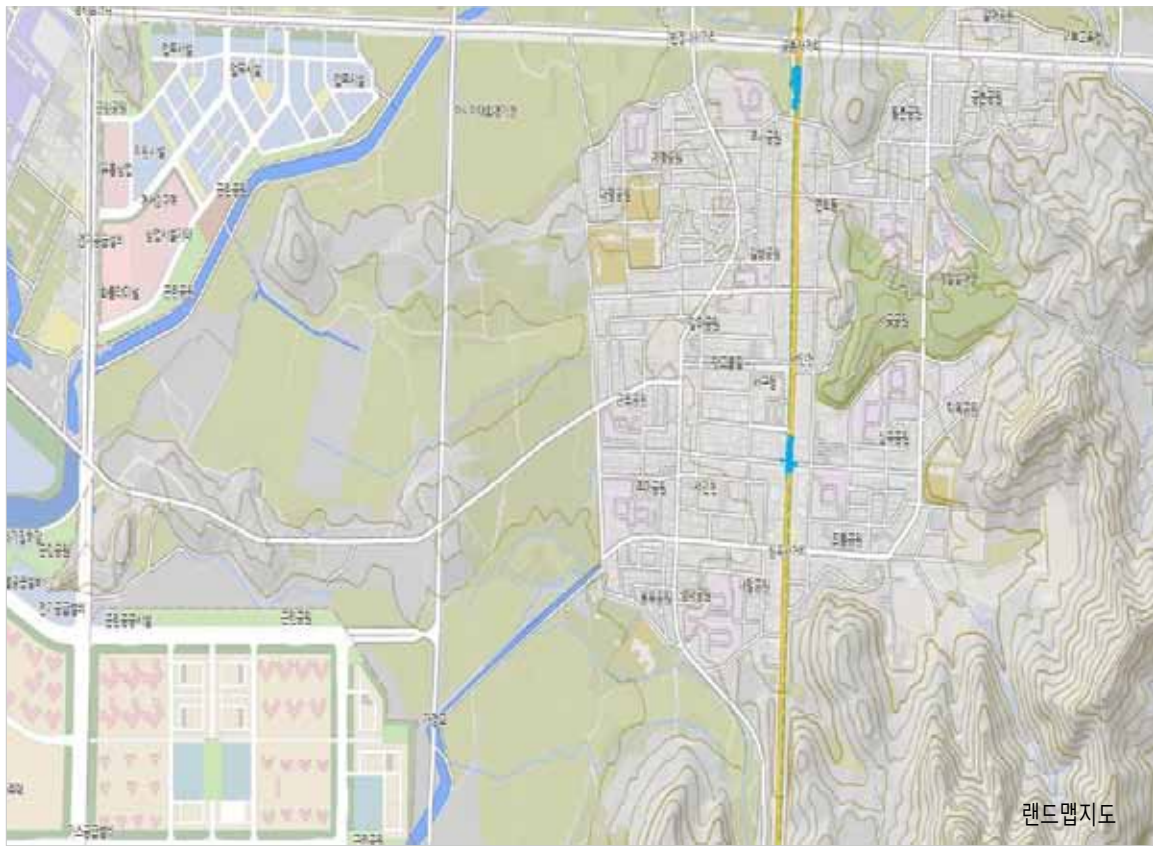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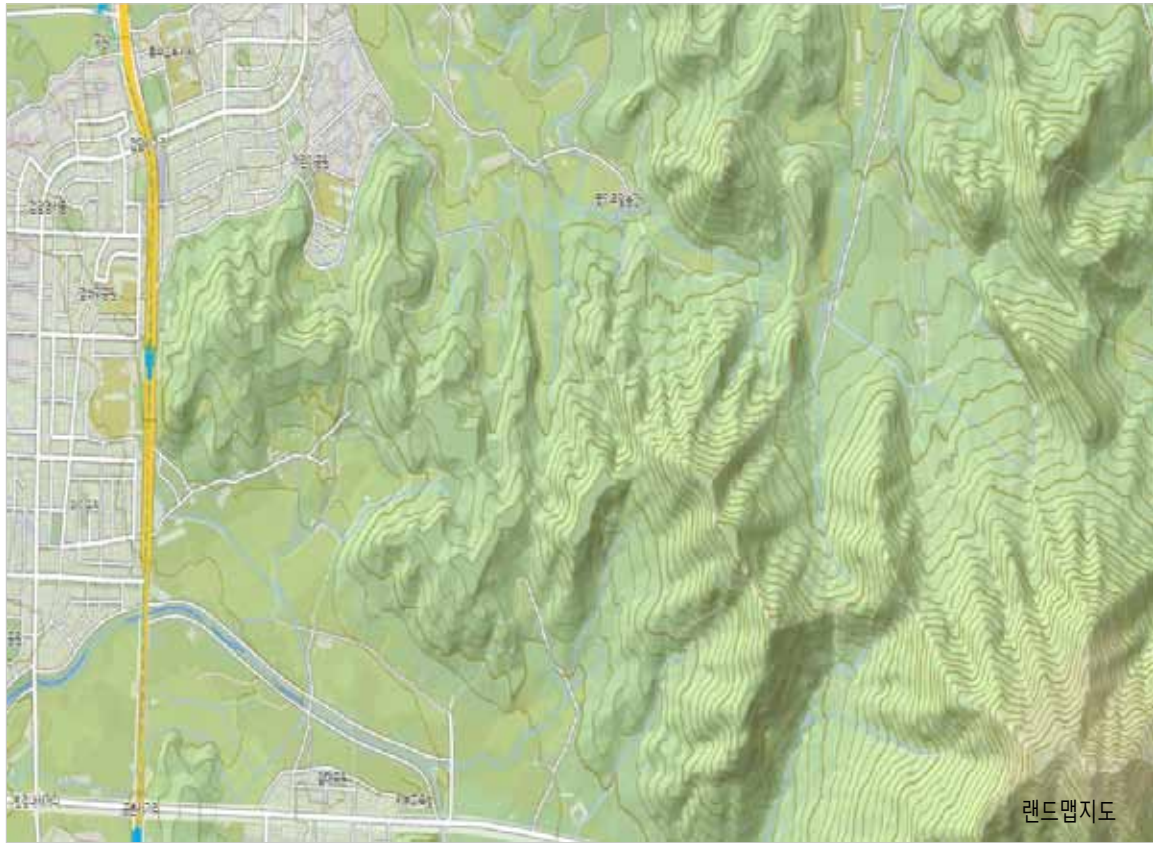
1960년대 시천천 일대
검암동, 시천동, 백석동











랜드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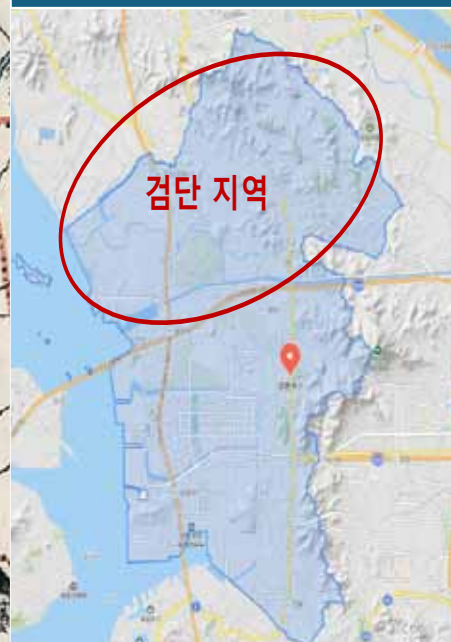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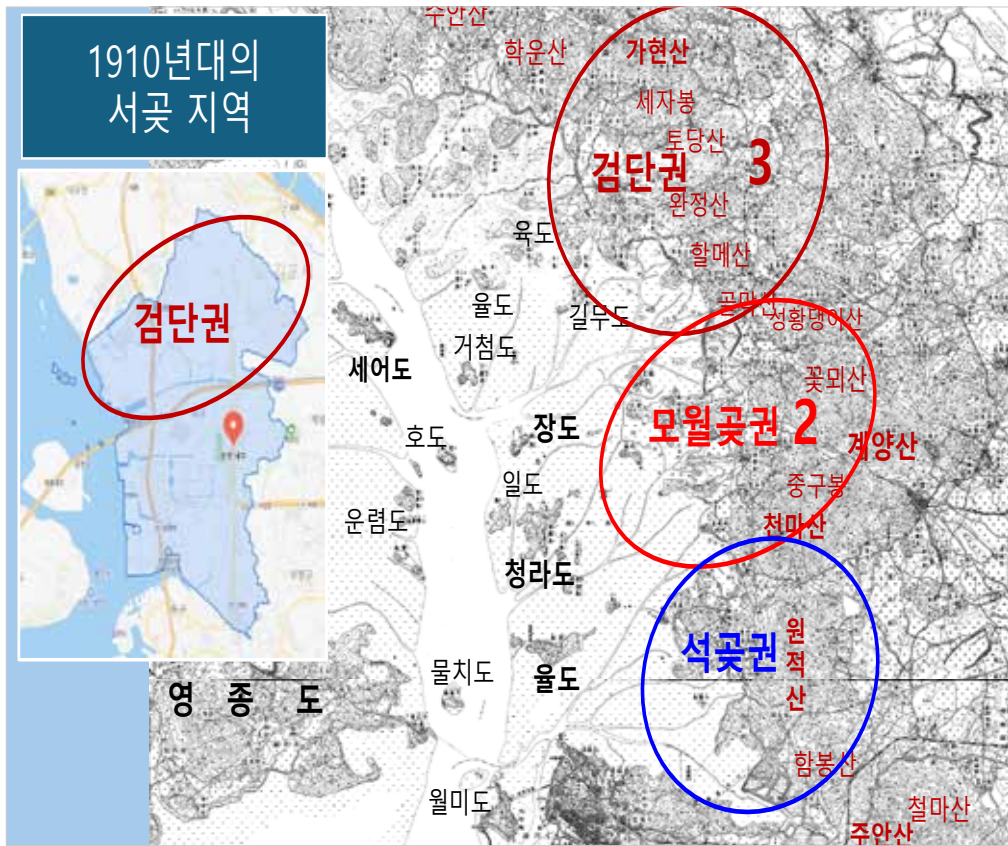
랜드맵지도

3. 검단 지역의 산흐름과 해안선



검단 일대의 산흐름과 해안선의 변화





1910년대 검단지역
(1918 근대지도)

가현산
왜재산
감정산
장릉산
큰짜산
용해산
만수산
성황대이산
꽃메산
앞메산

대포천
갈산천
검단천
시천천
대곡천
나진포천
계양천
목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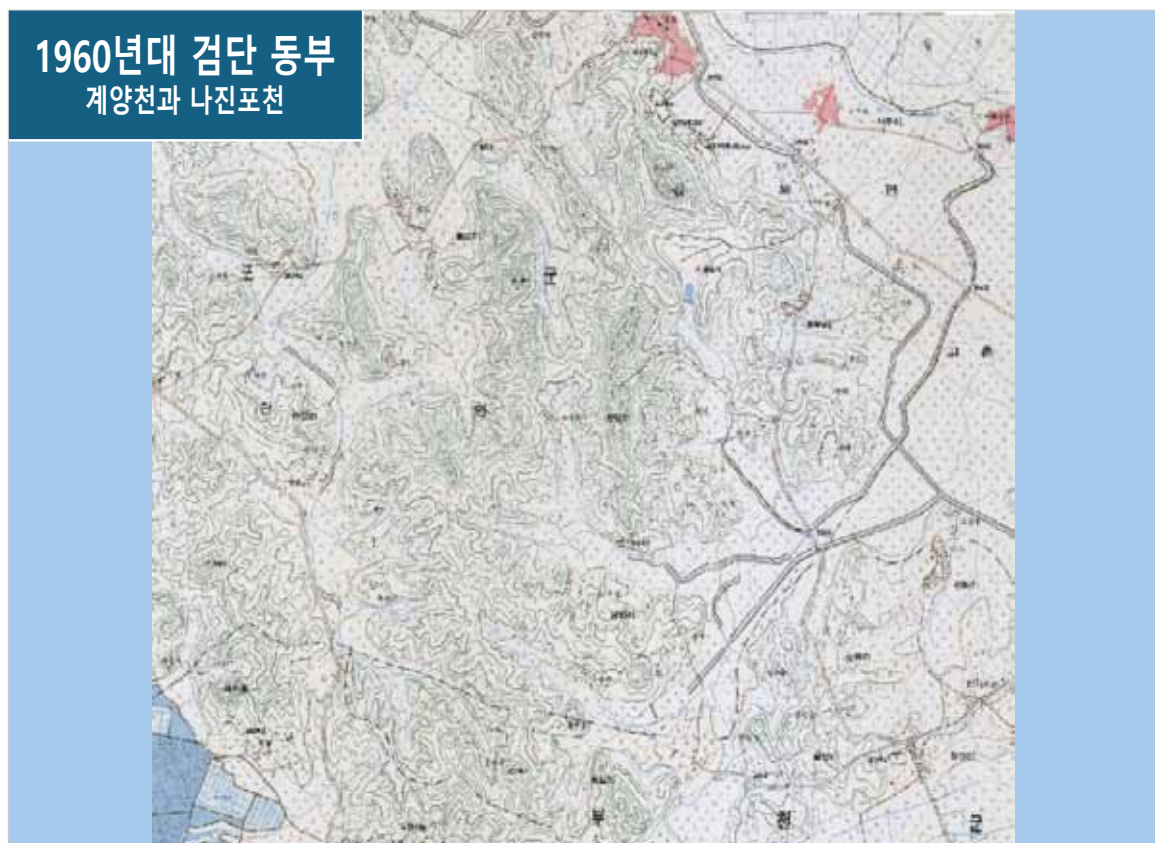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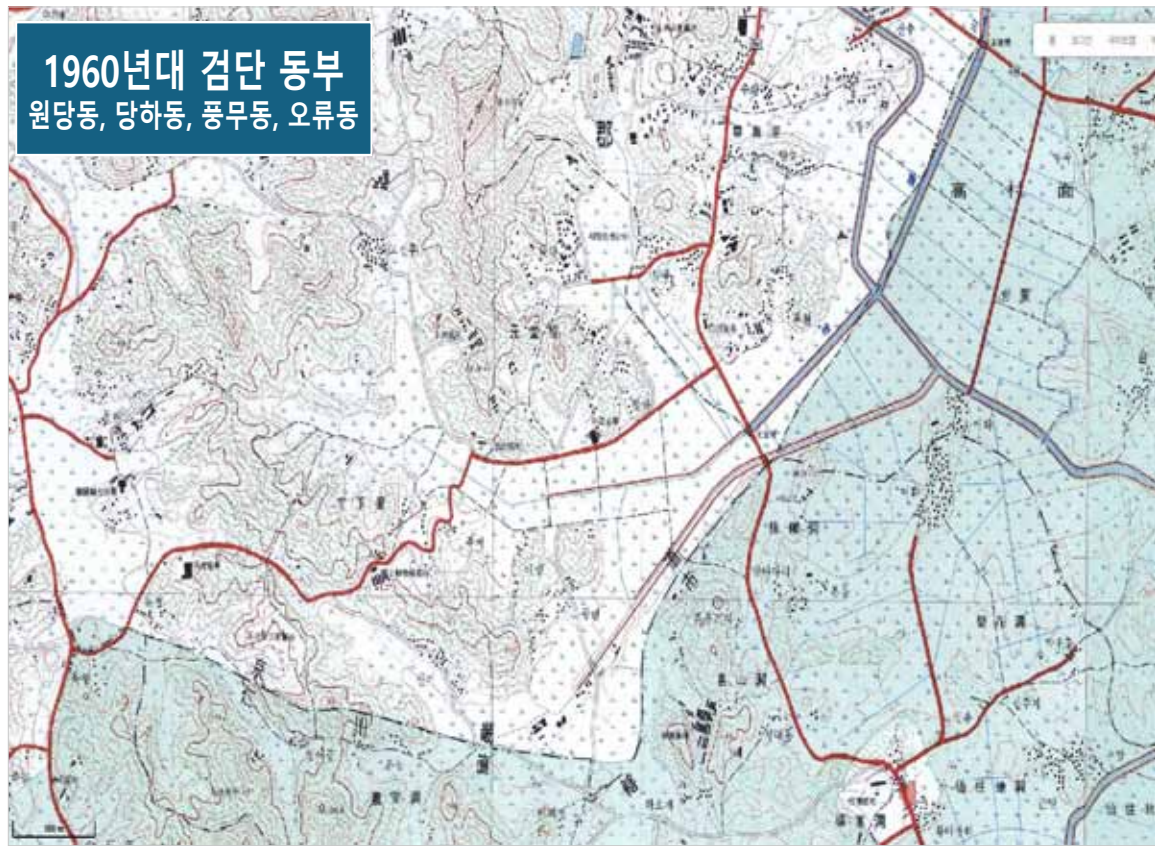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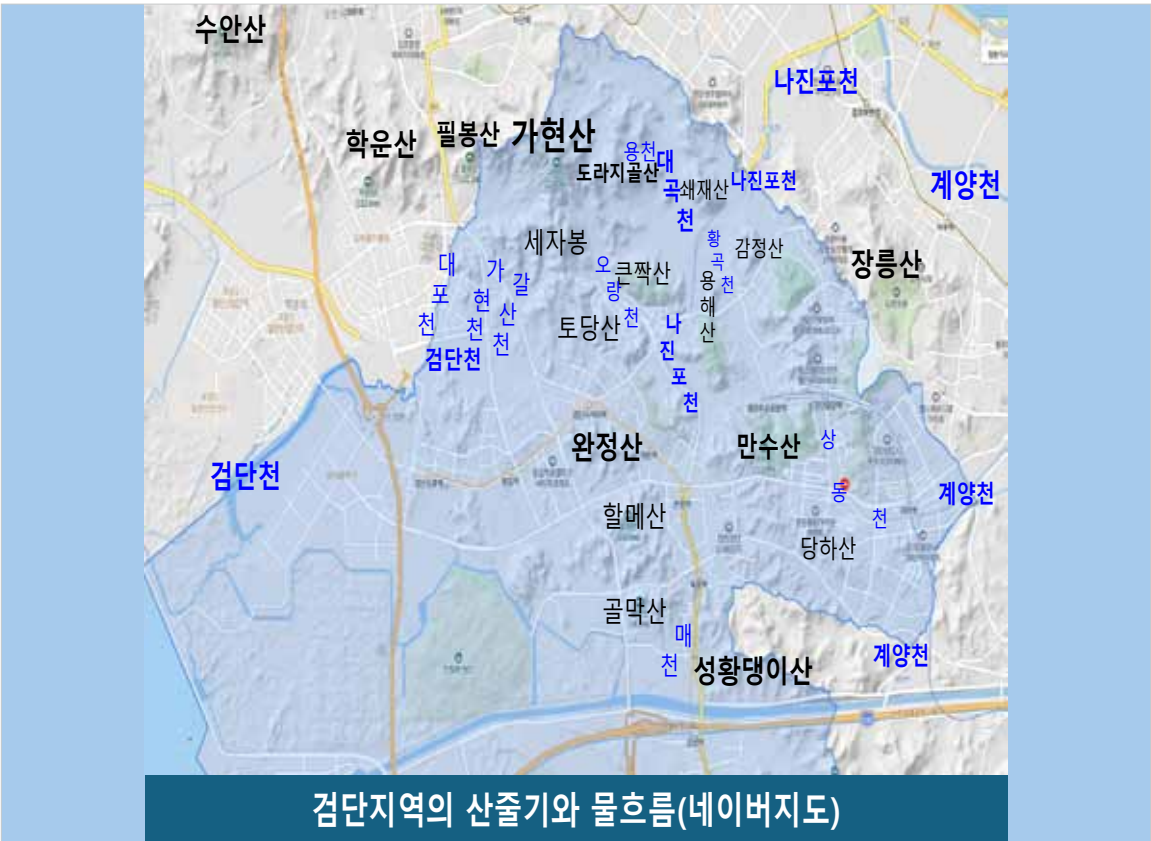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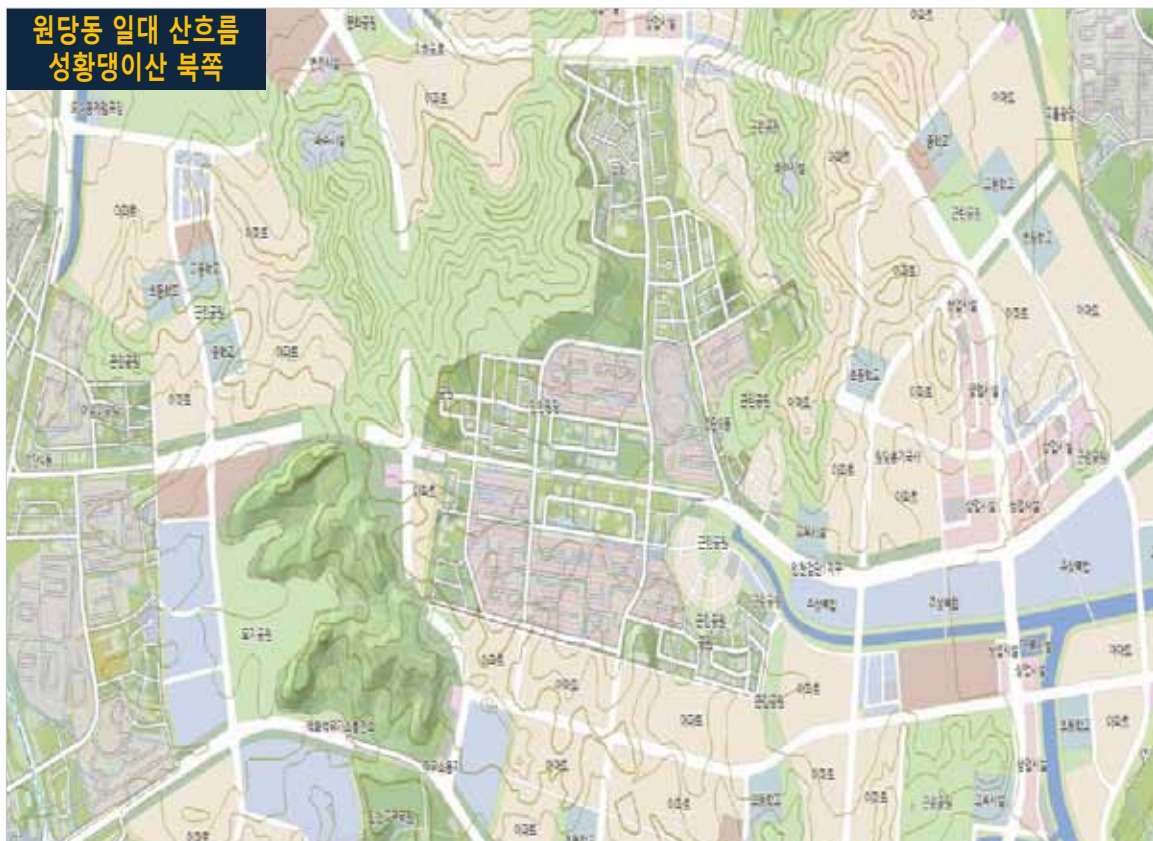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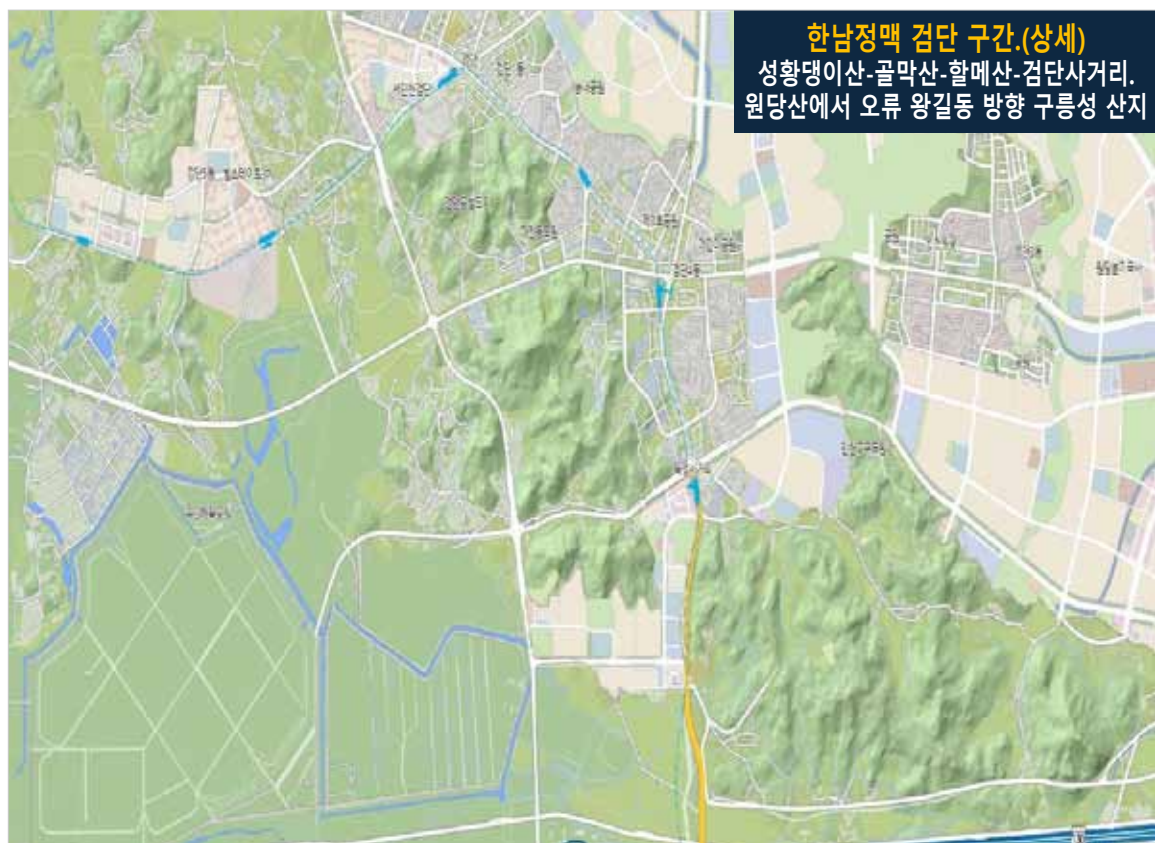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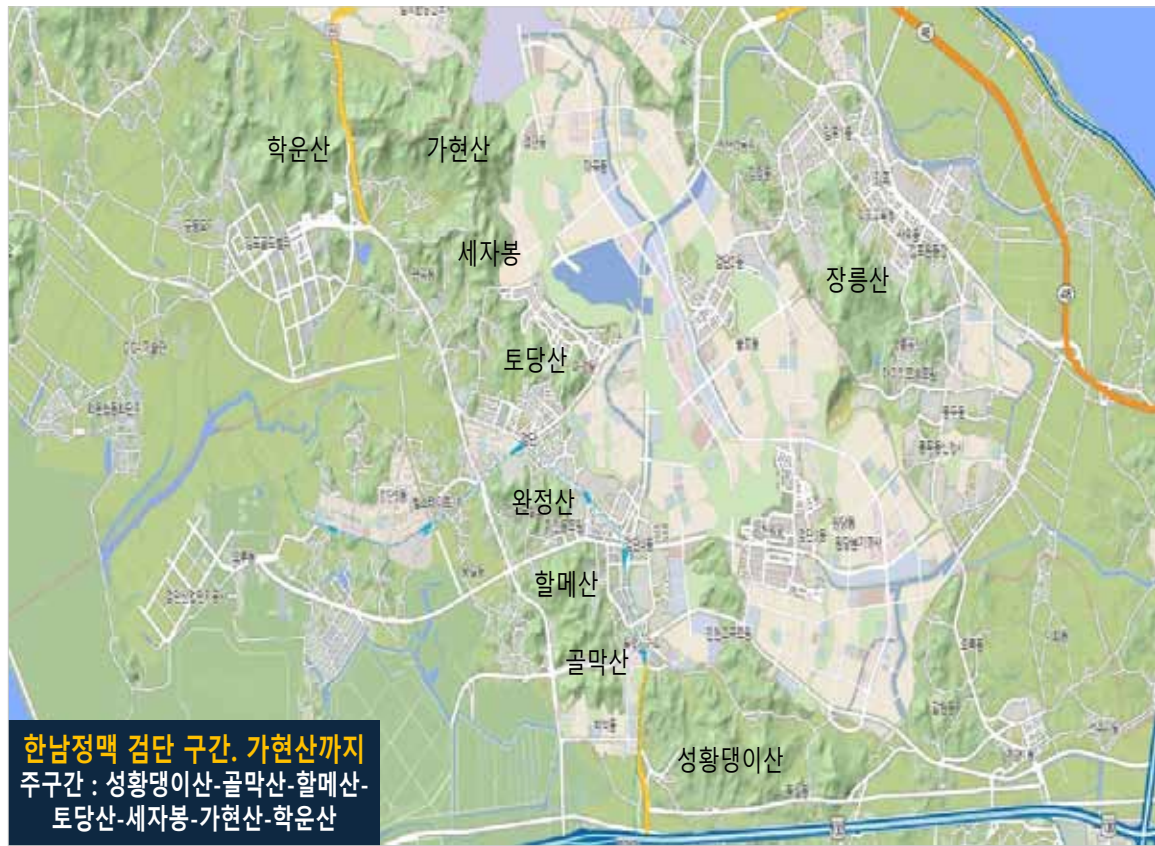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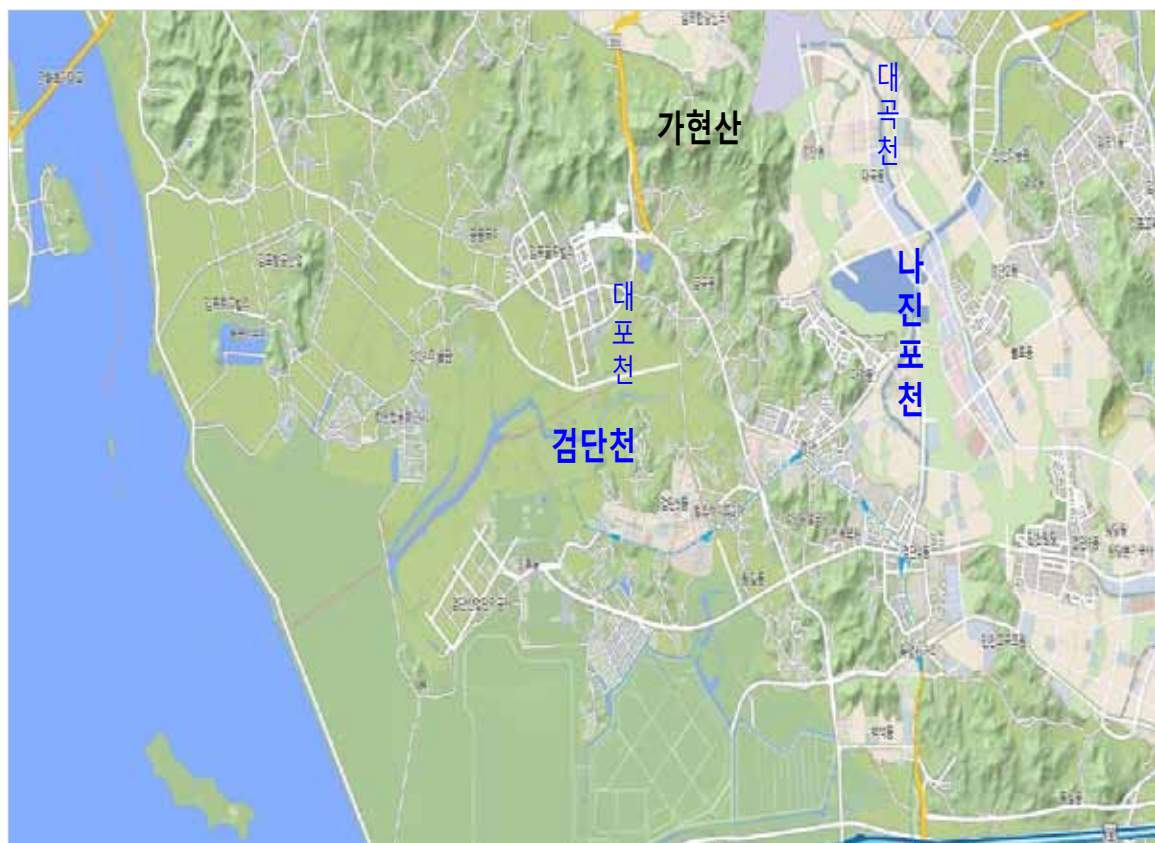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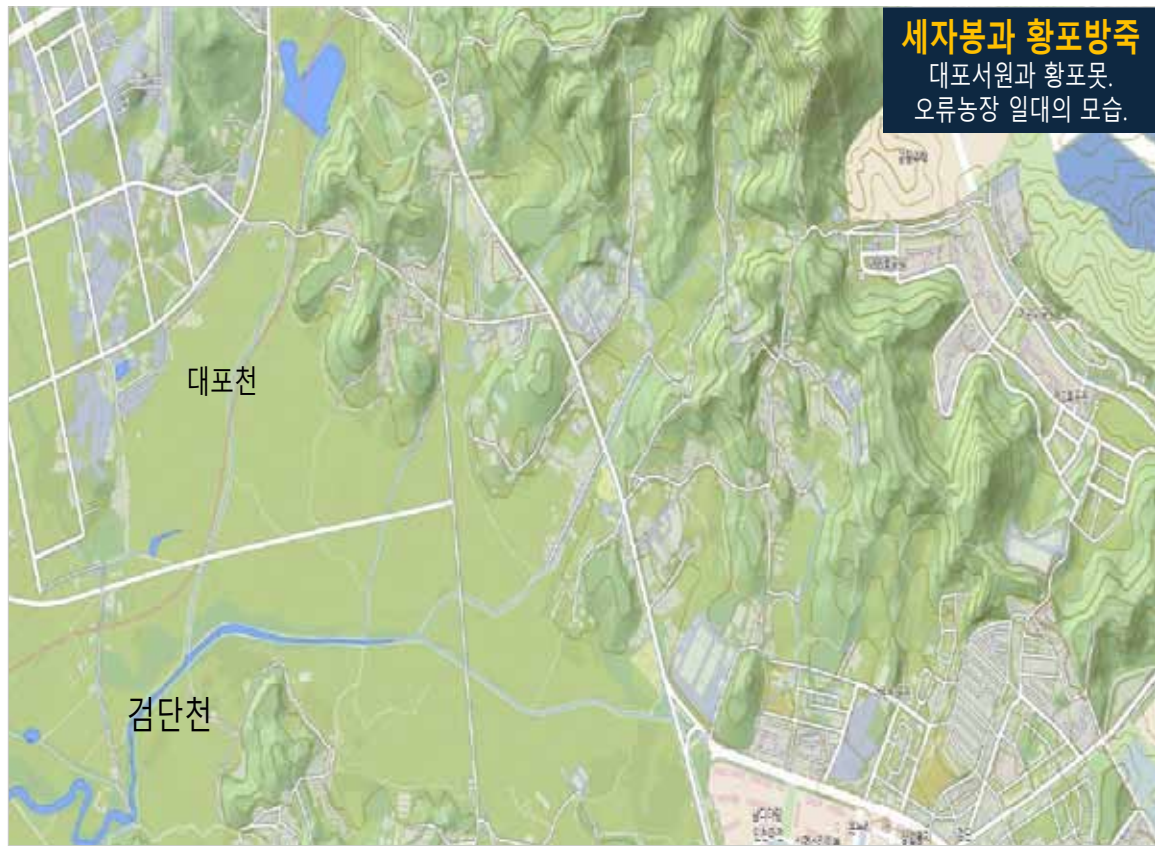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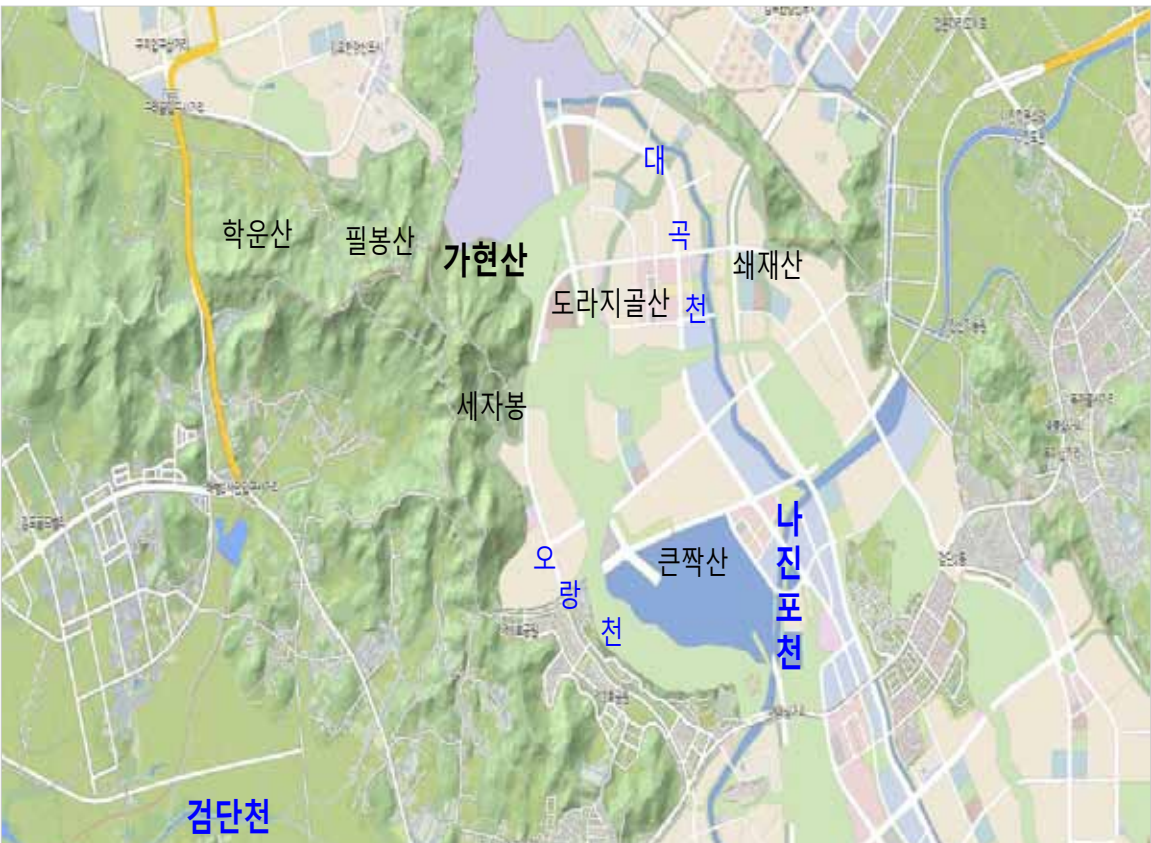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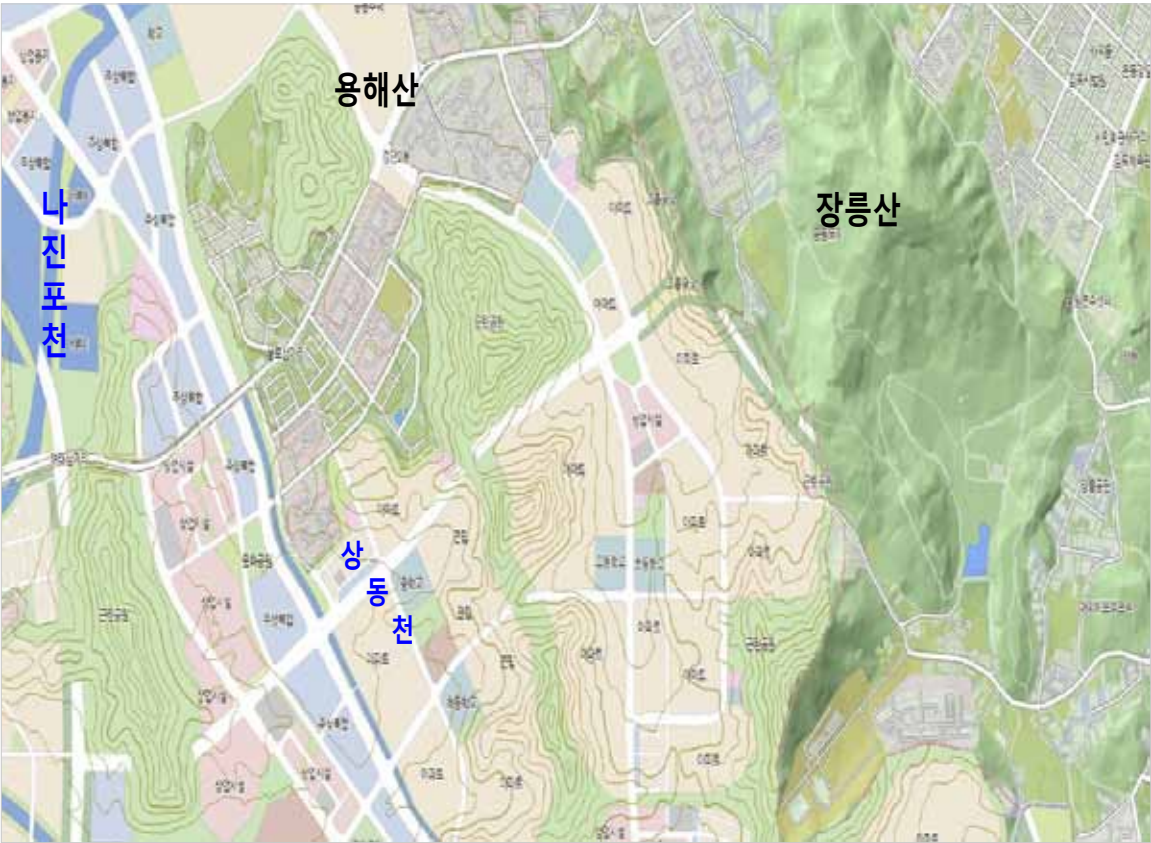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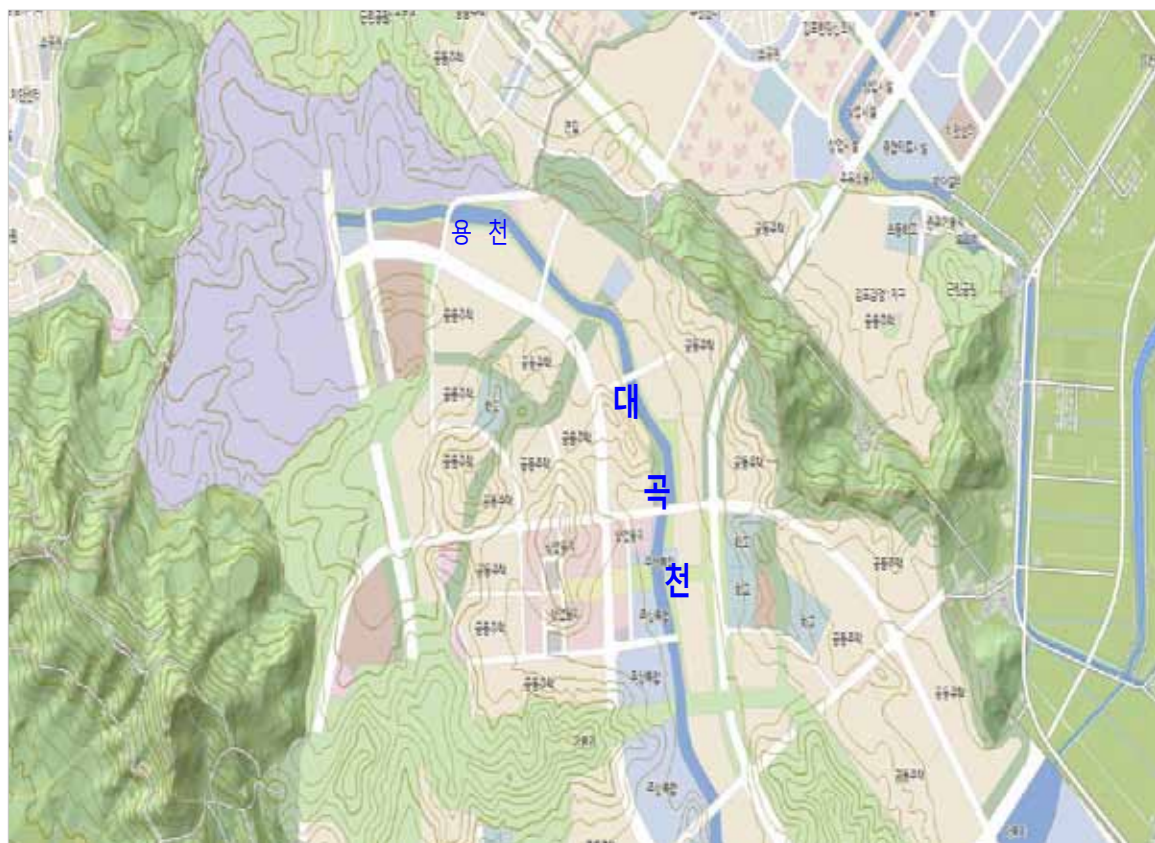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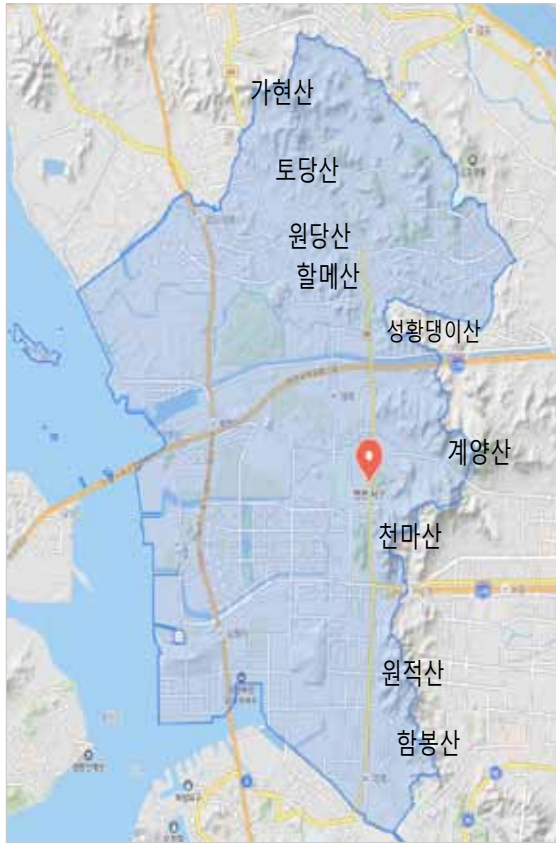












서구의 산흐름과 물줄기

한남정맥 인천·부평·검단 구간의 산들과
그 지맥들로 구성

함봉산 - 원적산 - 천마산 - 계양산 - 가현산

남부(석곶면 : 함봉산~아나지고개)

함봉산-장고개-철마산-철마산고개-원적산-아나지고개-

중부(모월곶면 : 아나지고개~아라천)

마제봉-길마봉-중구봉-경명현-계양산-피고개산-꽃메산-

북부(검단면 지역 : 아라천 북부)

성황대이산-골막산-할메산-검단산-토당산-세자봉-가현산

인천 서구의 지방하천

하천명	시 점	종 점	연 장 (km)
계양천	서구 목상동 굴포천 방수로경계	서구 검단동 인천, 경기도계	3.30
나진포천	서구 마전동 470-4번지	서구 대곡동 452-8번지	3.91
대곡천	서구 대곡동 92-1번지 무명교	대곡동 나진포천 합류점	2.40
심곡천	서구 심곡동 51-1번지선	서구 연희동 배수갑문	7.67
공촌천	서구 공촌동 239-19번지선	서구 경서동 배수갑문	8.86
시천천	서구 검암동 9-1번지선	시천동 굴포천방수로 합류점	1.02
검단천	서구금곡동	서구오류동	6.60
대포천	서구 금곡동 지방도302호	검단동 검단천 합류점	1.65

서구의 소하천

명칭	기점	종점	연장(m)
갈산천	금곡동 265-3	금곡동 318-4	910
가현천	금곡동 352	금곡동 444-2	2,050
매 천	백석동 산16-1	백석동 152-43	2,350
금곡천	검암동 산32-1	검암동 32	1,221
용천	대곡동 30	대곡동 87-20	944
목지천	불로동 464-3	불로동 520-6	650
오랑천	마전동 17-12	마전동 417-43	972
상동천	원당동 산103-1	원당동 408-1	603
황곡천	불로동 173-6	불로동 117-10	1,002

산줄기와 물흐름을 통해 본 서구의 공간 특성

1. 풍부한 산지, 녹지 비율 50%, 북고 남저 / 동고 서저
 - 한남정맥의 산흐름 영향
2. 한남정맥의 서구 구간은 부평구과 계양구가 경계. 중요산은 공유
 - 한남정맥의 인천구간의 70% 이상이 서구를 지나감.
3. 대규모의 갯벌 매립을 통한 지형 변화와 산업 지역 형성
 - 주안산단, 목재공단, 기계공단, 인천지방산업단지, 서부산업단지 등
4. 육속화된 많은 섬들 : 인문적 활용 필요
 - 석곶 : 울도, 목섬, 소도, 자치도, 소염도,
 - 모월곶 : 청라도, 문점도, 장금도, 소문점도, 일도, 이도, 장도, 사도, 난지도
 - 검단 : 길무도, 토도, 승도, 울도, 소울도, 육도, 명도 등
5. 나진포천, 계양천, 검단천, 대곡천, 심곡천, 공촌천 등 도심하천 풍부

감사합니다

서구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정은(소설가)

최정학 선생의 우아한 원고 잘 읽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여러 겹의 사건으로 확장 가능한 기호와 그림들을 보자니 저의 식견과 상상력으로는 해독하기 쉽지 않은 동시에 이 발표를 통해 어떤 스토리텔링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최정학 선생님의 안내로 몇 번 지역 답사를 한 적 있습니다. 공간을 쥐락펴락하며 현장에서 지도를 그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시선과 의식은 미처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는 그려졌습니다. 열정의 세월이 이번 원고에 입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산과 물이 어떻게 서구 지역의 교통으로 이용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때로는 산과 물을 이용해서, 때로는 산과 물을 넘어서서 교통이 구축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과 하천의 구조는 서구 주민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익히들 아시겠지만 ‘교통’은 이동뿐 아니라 소통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이동을 포함한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민의 생활양식은 교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애초의 교통은 산과 물을 기본으로 형성되었으며, 개발로 도시경관이 변해도 옛날에 형성된 길들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토론문은 서구 교통의 발달 및 변화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은 선생의 원고를 저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한 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황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육로와 해로가 있는 것은 물론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 항공로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서구 내부를 연결하고 타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 항만·어항, 공항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교통수단과 시설 등이 있습니다. 도로는 서구를 종횡으로 뚫어나간 대로와 대로에서 갈라진 로가 있으며 교통수단으로는 간선, 지선, e음버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철도의 경우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의 경우 최근 서구의 거주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공항철도는 2007년 3월에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구간을 1단계로, 2010년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을 2단계로 개통하면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1995년 30만 명 남짓이었던 데서 30년이 다된 현재 3배를 넘었습니다. 폭발적 인구증가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가운데 직통열차는 개통 초기 모든 역을 무정차 통과하다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계양역 등을 환승역으로 전환하고 다른 노선과의 무료 환승을 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항철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공항철도는, 서구를 포함한 인천 북부의 거주민들에게 통근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정차하는 서구의 역은 검암역과 청라국제도시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교통의 한 축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고속도로입니다. 2017년 인천과 김포 구간을 처음 개통했으며,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광역도로망인 만큼 완전 개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해안이 가까운 서쪽으로 치우쳐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합니다. 해안을 낀 원창동, 청라동, 오류동을 통과하는데, 서구의 해안 쪽으로는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등의 시설이 주변 지역에 소재합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1996년 10월 장암~건대입구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노선을 연장해왔습니다. 2012년 10월 부평구청까지 개통했고, 2021년 5월 석남으로 확장하며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었습니다. 종착역인 석남역은, 재래시장이 세 곳이나 있어 환승역이 들어서기에 적절한 환경입니다. 2027년이면 7호선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되어 서구에 7개 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ㄱ자를 형성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대로와 평행선을 긋는데 이는 서구와 부평구의 경계인 원적산의 영향이며 그 영향력은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항은 서구의 항만시설입니다. 원창동 해안 매립지에 1부두부터 4부두까지 들어섰으며, 서구와 인접한 중구에는 5부두를 비롯하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이 있습니다. 북항은 인근의 목재단지나 석유·화학시설 관련 기업이 소유한 민간항만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은 검암정서동과 오류왕길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아라뱃길이 완공되면서 서해로 직접 방류하는 방수로가 건설되어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은 신현원창동에 속한 세어도 선착장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해 섬과 육지를 연결합니다. 예전에는 영종도를 오가는 카페리 선착장이 울도에 있었으나, 영종대교 개통 후 이용객이 줄면서 폐항하고 이후 매립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상식이 아니던 시대가 있었으며 교통은 인간의 상식을 변화시키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교통의 획기적 발달은 자동차와 철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근대에 이뤄졌습니다. 근대 이전, 조선시대의 역참제는 우편 통신과 역마, 역원 등 공무 여행 체계를 합쳐놓은 제도입니다. 역참은 우편통신과 역마를 제공했다면, 역원은 숙박과 휴식을 제공하던 곳입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설치된 역참은 말을 운송 수단으로 제공했으니 역, 정거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활한 통신과 행정을 처리하려면, 역참은 평소 도로를 잘 정비해놓아야 했습니다. 역참은 1895년 폐지되었고 검암동에는 ‘구슬원’이라는 역원이 있었습니다. 검암동은 현재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교차하는 역입니다.

현재의 교통수단은 전통에서 변형되며 발전했습니다. 고대에 발명된 바퀴는 현대 교통수단에서도 기본 원리가 됩니다. 바퀴는 기차바퀴의 원리인 차륜과 자동차의 일반 바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유럽에서 자동차 이전의 교통수단은 마차였고 마차의 유행에 따라 도로 형편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바퀴를 단 수레를 오랫동안 이용한 곳은 광산이었습니다. 철도를 선도한 분야도 지하마차도를 깔아 석탄을 나른 광산업계였습니다. 증기기관이 개발된 뒤로는 광차가 선로 위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시내를 달리던 전차는 경전철이라고도 하며 증기기관이 교통수단과 결합하기 이전의 철도마차 체계에서 발전했습니다. 전차는 마차나 자동차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레일이 도로 위에 놓여 철도보다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기차보다 운행 거리가 짧고 정류장도 많은 데다 요금도 싸서 전기가 말을 대신한 뒤에도 대중교통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최근 경전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고 서구의 청라에는 BRT와 GRT처럼 버스와 도시철도의 성격이 결합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BRT는 도로에 버스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일반 차들과 분리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합니다. GRT는 도로 위의 전차를 개선한 궤도형 버스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면서 미래의 대중교통으로 떠오릅니다. 기후온난화 문제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대여제도가 등장한 것 역시 그 일환입니다. 대중교통 체계에 최첨단 IT 기술을 도입한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와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은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편의 제공은 물론 인권 보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질문입니다. 서구는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해 인구가 적었으며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구조가 변화하며 발전했고 교통은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뒤이어 1971년 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서구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공업도시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은 공해산업으로 호출되고 서구를 낙후시킨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 때문에 퇴출된 공장들도 있습니다. 서구가 달라지며 획기적으로 달라진 시기는 간척사업 이후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유입되자 교통 인프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200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이은 201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완전 개통, 2012년 7호선 석남역 개통, 2016년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도로가 확장·정비되고 철도가 놓이는 것은 물론 첨단 과학시스템을 도입한 교통의 발전으로 서구의 주민들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원동력이 사라진,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도시가 갖는 취약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조지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제조업과 엔지니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서구의 미래상은 어때야 하는지, 주거지의 쾌적함을 확보하면서도 서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제조업과 시민들의 생활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2 발표〉

지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보는 인천 서구

최원길(前 서인천고등학교 지리 교사)

토론: 남동걸(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지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보는 인천 서구

최원길(前 서인천고등학교 지리 교사)

목 차

1. 서구의 개관
2. 서구의 지형
3. 서구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성과 이용
4. 간척사업
5. 서구의 교통
6. 서구의 생활공간
7. 대형 국책사업

1. 서구의 개관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은 동구 및 남구 그리고 서쪽은 서해바다를 끼고 중구·옹진군과 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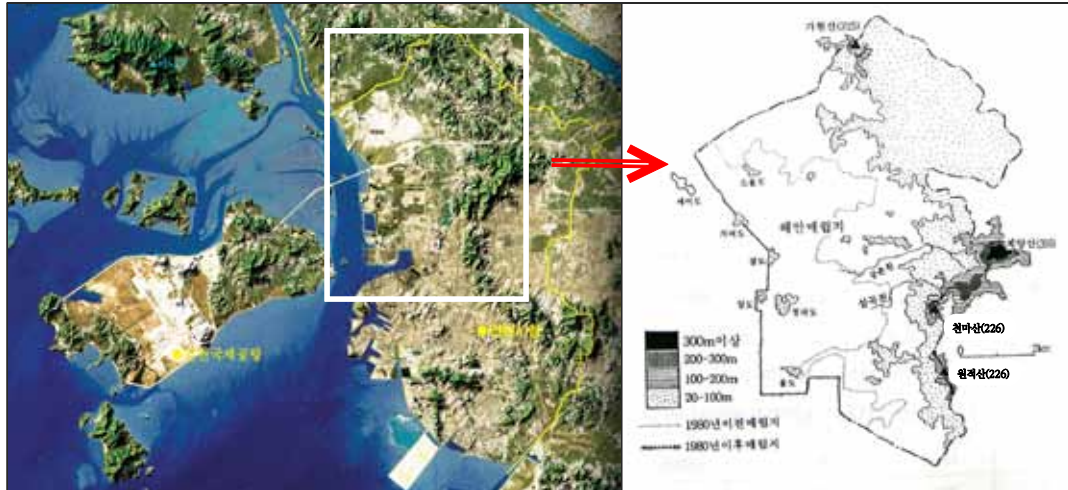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로 흐르는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 하류에 인접하여 갯벌이 발달해 있었으며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었다. 19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어 인천광역시 육지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서북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구’는 휴전선에서 매우 가까우며 또한 수도권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국제공항고속도로·철도,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발전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림 1] 서구의 위치와 주변의 지리적 환경
(출처: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p20)

2. 서구의 지형

가. 산지



[그림 2] 인천 서구 지역의 위성사진과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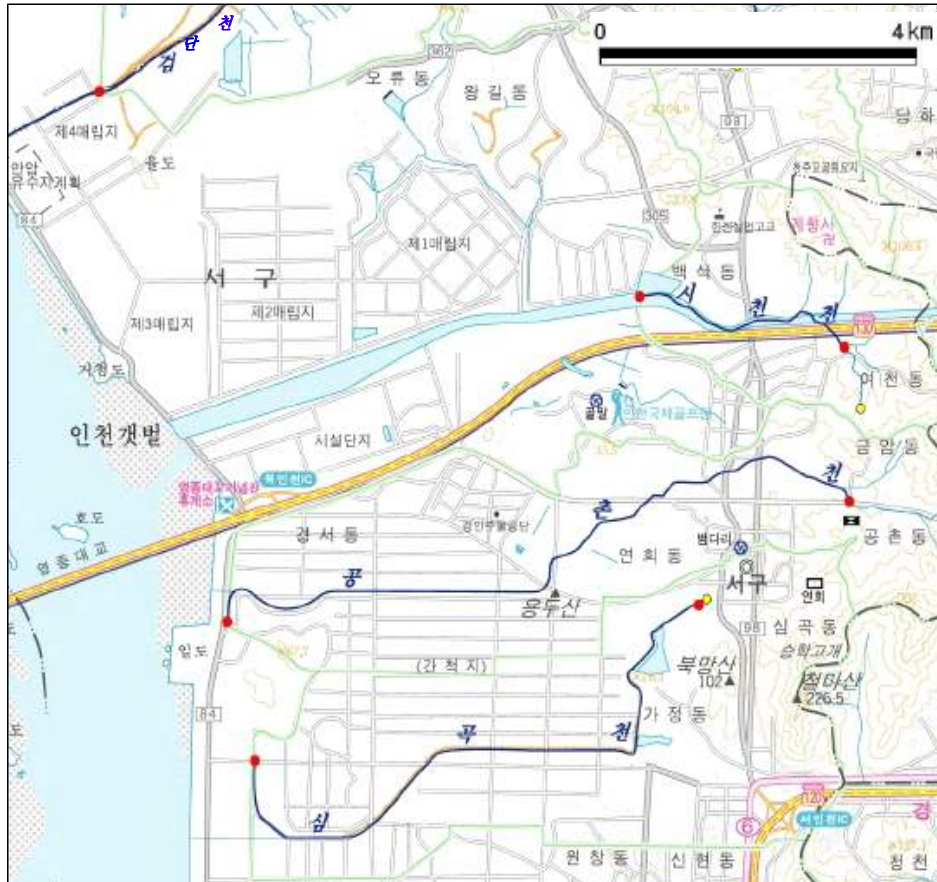
(출처: Pgeos 위성사진, 『서구사』, 2004, p. 50)

서구의 산지 지형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492m)에서 시작되어 김포반도의 문수산(376m)에 이르는 한남정맥 산줄기의 말단 부분으로 원적산(165m)과 천마산(226m) 그리고 계양산(395m)을 지나 가현산(215m)에 이르기까지 남북 방향으로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면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 산줄기는 평균고도 200m로서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누는 경계를 이루고 경인 간의 교통은 물론 인천의 옛 시가지와 부평 및 김포와의 연결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징매이고개(경명현), 원통고개, 장고개, 구르지고개 등이 있다. 오랜 침식과 적은 용기량으로 기복량이 적은 구릉지나 평지가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라 하천의 발달이 대단히 미약하다.

서구에 해당하는 산지는 계양산에서 경명현을 거쳐 중구봉으로 이어지고, 다시 천마산과 원적산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다. 천마산은 경인교육대학교를 에워싸고 있는 중구봉 뒤쪽의 산으로 가정동, 심곡동에 걸쳐있고, 아나지고개(경인고속도로)를 넘어 원적산으로 이어진다. 원적산은 아나지고개, 원적산 생태통로를 지나서 장고개까지 이어지는 산으로 석남동, 가좌동 일대에 걸쳐있다. 천마산과 원적산은 모두 계양산과 같은 변성퇴적암 위에 쌓인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부는 경사가 급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완만해진다.

또한 남북 방향의 산줄기는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해안의 평야 발달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곳과 만이 발달한 복잡한 해안선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짧아졌으며, 대부분의 섬이 육지화되거나 사라졌다. 인근에는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여 취락들이 흩어져 있으며, 서구 면적의 절반은 간척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었다.

나. 하천



[그림 3] 인천 서구의 하천
(출처: 「인천의 산과 하천」, 인천광역시, 2005, 128쪽)

서구에는 국가하천인 아라천(경인아라뱃길, 18.7km)과 대표적으로 공촌천(公村川, 8.83km), 심곡천(深谷川, 7.75km), 검단천(黔丹川, 6.74km), 시천천(始川川, 1.02km) 등 모두 20개의 하천이 있다. 이들 하천은 유역면적이 작고 길이도 매우 짧으며, 인위적으로 하천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상태의 하천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촌천, 심곡천(7.67km)은 북동부 산지의 북서사면에서 발원하여 시천천과 같이 서해로 유입하며 간척사업으로 유로가 크게 연장되고 하상구배¹⁾는 1.9%로 매우 작아 유속이 매우 느리다. 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하천의 오염도가 매우 높다.

지금의 심곡천 하류 대부분은 갯골이었다. 심곡천의 경우 적정 유량이 부족하고, 유속이 느려 조류가 발생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상류 지역 생활오수의 지속적인 유입과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부유물질과 부패한 퇴적층이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생기는 녹조 등 수질악화²⁾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부터 서구의 4대 하천인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검단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사이의 강바닥의 기울기.

2)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https://www.igec.re.kr/>)

다. 갯벌

인천 서구 연안의 김포 갯벌은 육지에서 가장 넓은 갯벌로 송도 갯벌과 남동 갯벌에 비해 면적이 넓으며 갯골이 잘 발달하였다. 갯골이 발달한 이유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가 분포하고 산지의 연속성이 뚜렷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지표수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³⁾.

비교적 작은 50여 개의 섬이 산재해 있고, 꽃과 만이 발달하여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었다. 지반이 대부분 사질이토(沙質泥土)로서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하여 갯일을 나갈 때 걷거나 우마차를 타고 멀리 나가기도 하였다. 갯벌 서쪽 끝에는 염하수로가 이어져 있어 더 이상의 갯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넓은 갯벌과 많은 섬·꽃·만이 발달한 복잡한 리아스 해안으로 간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바다 수심이 얕고 연안 일대에 섬들이 많아 인접한 섬들을 연결함으로써 방조제 축조가 쉬웠다. 또한 많은 섬이 바람을 막아 주어 파도를 낮게 해주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⁴⁾. 반면에 갯골이 발달하여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던 간척 시기에는 제방이 자주 무너지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수도권에 면해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개발의 압력이 계속 높아져 왔다. 조선시대의 소규모 간척에서부터 기술 발달에 따라 규모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동아건설에 의한 간척사업으로 거의 모든 갯벌이 사라지고 해안선이 직선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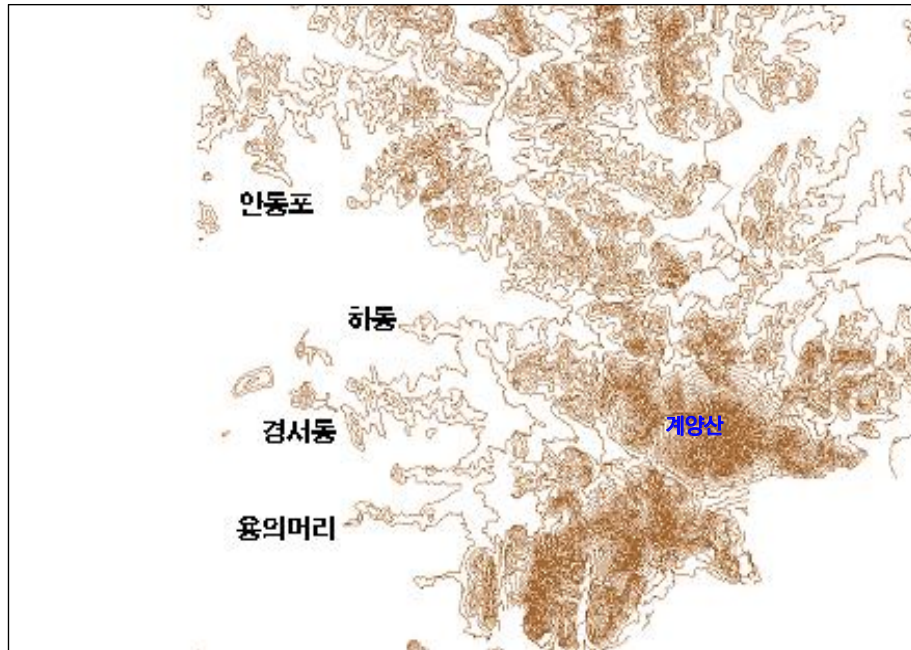
[그림 4] 1910년대 인천 연안의 갯벌 분포
(출처: 서구사(상), 2004, p452)

3) 홍재상, 2003, 『한국의 갯벌』, 대원사, pp. 13~16.

4) 주명진 외, 1999, 『국운 개척을 위한 SMART 시스템』, 세종연구원, p. 19.

라. 곳과 섬

1) 곳



[그림 5] 인천 서북부 연안의 곳 (출처: 서구사(상), 2004, p442)

곳은 바다로 돌출한 부분으로 조망하기가 좋아 예전부터 방어와 관련된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군부대 초소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서구의 옛 이름 서곶은 부평도호부 관할의 석곶(石串)과 모월곶(毛月串)을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곶’이란 바다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가리킨다. 석곶은 돌곶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곳의 지형이 꼬챙이처럼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데 돌이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서곶의 지명이 지어진 경위는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 있어 서곶이라 지어졌다. 서곶은 승학현 싱아고개를 경계로 북서곶, 모월곶, 남서곶 석곶으로 구분되었다.

●북서곶(모월곶면 지역) : 백석동, 검암동, 시천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남서곶(석곶면 지역)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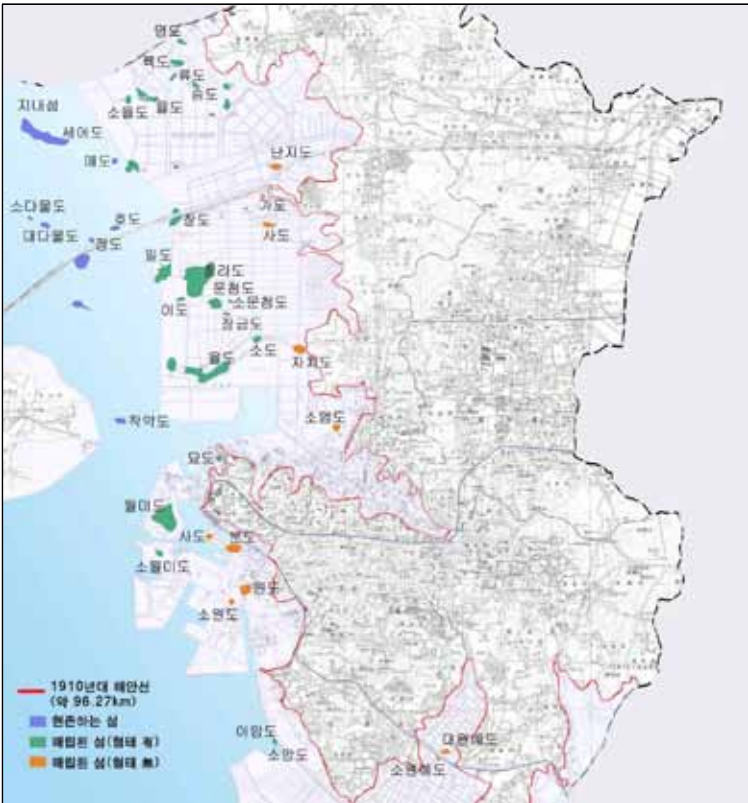
곶은 가시권이 넓어서 옛날부터 감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용의머리에는 용두포대라 불리는 연희포대지가 위치해 있었으며 간척을 하기에 유리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2) 섬

서구의 섬은 유인도인 세어도와 무인도인 호도, 매도, 대다물도, 소다물도, 정도, 지내섬, 켜섬 등 8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34개의 섬이 존재했었다. 간척 전 대다수의 섬은 비교적 소규모로써 명도(明島), 육도(陸島), 승도(丞島), 토도(兔島), 길무도(吉舞島), 울도(栗島), 소울도(小栗島), 북송아섬, 장도(獐島), 까투염, 난지도(蘭芝島), 사도(蛇島), 청라도(靑羅島), 소문점도(小文沾島), 문점도(文沾島), 장금도(長金島), 울도, 목섬, 소도(小島) 등이 있었으며 대다수가 무인도였다. 인천 연안의 섬들이 가장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인천

서북부 연안 지역의 간척사업 때문이다. 매립 시의 토석 채취로 인하여 소멸하기도 하였으며, 육속화된 서구의 섬들은 표식이 되어 있지 않아 찾기가 어렵다.

동아건설은 1980년 1월에 농림수산부에서 매립 면허를 얻어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였다. 이 공사는 울도~청라도~일도~장도~거침도~안암도~가서도 등 7개 섬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그 내륙을 육지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이 섬들보다 육지와 인접해 있던 이도, 문침도, 소문침도, 장금도, 소도, 사도, 자치도 등 8개 섬이 농경지 조성으로 사라졌다. 일도(1977년)와 울도(1978년)는 갯벌이 매립되기 전부터 육지와 연결되어 복합 화력발전소와 인천화력발전소의 터로 각각 이용되고 있다.



[그림 6] 인천 해안의 도서 현황도 (출처: 서구사(상), 2004, p448)

청라국제도시라는 이름은 푸른 넝쿨 관목들이 많아 ‘파란섬’이라고 불렀던 ‘청라도’라는 섬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문침도, 사염도, 까투럼(자치도) 등은 간척으로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지만, 섬들의 이름을 공원 이름으로 정해 과거에 이곳이 갯벌과 섬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거침도, 매도, 소울도, 율도, 안암도, 육도, 명도, 뉴도, 승도, 토도, 길무도, 난지도(국제공항고속도로 통과) 등이 육지화되었다. 섬은 공항고속국도와 영종대교를 건설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호도는 영종대교의 건설로 일부가 훼손되었고, 일부의 섬들은 간척사업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영종대교 주변은 갯벌이 남아있고, 주변의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매우 좋은 경관을 보인다.



[그림 7] 세어도 (출처: 서구사(상), 2004, p450)

세어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섬으로 육지에서 700m가량 떨어진 아주 가까우며 서구에서 유일한 유인도이다. 면적 0.408km², 섬의 둘레는 약 2.7km, 산 높이 41m이며 인구는 23가구 32명(남 22명, 여 10명)⁵⁾의 섬사람들이 어업활동과 갯벌 체험 관광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있었고 교통이 불편한 이유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에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았던 청정지역이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선 ‘정서진호’를 타고 들어갈 수 있으며 인천 서구에서 세어도에 발농사 체험장, 갯벌체험장, 관광안내소, 바비큐장, 휴게 쉼터, 친환경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세어도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지이자 인천의 대표적인 어촌 체험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8] 영종대교와 호도 (출처: 서구사(상), 2004, p450)

영종대교를 건설할 때 호도(虎島)를 연결 거점으로 삼았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난지도(경서동)를 지난다.

5) 2024년 8월 7일 기준

3. 서구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성과 이용

가. 토지이용

서구의 자연지리적 특징은 지역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고,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며, 서쪽에는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근대적 시가지가 발달할 수 있는 평지는 동쪽이 산줄기와 서쪽의 갯벌 사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매우 좁게 나타났다. 동쪽의 남북 방향으로 달리는 산줄기로부터 공촌천, 심곡천, 검단천 등의 하천이 발원하고, 이들 하천이 서쪽의 해안으로 유입하는 곳에 만입상의 하구가 형성되는데, 서구에서는 이 일대에 방조제를 축조하는 방식으로 해안 지역의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방조제를 축조한 초기에는 방조제 안쪽의 토지를 염전이나 농경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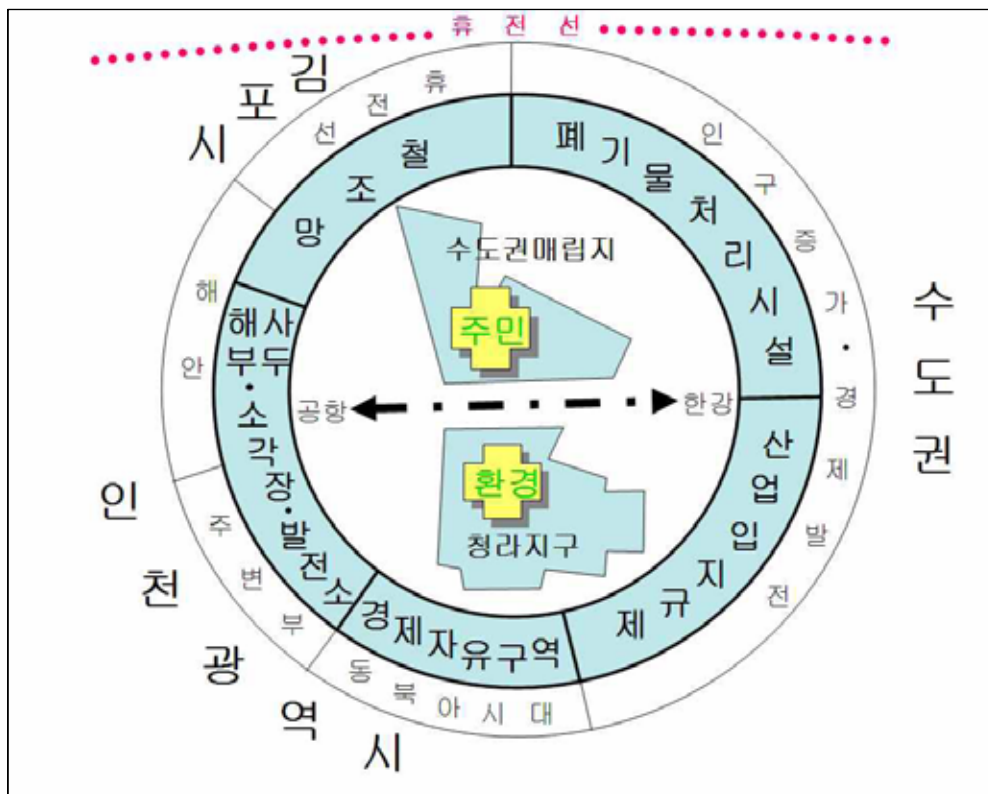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발전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인천과 김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관문지역이 되면서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19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광대한 면적의 토지가 생겨났다.

간척사업 이전의 해안마을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고 소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경지를 조성하고 소금을 굽거나 염전을 만들어 생업에 종사해 왔다. 그 연안은 조운(漕運)과 육로를 통한 세곡 운반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해와 한강을 통한 조운로 중 손돌목의 회피를 위해 원창동에 전조창이 설치되어 육로로 세곡을 운송하기도 하였다.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해상에서 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속중 대에는 석곶에 방어진이, 개항기에는 중심성과 연희진(連喜鎭)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왜구들의 침입에서부터 이양선의 출몰, 6·25 전쟁 후에는 휴전선에 인접하여 해안 방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현재 대부분의 해안선이 해안 경계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부산물인 오물을 처리하기도 했다. 연희동 용의머리 일대에서는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인천과 서울 지역의 분뇨차들이 이곳 해안에 인분(人糞)을 버렸다. 청라국제도시 지역도 동아건설에 의해 간척이 이루어질 당시 약 3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생활쓰레기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었다. 1990년에 와서 경서동에 매립장을 조성하였고, 1992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주로 외곽지역이 처리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의 발달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서북부 연안 지역은 해안선 일대가 군인들에 의해 통제를 받아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기에 편리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천 서북부 연안 지역은 과거로부터 오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방식을 달리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간척사업 이전의 해안마을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 왔다. 그동안 소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경지를 조성하고 소금을 굽거나 염전을 만들어 생업에 종사해 왔다. 서해안의 해안선이 길게 뻗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만의 차가 심하여 40여 종의 어종과 수십 종에 달하는 패조류가 서식하였다. 또한 서해의 특산물인



[그림 10] 인천 서북부 연안의 공간구조와 지역 환경 변화 모식도
(출처: 「간척에 의한 인천 서북부연안의 지역환경변화」, 최원길,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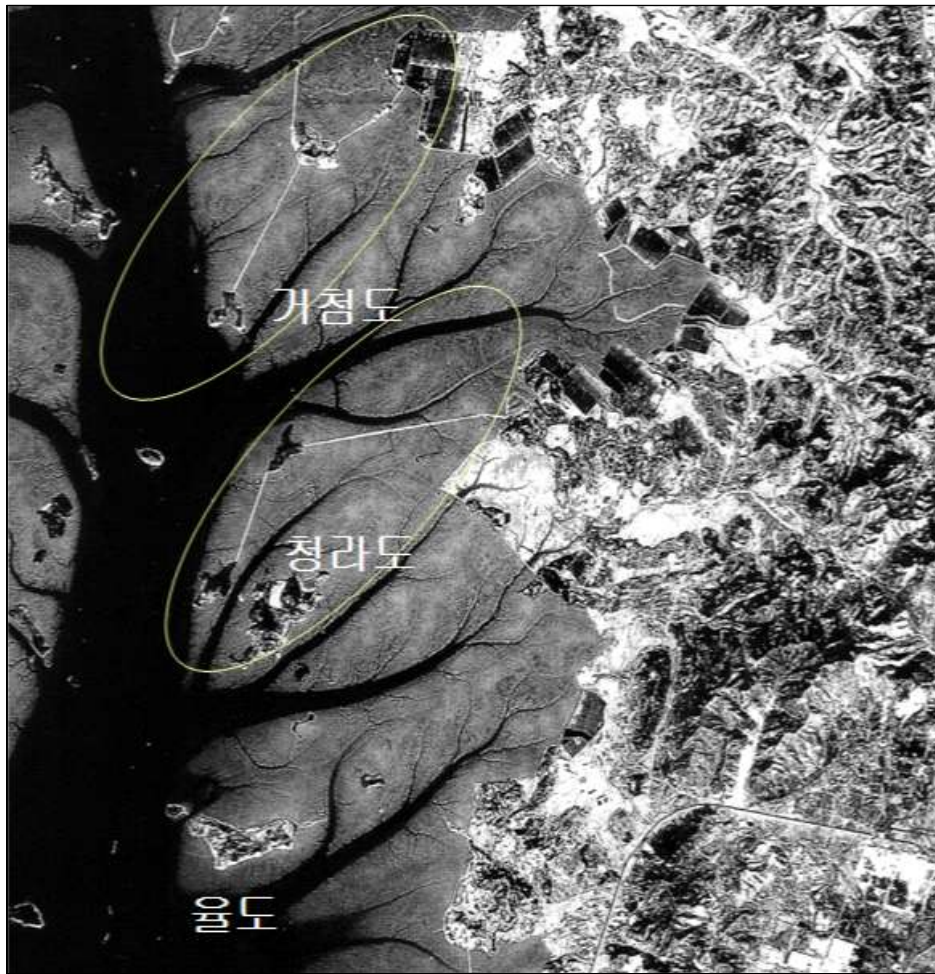
서북부 연안의 간척지는 북쪽의 수도권매립지(628만 평)와 남쪽의 청라국제도시(498만 평)가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동아매립지는 북쪽에는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남쪽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되었다. 또한 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이 두 지역의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며 남북을 단절시키고 있다.

4. 간척사업

가. 대규모 간척사업

갯벌이 잘 발달하고 해안선이 복잡한 서구 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해방 후 ‘난민정착사업’과 ‘난민구호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은 북한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월남민⁶⁾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전후(戰後) 난민이 많았다. 국제기구나 외국 단체의 구호물자를 받아 개인 또는 종교단체에 의해 염전이나 농경지를 조성하였으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규모가 큰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1980년대에 동아건설(주)에 의한 것으로, 인천 서구 연안의 거의 모든 갯벌이 이때 사라지게 되었다.

6) 황해도 해안 일대는 간척사업과 염전 등의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림 11] 1960년대 위성사진
(출처: 인천광역시,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2004)

금산-장도-일도-청라도-문점도-장금도-소도를 잇는 제방을 축조해 나갔다. 금산과 장도, 청라도를 잇는 제방이 보이지만 청라도와 문점도, 문점도와 장금도 사이에 갯골이 발달하여 수시로 제방이 무너져 내렸다.

청라도의 간척사업은 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구호미가 지원되었는데, 황해도 피난민인 이명수 씨 주도로 시작되었다. 한국천해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964년 9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한 후 1970년까지 7개의 섬을 연결하여 7,800m의 방조제를 공사하였다. 갯골이 지나는 장도-일도, 청라도-문점도, 문점도-장금도 사이의 독이 자주 무너져 공사가 지연되었다. 피난민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간척사업은 기술력·자본 등의 부족으로 간척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대기업인 동아건설(주)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인천의 매립 역사상 1980년대에 가장 많은 간척·매립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김포 갯벌(동아매립지)이었다. 동아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일대로부터 장도(獐島), 일도(一島), 청라도(靑蘿島)를 거쳐 SK인천석유화학(舊 경인에너지)이 자리잡고 있는 율도(栗島) 지역까지 이어지는 1,126만 평의 거대한 간척사업이었다.



[그림 12] 동아매립지 평면도와 변천 (출처: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의 간척』, 1996)

1구역에 청라국제도시가 조성, 2,3구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양도.

1980년 1월 14일 자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10년여의 공사 기간 끝에 1991년 1월 8일 준공하였다. 간척사업의 결과 서구 연안의 거의 모든 갯벌이 사라졌으며 많은 섬이 육화(陸化)되거나 형태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염전들은 폐지되었으며 안동포, 난지도 등의 해안마을들은 어업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간척사업 진행 중에 632만 평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넘겨주고 5만 5천 평은 한국전력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2만 2천 평은 공촌동 하수처리장 등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나머지 487만 평의 땅은 91년 1월 8일 농경지를 사용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다. 동아건설은 농경지에서 디즈니랜드를 본뜬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도시개발 등의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당시 농어촌진흥공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다(1999년도). 이후 LH의 주도하에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되었다.

나. 준설토 투기장과 북항

인천의 준설토 투기장⁷⁾ 9곳 중 북항준설토투기장(564만㎡), 북항청라준설토투기장(174천㎡), 경인아라뱃길투기장(825천㎡)이 서구에 위치해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땅은 해수부가 소유하고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은 민간⁸⁾에 매각해 현재는 미개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항은 5만 톤급 등 총 18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원목·고철·사료용 부원료 등 인근 공장 등에서 필요한 산업원자재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7)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것.

8) ㈜지젤스포츠 외 4인

5. 교통

가. 전통시대

서구지역에는 국가 수준의 주요 도로 대신 소규모 마을들을 잇는 소로 중심의 교통로가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권역에 있던 검단지역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부평(도호)부의 일부였던 서구는 부평 읍내(계산동)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연속적인 산줄기로 인해 경명로가 전통 시대에 두 지역을 연결하던 유일한 간선도로였다고 할 수 있다.⁹⁾ 한양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이용하려면 경명현(景明峴)·구십현(九十峴)·성현(星峴)의 고갯길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중 경명현(징매이고개)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해안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 지역은 포구의 발달과 함께 한양과 개성으로 통하는 육로의 지리적 요충지로 검암의 구슬원, 부평읍치와 서구 경계의 금륜역, 검단과 김포읍 경계인 가현산의 과일원 등이 설치·운영되었다. 고려시대 지방관과 보부상, 삼남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개경을 오가고, 조선시대에도 보부상들이 부평 읍내를 거쳐 징매이고개를 넘고 김포 반도를 지나 물산의 허브였던 개성으로 오가던 단골 이동로였다. 그러나 국토가 분단되면서 휴전선이 가로막혀 그 기능을 잃고 김포와 부평부의 주변부로 전략해 버렸다.

나. 고개와 갯골

오늘날 서구와 부평구·계양구를 나누던 장고개는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군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현재는 제3보급단으로 막혀 있다. 구루지고개 또한 가좌동에서 산곡동 화랑농장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6·25전쟁 이후 생선 장수나 소금 장수 등이 많이 넘어 다녔으며 지금도 걸어서만 넘을 수 있다. 아나지고개는 경명현(景明峴)과 함께 인천 서구 지역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주요 고개 가운데 하나로 구한말 때 원창동에서 신현(新峴 새고개)을 넘어 세미(稅米)를 한양으로 운반하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아나지고개’는 5, 60년대부터 부평의 〈애스컴시티〉 건설에 필요한 건자재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잘려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후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게 되었다.

서구 가좌동과 동구 송림동 사이에는 주안갯골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구 주민들은 ‘변지기나루’에서 나룻배를 타고 인천을 왕래했다. 당시 배다리와 송림동 시장이 성황을 이룬 것도 ‘개건너’¹⁰⁾와 김포 주민들이 이 나루터를 통해 농산물을 실어내고 생필품을 사 갔기 때문이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갯골이 끝나는 십정동을 우회하고 주원고개를 넘어서 인천 시내까지 가야 했다. 1958년에 개건너(지금의 가좌, 석남, 연희동)와 주안지역을 잇는 인천교가 준공되고, 1964년부터 인천교 일대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통행수요가 폭증했다. 1980년대 인천교 일대 대규모 매립공사로 개펄을 평지로 바꾸면서 인천교는 다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9) 인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서구사 (상)』, p. 466.

10) 갯벌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 산업화와 도시화

오랫동안 농촌 마을로 남아있던 서곶지역, 그중에서도 남서곶이 먼저 도시화한 결정적 계기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였다. 한국수출산업공단 제5단지와 6단지가 가좌 인터체인지 인근에 들어서면서 산업공단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동주택과 빌라, 다가구주택들이 논과 밭에 마구 들어섰다. 다만 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게 되면서 생활공간이 동서로 단절되어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 생활권의 확대와 고속화

검암역은 인천 서구에 들어선 최초의 전철역(공항철도 2007년)으로 서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급격히 끌어올린 일등 공신이다.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2016년)으로 서구 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인천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환승역으로 서구 교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서구와 부평구를 가르고 있는 원적산에는 원적산터널(2004년)이 개통되고, 그 아래로 서울지하철 7호선(2021년)이 석남역까지 연장되었으며 현재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서구의 지리적 약점이 해소되고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도시이자 물류 유통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다만 동서방향의 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 그리고 아라뱃길이 서구 지역을 물리적으로 남북으로 갈라 검단구와 서해구(2026년 분구)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아라뱃길(2012년 개통)은 내세웠던 물류 또는 관광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라뱃길은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넘어서 운하를 건설하게 되자 선박이 다녀야 할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교각이 매우 높아져 지하철 2호선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고 남북간 양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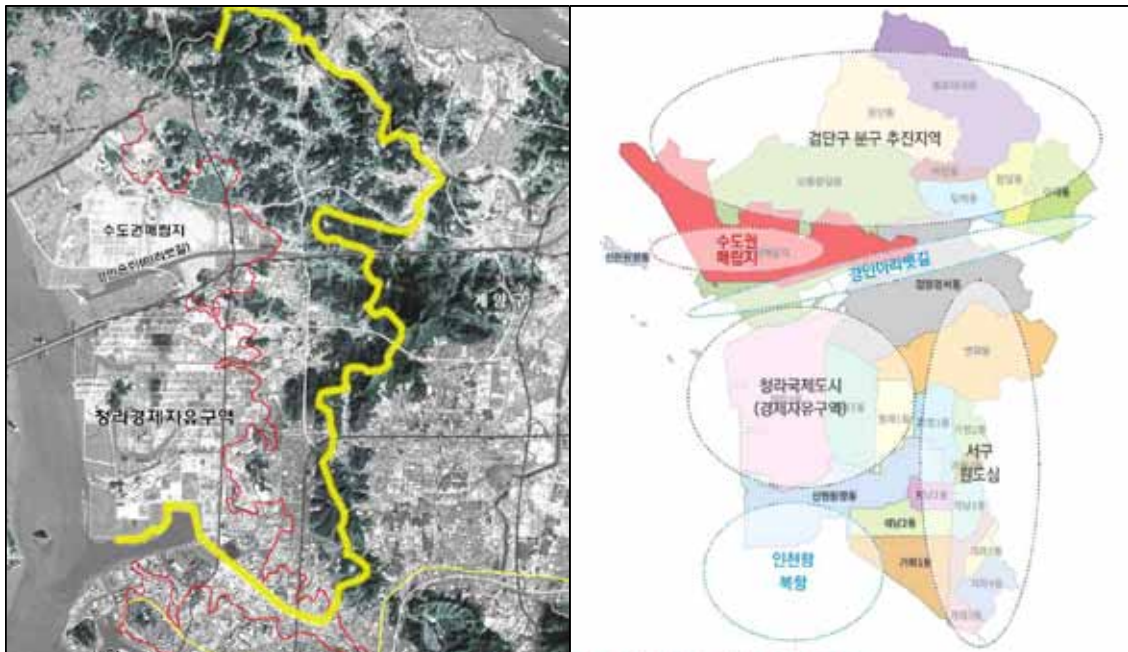
6. 서구의 생활공간

조선시대에 서구는 검단지역을 제외하면 부평도호부에 속했고, 인천 편입 직후엔 북구의 서쪽 일부로 산 넘어 바닷가 마을 정도인 곳이었다. 검단 역시 김포에 속해 있을 때 변두리에 해당했던 곳이었다. 서구는 인천의 섬 지역을 제외한 본토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개발과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 645,541명(2025년 7월)으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현재의 주안산업단지 및 청라국제도시 지역이 매립되고, 1995년 김포 검단면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게 되었다. 총면적이 119.06㎢으로 수원시 나성남시 전체와 비슷한 면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서해구와 검단구(아라뱃길 경계)로 분구될 예정이다.

가. 행정동별 특성

1) 서구 원도심

서구의 원도심 지역인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등은 남북으로 이어진 산줄기로 인해 주거지역이 동서로는 좁게, 남북으로는 길게 들어서게 되었다. 산지의 경우에도 정상부는 경사가 급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경사가 완만해진 구릉성산지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남북방향의 산줄기는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공촌동, 석남동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은 자연녹지 권역이라 할 수 있으며, 해안의 평야 발달이 매우 미약했다. 전근대에는 꽃과 만이 발달한 복잡한 해안선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짧아졌으며, 대부분의 섬이 육지화되거나 사라졌다.



[그림 13] 좌측 지도의 빨간 선은 1910년 기준 해안선, 우측 지도는 행정동별 특성.

좌측- (출처: 「지도로 보는 인천의 변화」, 인천발전연구원, 2013 - 재작성),

우측- (출처: 「인천 서구의 산업(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2)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원도심 일대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구 가좌동·석남동 해안가 지역은 서해로부터 가좌동 홈플러스 쪽으로 잘 발달한 갯골이 내륙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인천 서구는 원목 수입 항구로부터 가깝고 원목 저목장이 자리 잡기 좋은 넓은 간척지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도권에 수송하기에 좋은 교통망도 갖추고 있었다.

동화기업이 1968년 석남동·가좌동 해안가를 매립하여 간척지 50여만 평을 건설하였다. 한국전쟁 후 시설 복구가 시작되며 건축의 기초인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동화기업은 이 갯골을 활용하여 수입 원목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넓은 갯골 저목장을 만들

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재산업단지가 되는 발판이 되었다. 목재산업이 다양하게 발전 성장하면서 합판, 보드, 가구, 악기 등 공장들이 함께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지역적, 시대적 조건이 서구목재 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전국 목재산업의 60~70%를 점유하게 된다. 석남동·가좌동 해안에 대규모 목재수입·제재단지 건설을 시도한 동화기업에 이어 영림목재와 태원목재, 한국목재, 한양목재, 원창목재, 대명목재, 가가담목재, 신대림제재소 등이 갯골을 따라 형성되며 목재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나무가 주재료인 피아노를 생산하는 영창악기와 가구회사 삼익가구, 선퍼니처, 바르크, 우아미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림 14] 1960년대 공단 조성 전의 가좌동
(출처: 「인천 서구의 산업(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1)

이러한 서구의 특징적인 목재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였다.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서 서구지역 경제도 빠르게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택을 짓기 시작하고 민간업자들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기 시작하였다. 북쪽에서부터 가정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가좌동은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 연담도시화가 되었으며 구획정리가 반듯하게 이루어지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고밀도로 들어서게 되었다. 가좌동은 한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았으며 상업이 번성하면서 거북시장 등이 생겨났다.



[그림 15] 개발 후의 가좌동

1970년대 초 서구 가좌동 갯골을 따라 목재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목재 관련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다.
(출처: 네이버 지도)

이 원도심 주거지역 동쪽으로 지금은 규정상 일반도로가 되었지만 (구)경인고속도로가 지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적산 서쪽 자락, 경인고속도로 동쪽에는 산줄기를 등지고 동서로 아주 좁고 남북으로는 긴 주거지역이 고립지형을 이루고 있다. 대조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쪽은 난개발이 끊임이 이어지고 유동인구도 꽤 많아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2030년까지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중앙부에 공원·녹지·여가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부의 가좌동 쪽은 가재울역 근처를 제외하면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별다른 경계 없이 이어진다. 가좌동은 80년대엔 거주 인구수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지역으로 주거지역보다는 공단이 훨씬 넓은 지역이다. 공장지대와 주거지대가 구분되지 못하고 인접해 있으며, 일부이지만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는 완충녹지가 있다. 신현동 주거지역 서쪽은 구릉지이고, 석남동 쪽부터는 동서로 100m 정도 되는 공원 및 녹지인 석남이음숲(전체 면적 21만 9,885㎡)이 남북으로 총연장 3km 정도 이어지게 조성되어 있으며, 가재울역에도 완충녹지인 가좌이음숲(8만 300㎡)이 2005년 900m 길이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이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대부분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전통 재래산업이어서 문을 닫거나 업종도 변경되어 가고 있다. 1950년대에 한적한 농촌이었던 석남동은 인구 과밀지역 도시가 되고 노후화된 연립과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석남동에 인천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구청이 위치한 연희동 일대는 거대한 면적을 가진 서구에서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다. 남쪽의 가정동과는 중간에 송학산과 천마산이 있어 시가지가 떨어져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사용했던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있고, 서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도 이곳에 있다. 서구청 일대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서구의 중심이라기엔 그다지 넓지 않고, 개발 제한이 장기간 걸려있던 탓에 다소 고립되어 있으며, 언덕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옛 서구 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가정동은 서구청 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현재의 루원시티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오거리로 불리던 곳으로 한 때는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인천 최악의 슬럼으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루원시티는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와는 시가지가 연속되어 있다.

서해구로 명칭이 확정되었지만, 원도심 서구 주택지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주민들은 거의 바다를 볼 수 없다. 정서진과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바닷가는 거의 모두 간척으로 인해 공장지대이거나 발전소, 군사시설이나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검단구 분구 추진지역

가) 개발 이전의 검단

검단지역은 북쪽으로 가현산(해발 215m), 동쪽으로 장릉산(해발 150m), 남쪽으로 할메산(106m)이 자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발 100m 내외의 완만한 구릉성 산지 또는 구릉지와 평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주거와 생활에 적합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선

사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저산성구릉지와 한강 하류에 펼쳐진 넓은 퇴적평원은 신석기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 16] 2018년 검단 일대 - 좌측 원당 우측 검단신도시 개발
(출처: 인천도시공사)

검단사거리는 예전부터 김포로 가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었다. 마전리 원현 지역에는 조선 시대 광인원(廣因院) 혹은 과일원(過逸院)이라는 역원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근대 시기부터 이미 지금의 검단사거리 일대가 검단지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대화 및 산업화 정책에 따라 1990년대 검단사거리에는 대림통상, 에스아이가구, 태우집강, 세종화학, 명성공업, 한국화학김포요사, 원산화학, 신진보일러 등 다수의 기업체가 생겨났다.

김포군 검단면 시절에는 김포군 최고의 오지였던 곳이 1990년대 무허가 영세공장 1천여 곳을 포함, 1천 8백 곳에 달하는 공장이 밀집하면서 각종 폐수를 방출하였다. 토지관리법상 성장억제권역이었던 검단이 김포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로 바뀌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인천 및 서울 등의 대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창고형 공장들이 들어서며 검단에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1995년도부터 검단지역에 난립·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의 정비와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검단면 오류농장 일대 90만 평에 검단일반산업단지(현 뷰티폴파크)를 조성하여 인천 서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에 위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나) 검단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논·밭·구릉지 등에 무허가 공장과 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었던 곳에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디자인도시, 문화도시, 에너지절감 도시를 지향해 조성되며,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검단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75,848호에 187,076명 거주를 목표로 3단계 사업(2009.2.~2026.12)으로 나눠 추진됐다. 검단신도시 내에는 모두 5개의 특별계획구역(스마트위드업·커널컴플렉스·휴먼에너지타운·넥스트콤

플렉스·위라벨빌리지)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는 것은 7개의 구릉성 산지의 영향으로 독립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이 지연되면서 원당지구가 먼저 개발되었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부지 중앙에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 2025년 6월에 개통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원당의 중앙을 지나지 못하고 인접해(신검단중앙역) 지나 남쪽 지역은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



[그림 17]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검단신도시 시행 지침)

구 분	면적(m)	지정목적	주요 도입시설
특1 커널 복플렉스	1,324,825	- 수공간을 활용한 상업·문화복합단지 조성 - 문화와 미래기술이 결합된 중앙호수공원 건립 - 중앙호수공원 변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조성	- 복합상업시설 - 중앙호수공원 -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특2 휴먼에너지 타운	196,188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 단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족 시범단지 조성	- 재로에너지 시범주거단지 - 스마트 주차장
특3 넥스트 복플렉스	59,136	- 계양천을 중심으로 상업 및 주거기능의 남부생활권 중심지 조성 - 상업, 주거, 커뮤니티 등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친수형 복합단지 조성	- 복합상업시설 - 복합문화공간
특4 위라벨 빌리지	59,136	- 청년 주거문제 해소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위라벨(Work and Life Balance) 빌리지 조성 - 스마트 워크센터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	- 청년주거단지 - 스마트 워크센터 - 청년문화공간
특5 (1~3) 스마트 위드업	420,322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성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구축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 첨단물류 유통기지 - 기업지원센터

[표 1] 인천검단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개요 (출처: 인천도시공사)

3) 청라국제도시

1970년대 후반까지 갯벌과 바다였던 청라는 동아건설이 농지 확보 차원에서 1979년부터 10년간 만든 간척지다. 간척사업이 이뤄질 때만 해도 작은 섬에 불과했던 청라도는 경제특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라'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라는 국가 소유의 간척지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림 18] 갯벌 위에 만들어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출처: <https://blog.naver.com/midasham/220628543537>)

인공운하인 커널웨이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1동, 2동, 3동의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각각 커널과 교차하는 십자수로가 흐르고 운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는 커널을 따라 남쪽과 북쪽에 대칭형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청라 2동과 3동 사이에는 청라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과 북쪽으로는 심곡천과 공촌천이 흐르고 있고 공항철도인 청라국제도시역 위로는 경인아라뱃길이 있어서 청라 전체와 주변에 수로가 흐르고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열려 있어 서구청에서는 청라를 '물의 도시', '한국의 베네치아'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림 19] 청라국제도시 (출처: 청라 현대 썬앤빌 더테라스 조감도)

도시 면적 17.8km²(약 538만 평)에 계획 인구는 9만 명이었으나 2025년 6월 30일 기준 115,83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하나금융복합단지, 국제비즈니스단지, 인천로봇랜드, GM자동차 R&D 센터,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코스트코, 인천 서부일반산업단지와의 사이에 골프장(베어즈베스트청라CC) 등이 있다. 아산병원과 스타필드청라 및 청라 돔 야구장 등 쇼핑·체육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업무타운으로 지정된 청라 일부 부지가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어 '국제 비즈니스 도시'가 아닌 '베드타운형 신도시'에 머물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고, 경인고속도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동서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공항철도 포함)와 남북으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다.

7. 대형 국책사업

가. 수도권매립지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던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와 서울시는 농지조성을 위해 매립한 '김포지구 간척지'에 눈을 돌려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70% 이상 소유(300억)하고, 나머지는 환경부가 소유하여, 인천시는 땅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협정이 체결되어 **‘인천 속 서울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이 아닌 김포군에 속했다가 1995년에 인천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이 없었다.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4자 협의회¹¹⁾에서 ‘사용기간(매립 기간)을 다시 2025년까지 연장해 3-1공구 100여 만㎡를 추가로 쓰고, 그 기간 중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4 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3-2공구)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계속 매립 중이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3-1매립장 포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고 직매립이 금지 되면 매립장에 여유 용량이 생길수록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싸고 인천과 서울·경기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날 수 있으며, 계속 이어지는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상황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0] 수도권매립지 현황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또한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못하고, 선별·소각한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설치해야 할 소각시설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직매립이 연장될 예정이다.

1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회(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나. 경인아라뱃길



[그림 21] 경인아라뱃길 (출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결과 보고)

경인 아라뱃길은 행주대교(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 아라한강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김포시를 지나 인천시 계양구를 거쳐 인천시 서구를 통해 바다로 나아간다.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시작했던 굴포천방수로(14km)를 한강과 연결(4km)해 서해로부터 한강까지 주운을 만든 사업이다. 1987년 대규모 홍수로 인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후, 1991년 ‘굴포천 유역 종합 치수 사업’으로 너비 40m의 방수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1996년 경인운하계획이 고시되면서 경제성, 환경문제 등 많은 논란이 불거졌으나 2010년 아라뱃길 본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아라뱃길이 개통되었다. 14개의 교량 중 서구에는 4개(청운교, 백석교, 인천 지하철 2호선, 시천교)가 건설되어 있는데 선박이 지나가기 위해 높게 설치되어 지하철 2호선의 경사가 급해졌고 다리 양쪽이 길어지며 남북 지역 간의 연속성에 단절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라뱃길은 향후 김단구와 서해구를 분리하는 경계이며 서로 공유하게 될 소중한 공간이다. 개통 이후 13년간 술한 연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물류 기능이 거의 없는 ‘실패한 운하’로 전락했다. 2조 7,000억을 들여 조성하고 연간유지비 29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지만, 회수율은 거의 없다. 수질은 4~5등급(보통~약간 나쁨)에 머물고 있으며 대장균은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해 수영이나 레저활동이 불가능하다.

다. 로봇랜드와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인천시는 1994년 12월 매립면허 승인을 얻어 매립사업을 벌여 329ha의 땅을 얻었다. 지금의 청라소각장과 로봇랜드 등 테마파크 터인 청라2지구다. 로봇랜드는 로봇 테마파크와 로봇 관련 기업·시설을 한곳에 모아 수도권 최대의 로봇 테마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2017년 6월 준공된 로봇타워와 로봇 R&D센터 등 공익시설 2개 동만 운영되고 있지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2단계 사업인 유원시설(테마파크)과 산업시설은 17년째 표류 중이다. e스포츠·게임산업의 허브 ‘청라G테크시티’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테마파크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된 국내 기업 및 공장 이전과 신설, 증설이 가능해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천에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1년 준공된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와 2006년 가동을 시작한 송도사업소 등 두 곳뿐이다. 청라사업소는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해 폐쇄 이전과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으며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발전소

청라국제도시 서쪽 해안 지역에 서인천발전본부(한국서부발전), 인천LNG복합발전(포스코인터내셔널), 신인천빛드림본부(한국남부발전), 인천발전본부(한국중부발전) 등 4개의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다. 서인천발전본부는 1992년 준공돼 수도권 지역의 전기, 청라, 검단, 김포 신도시의 약 17만 세대에 폐열회수설비를 이용한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4개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21년 기준 1,092만 톤이고 서구 총배출량의 65%를 차지한다. 서인천발전본부에 이은 신인천빛드림본부의 발전시설 수명 연장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지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보는 인천 서구〉에 대한 토론문

남동걸(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최원길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을 개관, 지형, 지정학적 특성과 이용, 간척사업, 교통, 생활공간, 대형 국책사업 등 7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적인 내용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발표문은 대략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인천 서구는 한강·예성강·임진강 하류에 인접한 해안평야 지역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발달했던 지역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대규모 간척사업(청라국제도시,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해안선이 단조화되고, 산업·주거 공간이 확장되었다. 셋째, 한남정맥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구릉성 산지가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였기에 교통 및 도시 확장에 지형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현재 서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산업, 물류, 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 변모 중이다.

서구의 지형적 특징부터 간척사업, 교통, 생활공간 등을 망라한 발표문을 통해 지리나 환경 방면으로 지식이 많지 않은 토론자의 입장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서구 매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점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토론자로서는 거주지인 서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특별한 논쟁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토론자로서는 토론문을 작성하기에 난감하기 짝이 없는 발표문이기도 합니다. 하여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비전문가로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토론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힙니다. 전문가로서 토론자의 무지함을 비난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쪽 하단의 “청라도의 간척사업은 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구호미가 지원되었는데, 황해도 피난민인 이명수 씨 주도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은 구호미 지원을 통해 청라도 간척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쪽 “라. 생활권의 확대와 고속화”의 끝부분에 “아라뱃길은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넘어서 운하를 건설하게 되자 선박이 다녀야 할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교각이 매우 높아져 지하철 2호선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고 남북간 양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단절이 ‘교각이 높아져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경사가 급해졌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인천 지하철 2호선 경사가 급해진 것이 남북 지역 간 단절의 원인이 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쪽 [그림 15]의 아래 “원적산 서쪽 자락, 경인고속도로 동쪽에는 산줄기를 등지고 동서로 아주 좁고 남북으로는 긴 주거지역이 고립지형을 이루고 있다. 대조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쪽은 난개발이 끊임이 이어지고 유동인구도 꽤 많아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동쪽은 고립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 부분은 유동 인구가 많아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다’로 읽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서쪽은 난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난개발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1쪽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부분 중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금지하기로 한 주체가 어디인지요? 여기에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이기보다는 제안 내지는 수정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글의 구성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목차대로 글을 구성해도 좋겠지만, 항목별로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를 큰 항목으로 두고, 각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이 확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정 사항이 아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해구로 구명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우문에 발표자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제3 발표〉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

김영준(인하대학교 박사)

토론: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

김영준(인하대학교 박사)

목 차

1. 서론
2.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
3. 인천 서구의 선주성씨가문과 문화유산
4. 인천 서구의 산업과 문화유산
5. 국방과 서구의 관방유적
6. 결론

1. 서론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¹⁾ 특히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국가유산법에 의하면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민족, 국가 및 지역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역사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현행 국가유산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속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곧 역사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은 인천 서구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인천 서구는 역사적으로 과거 부평의 일부였던 서곶과 김포의 일부였던 검단이 합쳐져 형성된 것으로 서곶과 검단이라는 두 지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천 서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자면, 일찍이 『인천지』 및 『부평사연구』, 『서구향토지』, 『서구사』, 『김포군지』 등에서 소개한 바가 있다.³⁾ 또한 2004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인천북부학술조사보고서』에서도 서구의 문화유산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책들에 서구의 문화유산이 소개되어 있다.⁴⁾ 그러나 가장 많은 서구의 문화유산을 조사한

1) 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손민환, 「국가유산과 미래유산, 그리고 서구」,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4, 13~1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예를 들면,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상·하』(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의 제목에서 “역사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각 섬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정리 및 소개하고 있다.

3) 이훈익, 『인천지』, 大韓老人 仁川直轄市協會, 1987, 328~329쪽·331~335쪽; 『서구향토지』, 인천광역시 서구, 1997, 57~84쪽;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白岩文集刊行委員會, 1995, 144쪽·147~148쪽·154~161쪽·165쪽·167쪽 ; 『서구사』-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477~521쪽; 『김포군지』, 김포군, 1977, 449쪽.

4) 『인천의 건축 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6, 151~153쪽;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터 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8, 63~96쪽; 『인천의 관방유적』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9, 247~285쪽;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 상』,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시사연구팀, 2023, 144~173쪽.

것은 인천서구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서구문화원에서는 매년 향토지를 내면서 서구의 문화유산을 발굴 및 정리하였다.⁵⁾ 특히 최근에는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에서 서곶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루었으며 2025년에는 검단의 문화유산을 발굴 및 정리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경서동 녹청자 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고,⁶⁾ 나머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다.⁷⁾ 이렇게 인천 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많지만 전체적인 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없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선주성씨가문과 산업과의 관계, 관방유적 등을 가지고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인천 서구 역사문화유산의 현황

인천서구의 역사문화유산의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현재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번	분류	명칭	소재지
1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인천 서구 경서동
2	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인천 서구 신현동
3	시유형문화유산	심즙신도비	인천 서구 경명대로
4	시유형문화유산	선문염송설화 권1-30	인천 서구 원적로
5	시기념물	류사눌묘	인천 서구 경서동
6	시기념물	조서강묘	인천 서구 석남동
7	시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인천 서구 대곡로 356
8	시기념물	한백륜 묘역	인천 서구 마전동
9	시기념물	김안정 묘 및 묘비	인천 서구 원당동
10	시기념물	정희량 유허	인천 서구 검암동
11	시기념물	반남박씨 대중중 묘역	인천 서구 대곡동

5) 『알기 쉬운 서구사』,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8, 99~143쪽;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9, 196~218쪽; 『알기 쉬운 서구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1015, 229~252쪽;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북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 95~141쪽;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남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99~132쪽; 『18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113~148쪽;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4.

6) 안영, 「韓國綠靑磁에 關한 考察 -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이종민, 「景西洞系 粗質靑磁의 生産과 需要」, 『인천문화연구』 5, 인천시립박물관, 2007; 고상순, 「경서동 녹청자 재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세우·조일목, 「인천 경서동 녹청자 태토 및 유약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0권 2호, 한국도자학회, 2013.; 『仁川 景西洞 綠靑磁 研究 論文集』, 인천광역시, 서구, 2009.

7) 이부웅·이꽃담, 「인천 서곶옹기의 손그림 문양 연구 : 굴현동에서 수집한 옹기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제7권 제2호, 2011; 이윤정, 「인천지방 서곶 들노래의 음악적 특징」,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김미연, 「인천 해안지역의 전래 민속놀이 전승 대안 연구 : 경서호상놀이 등 5개 전래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김영준, 「인천 서구 공촌천 들싸움의 양상과 성격」, 『인문학술』,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4; 글 김혜정·사진 류재형, 『서곶들노래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8호』, 민속원, 2013; 중보고고학회, 『인천 검단의 고고학』, 진인진, 2019.

순번	분류	명칭	소재지
12	시기념물	의령남씨 종중 묘역	인천 서구 원당동
13	시기념물	평산신씨 종중 묘역	인천 서구 대곡로 368
14	시문화유산자료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인천 서구 석남1동
15	시무형유산	휘모리 잡가	인천 서구
16	시무형유산	고법(북·장구)	인천 서구
17	시무형유산	서도좌장	인천 서구
18	시무형유산	서곶들노래	인천 서구

[표 1]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출처: 인천광역시청 문화관광과)

위의 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2025년 6월 17일 기준 국가유산 현황표에서 인천 서구의 것들만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문화유산 중에는 위의 표에 들어가지 않는 비지정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서구문화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인천 서구문화유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인천 서구가 역사적으로 크게 서곶과 검단으로 나뉘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서곶과 검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곶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먼저 서곶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순번	문화유산	소재지 (동)	분류	지정/비지정
1	조서강 묘	석남동	묘역	지정
2	석남사 터	석남동	불교	비지정
3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석남동	불교	지정
4	석남동 유적	석남동	매장	비지정
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	석남동	매장	비지정
6	백석동 유물산포지	백석동	매장	비지정
7	한들유적	백석동	매장	비지정
8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백석동	묘역	비지정
9	도마매 포구 터	백석동	터	비지정
10	수도권 매립지	백석동	매립지	비지정
11	허암 정희량 유허지	검암동	터	지정
12	검암동 유물산포지 1,2	검암동	매장	비지정
13	송윤 묘	검암동	묘역	비지정
14	발아장터	검암동	터	비지정
15	장모루	검암동	터	비지정
16	보명학교 터	검암동	터	비지정
17	검바위	검암동	터	비지정
18	검암동 상수리 나무	검암동	보호수	비지정

8) 서곶의 표는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인천서구문화원, 2024.) 및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순번	문화유산	소재지 (동)	분류	지정/비지정
19	검암동 당제	검암동	당제	비지정
20	시천동 유물산포지 1	시천동	매장	비지정
21	시천동 유물산포지 2	시천동	매장	비지정
22	시천동 진주 류씨 묘역	시천동	묘역	비지정
23	시천동 원주 원씨 묘역	시천동	묘역	비지정
24	시천동 느티나무	시천동	보호수	비지정
25	황해사(黃海社) 간척지	시천동	터	비지정
26	한들방죽	시천동	터	비지정
27	구슬원 터(球瑟院 址)	시천동	터	비지정
28	유희강 생가 터	시천동	터	비지정
29	시천동 류씨 과거 답안지(시권)	시천동	유물	비지정
30	단묘어제	시천동	유물	비지정
31	시천동 당제	시천동	당제	비지정
32	청라도 유물산포지	청라도	매장	비지정
33	청라도 지석묘	청라도	매장	비지정
34	장금도 패총	청라도	매장	비지정
35	청라도 패총	청라도	매장	비지정
36	소문침도 패총	청라도	매장	비지정
37	심죽 신도비(沈楫 神道碑)	공촌동	금석문	지정
38	중심성(衆心城) 터	공촌동	관방	비지정
39	청송심씨 묘역	공촌동	묘역	비지정
40	만일사 터	공촌동	종교	비지정
41	응방지	공촌동	터	비지정
42	돌싸움	공촌동	민속	비지정
43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가좌동	산업	비지정
44	관해각(청송심씨 고택)	가좌동	고택	비지정
45	선문염송설화 권 1-30	가좌동	불교	지정
46	명상박물관	가좌동	현대건축	비지정
47	검암 플라시아 유적	경서동	매장	비지정
48	경서동 유적	경서동	매장	비지정
49	경서동 녹청자 요지	경서동	매장	비지정
50	류사눌묘	경서동	묘역	지정
51	경서동 앞말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1)	경서동	매장	비지정
52	경서동 아랫말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2)	경서동	매장	비지정
53	경서동 금산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3)	경서동	매장	비지정
54	금산 봉수대터(金山 烽燧臺址)	경서동	관방	비지정
55	경서동 52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4)	경서동	매장	비지정
56	경서동 425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5)	경서동	매장	비지정

순번	문화유산	소재지 (동)	분류	지정/비지정
57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경서동	묘역	비지정
58	김포군항 터(沈浦軍港址)	경서동	관방	비지정
59	경서호상놀이	경서동	민속	비지정
60	환자곶 유물산포지	원창동	매장	비지정
61	원창동 유물산포지	원창동	매장	비지정
62	원창동 도당재 유물산포지	원창동	매장	비지정
63	사창지(社倉址)	원창동	터	비지정
64	원창동 밀성박씨(密城朴氏) 묘역	원창동	묘역	비지정
65	원창포대지	원창동	관방	비지정
66	연희동 유적	연희동	매장	비지정
67	연희진 터	연희동	관방	비지정
68	숙의문씨 묘역	심곡동	묘역	비지정
69	심곡동 전주이씨 묘역	심곡동	묘역	비지정
70	심곡동 은행나무	심곡동	보호수	비지정
71	가정동 유적 I	가정동	매장	비지정
72	가정동 유적 II	가정동	매장	비지정
73	가정동 구석기 유물	가정동	매장	비지정
74	가정동 유물산포지	가정동	매장	비지정
75	가정포대지	가정동	관방	비지정
76	죽곶봉수	가정동	관방	비지정
77	가정지(佳亭址)	가정동	터	비지정
78	신현동 회화나무	신현동	보호수	지정
79	신현동 회화나무당제	신현동	당제	비지정

[표 2] 서곶 문화유산 목록

위의 표를 통해서 보이는 서곶지역 문화유산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로 지정문화유산이 7개, 나머지 72개는 비지정문화유산이다.

둘째로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당제가 4개이며¹⁰⁾ 일반민속으로는 경서호상놀이 및 돌싸움이 있다.

셋째로 매장유산은 28개이며 대부분 발굴이 끝나 택지개발이 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로 관방유적의 경우 7개이며, 이중 5개가 조선시대의 것이고 중심성 및 연희진 터 등 조선 후기의 것이 많다.

9) 참고로 서곶과 검단의 문화유산 목록에서의 분류는 별도의 기준을 찾을 수 없어 필자 임의로 정한 것이다.

10)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5)에 의하면 서곶과 검단의 모든 동에 당제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거행되는 당제는 ‘검암동 당제’, ‘신현동회화나무당제’, ‘신현동당제’, ‘시천동 당제’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검암동 당제’, ‘신현동회화나무당제’, ‘신현동당제’는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천서구문화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 검단지역의 문화유산

다음으로 검단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¹¹⁾

순번	문화유산	소재지 (동)	분류	지정/비지정
1	한백륜 묘역	마전동	묘역	지정
2	망해사지	마전동	불교	비지정
3	마전동 능내마을 굴참나무 1·2	마전동	보호수	비지정
4	인천 서구 검단유적	마전동	매장	비지정
5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2구역	마전동	매장	비지정
6	유물산포지	마전동	매장	비지정
7	약천사지	금곡동	불교	비지정
8	묘각사 비룡목	금곡동	보호수	비지정
9	가현산성	금곡동	관방	비지정
10	금곡동 묘각사 느티나무	금곡동	보호수	비지정
11	인천 서구 검단유적 1지구 1구역	금곡동	매장	비지정
12	백석산 봉수대 터	오류동	관방	비지정
13	오류동 느티나무	오류동	보호수	비지정
14	오류동 당산 소나무	오류동	보호수	비지정
15	안동포 터	왕길동	터	비지정
16	왕길동 염전 터	왕길동	염전	비지정
17	안동포 당제 향나무 소나무	왕길동	보호수	비지정
18	고성이씨 묘역	당하동	묘역	비지정
19	당하동 광명마을 느티나무	당하동	보호수	비지정
20	당하동 매밭 느티나무	당하동	보호수	비지정
21	당하동 족저마을 측백나무	당하동	보호수	비지정
22	당하동 족저마을 향나무	당하동	보호수	비지정
23	김안정 묘·출토 묘비	원당동	묘역	지정
24	의령남씨 종중묘역	원당동	묘역	지정
25	불로동 근린 공원내 고인돌	불로동	매장	비지정
26	불로동 마산마을 은행나무	불로동	보호수	비지정
27	불로동 당산 음나무	불로동	보호수	비지정
28	불로동 당산 참나무	불로동	보호수	비지정
29	불로동 아랫마을 느티나무	불로동	보호수	비지정
30	불로동 유물산포지	불로동	매장	비지정
31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대곡동	매장	지정
32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대곡동	묘역	지정
33	평산신씨 종중묘역	대곡동	묘역	지정
34	대곡동 유물산포지	대곡동	매장	비지정
35	대곡동 유적추정지 1~3	대곡동	매장	비지정
36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대곡동	묘역	비지정
37	밀양당씨 정열비	대곡동	비석	비지정
38	대곡동 느티나무 1~2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39	대곡동 두밀마을 은행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0	대곡동 두밀마을 느티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1	대곡동 두밀마을 팔배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11) 검단의 문화유산 목록은 『서구사上-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알기 쉬운 서구사』, 인천서구

순번	문화유산	소재지 (동)	분류	지정/비지정
42	대곡동 두밀마을 향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3	대곡동 황곡 느티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4	대곡동 황골 삼거리 느티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5	대곡동 황골 측백나무	대곡동	보호수	비지정
46	하동정씨 사당	대곡동	사당	비지정

[표 3] 검단 문화유산 목록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검단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정문화유산이 6개이며, 나머진 40개가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둘째로 비지정 보호수 22개이며, 그중 다수가 대곡동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로 매장문화유산의 경우 검단지역은 9개로 서곶(28개)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또한 묘역의 경우 11개인데 이는 서곶과 동일한 숫자이다.

넷째로 관방유적은 2개로 서곶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 외에도 서곶과 검단의 표에 넣지 못했지만 서구의 주요 무형문화유산으로 ‘서곶들노래’,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꼬덕각시놀이’, ‘인천부녀요’, ‘인천방죽맥이’, ‘보리밭일놀이’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이 아닌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행해진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래서 공촌동에서 벌어진 돌싸움과 경서동 지역에서 거행되었던 경서호상놀이만 앞선 표에 넣고 나머지는 넣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서곶들노래의 경우는 서곶 전체에서 불려진 노래이며, 쑥대고잔 지경다지기는 인천 지역의 경서동, 오류동, 반월촌 등지의 바닷가 마을에서 불리워진 소리이며, 꼬덕각시놀이는 인천 서구를 포함한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던 것이고, 인천방죽맥이는 인천 서구의 경서동, 안동포 난점 한들마을, 폐령 장도에서 불리워진 소리이고, 보리밭일소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오류동 왕길동 검단 등의 집성촌에서 보리밭일농사를 하며 부르던 노동요이다.¹²⁾

이렇게 서구의 문화유산을 서곶과 검단으로 나누기는 했으나 경향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두 지역에는 다수의 매장유산과 보호수, 묘역 등이 있으며 매장문화유산 대부분은 현재 발굴이 끝나 택지가 개발된 상태이다. 또한 서곶과 검단 모두 비지정 문화유산이 많은 상황이다.

향토문화연구소, 2008.’,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9.’, 『『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알기 쉬운 서구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등을 참고하였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홈페이지(<https://www.isctc.or.kr/>) 참고

3. 인천 서구의 선주성씨가문들과 문화유산

인천 서구에는 오랜 선주성씨가문이 존재하고 있다. 각 동별 선주성씨 가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곶 지역의 선주성씨가문¹³⁾

- 백석동(白石洞) : 해주정씨(海州鄭氏), 청송심씨(靑松沈氏), 풍산심씨(豐山沈氏), 남양홍씨(南陽洪氏), 성주이씨(星州李氏)
- 시천동(始川洞) : 진주류씨(晉州柳氏)
- 검암동(黔岩洞) : 능성구씨(綾城具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해주정씨(海州鄭氏), 진천송씨(鎭川宋氏)
- 경서동(景西洞) : 울산김씨(蔚山金氏), 곡부공씨(曲阜孔氏), 김해김씨(金海金氏), 풍천노씨(豐川盧氏), 양천허씨(陽川許氏), 문화류씨(文化柳氏)
- 연희동(連喜洞) : 순흥안씨(順興安氏), 상산김씨(商山金氏), 인동장씨(仁同張氏), 초계정씨(草溪鄭氏)
- 심곡동(深谷洞) : 남원양씨(南原梁氏), 현풍곽씨(玄風郭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풍천임씨(豐川任氏)
- 공촌동(孔村洞) : 경주최씨(慶州崔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 경주이씨(慶州李氏)
- 가정동(佳亭洞) : 한양조씨(漢陽趙氏), 합천이씨(陝川李氏), 배천조씨(白川趙氏)
- 신현동(新峴洞) : 김해김씨(金海金氏), 파평윤씨(坡平尹氏), 전주이씨(全州李氏), 경주이씨(慶州李氏)
- 원창동(元昌洞) : 밀양박씨(密陽朴氏), 밀양손씨(密陽孫氏), 나주나씨(羅州羅氏), 경주최씨(慶州崔氏), 진주강씨(晉州姜氏)
- 석남동(石南洞) : 제주고씨(濟州高氏), 경주김씨(慶州金氏), 인동장씨(仁同張氏), 청주이씨(淸州李氏), 경주최씨(慶州崔氏), 곡부공씨(曲阜孔氏)
- 가좌동(佳佐洞) : 창원황씨(昌原黃氏), 달성서씨(達城徐氏), 청송심씨(靑松沈氏), 전의이씨(全義李氏), 성주이씨(星州李氏), 만남박씨(潘南朴氏), 밀양박씨(密陽朴氏)

② 검단 지역의 선주성씨가문¹⁴⁾

- 마전동(麻田洞) : 평택임씨(平澤林氏), 순흥안씨(順興安氏), 남원양씨(南原梁氏), 성주이씨(星州李氏), 남양홍씨(南陽洪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양천허씨(陽川許氏), 연안김씨(延安金氏), 김해김씨(金海金氏), 평산신씨(平山申氏), 광산김씨(光山金氏), 나주임씨(羅州林氏), 결성장씨(結城張氏), 광주이씨(廣州李氏), 배천조씨(白川趙氏), 하동정씨(河東鄭氏)

13) 『서곶인물사』,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7, 34~42쪽.

14)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9, 342~348쪽.

- 금곡동(金谷洞) : 경주이씨(慶州李氏), 장수이씨(長壽李氏), 남원양씨(南原梁氏), 평산신씨(平山申氏), 전주이씨(全州李氏)
- 오류동(梧柳洞) : 배천조씨(白川趙氏), 달성서씨(達城徐氏), 반남박씨(潘南朴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순흥안씨(順興安氏), 광주이씨(廣州李氏), 결성장씨(結城張氏)
- 왕길동(旺吉洞) : 광주이씨(廣州李氏), 하동정씨(河東鄭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남원양씨(南原梁氏), 공주이씨(公州李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청주한씨(淸州韓氏), 광주김씨(廣州金氏), 성주이씨(星州李氏), 김해김씨(金海金氏)
- 대곡동(大谷洞) : 하동정씨(河東鄭氏), 평산신씨(平山申氏), 반남박씨(潘南朴氏), 풍산김씨(豐山金氏), 단양우씨(丹陽禹氏), 영산신씨(靈山辛氏), 거창신씨(居昌愼氏)
- 불로동(不老洞) : 남평문씨(南平文氏), 남원윤씨(南原尹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전주이씨(全州李氏), 풍산김씨(豐山金氏), 파평윤씨(坡平尹氏), 경주이씨(慶州李氏), 평택임씨(平澤林氏)
- 원당동(元堂洞) : 풍산김씨(豐山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 배천조씨(白川趙氏), 반남박씨(潘南朴氏), 양천허씨(陽川許氏), 의령남씨(宜寧南氏), 순흥안씨(順興安氏), 고성이씨(固城李氏)
- 당하동(堂下洞) : 전주이씨(全州李氏), 청송심씨(靑松沈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광산김씨(光山金氏), 양천허씨(陽川許氏)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서구에는 많은 선주성씨가문들이 있다.¹⁵⁾ 그리고 이들 선주성씨가문들은 서구의 문화유산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정지(佳亭址)와 조서강묘를 들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56번지에 있으며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반(趙胖, 1341~1401)의 별장이 있던 곳이다. 가정(佳亭)이라는 별장은 지금의 가정동 및 가정역 이름의 연원이 되는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서강 묘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에 조성되어 있는 조반의 아들 조서강의 무덤이다.

이 두 문화유산과 관계가 있는 조반과 조서강(趙瑞康)은 모두 배천조씨이며, 조서강이 세종 때 벼슬을 그만두고 가정동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배천조씨가문이 지금까지 살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¹⁶⁾

둘째로 신현동회화나무를 들 수 있다. 신현동회화나무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일대에 파평윤씨들이 오래전부터 모여 살았으며 파평윤씨들이 자연스럽게 회화나무를 관리하게 되어 회화나무를 윤씨네 나무라고 인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파평윤씨 가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¹⁷⁾

15) 『서곶인물사』에는 빠져있으나 서곶에는 연안이씨(延安李氏) 및 백석동의 광산김씨 가문도 있다.

16) 『서곶인물사』,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7, 39~40쪽.

17)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239쪽.

셋째로 시천동 진주류씨 묘역과 유희강 생가터, 시천동 류씨 과거 답안지(시권)은 모두 시천동 진주류씨 가문과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단묘어제(端廟御製) 역시 시천동 문화류씨 가문에서 보관하여 오던 것이다.

넷째로 검암동의 허암 정희량 유허지, 보명학교 터, 등은 모두 해주정씨와 관련이 있다. 이 중 허암 정희량 유허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조선시대 연산군 때의 문신 정희량이 은거하던 옛 집터이며,¹⁸⁾ 보명학교는 지금의 검암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검암동 해주정씨 집안의 정홍석과 서구 검암동 지역에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사립학교였다.¹⁹⁾

다섯째로 공촌동의 심즙신도비와 청송심씨 묘역, 관해각은 모두 청송심씨가문과 관련이 있다. 특히 관해각은 원래 청송심씨 고택(古宅)이었지만 지금은 한옥카페로 변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시천동 원주원씨 묘역,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원창동 밀성박씨(密城朴氏) 묘역, 심곡동의 전주이씨 묘역, 고성이씨 묘역, 반남박씨 대종중묘역, 평산신씨 종중묘역, 의령남씨 종중묘역 등은 모두 서구의 선주성씨가문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최근 발견된 검단의 임춘 무덤 및 비석 역시 부안임씨가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이렇게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특징 중 하나는 현존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선주성씨 가문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들이 서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인천 서구의 산업과 문화유산

인천 서구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산업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이곳에도 염전이 만들어지면서 염업 또한 서구의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서구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상당수 존재한다. 여기서는 산업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농경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당제를 들 수 있다. 당제의 사전적 정의는 “당산신(堂山神) 등의 제당신을 모시면서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로서 현재 서구에는 신현동회화나무 당제, 신현동 당제, 검암동 당제, 시천동 당제 등이 거행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안동포 당제 등도 행해졌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당제는 기본적으로 농경의례의 성격을 가진다.²¹⁾ 그래서 서구의 당제들 역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현재 거행되는 인천 서구의 당제 중에서 5월에 벌어지는 신현동회화나무당제는 마을의 안녕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며, 10월에 원신근린공원에서 벌어지는 신현동당제는 한 해의 풍년

18)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꽃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75쪽.

19)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북서꽃,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 177쪽;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꽃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83~84쪽.

20) 임춘 무덤 및 비석에 대한 것은 좀 더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21) 포구에서 행해지는 당제는 풍년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원하기도 한다.

을 감사하고 마을의 태평과 풍요 등을 기원하는 행사이다.²²⁾

특히 신현동회화나무당제와 신현동당제는 신현경로당 내의 주민조직인 신현동우회에 의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으며 검암동 당제도 검암동당제추진위원회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시천동당제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 등의 이유로 사라진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된다.²³⁾

이러한 농사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서곶들노래도 빼놓을 수 없다. 서곶들노래는 인천 서곶 지역의 농민들이 옛날부터 모심기와 김매기를 할 때 부르던 소리농요였으며 200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²⁴⁾

또한 농경과 관련된 근대 문화유산으로 서구 시천동에 있었던 황해사(黃海社) 간척지와 한들방죽을 들 수 있다. 먼저 황해사(黃海社)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마츠야마 츠네지로(松山常次郎)가 1918년 3월에 수리사업의 측량설계와 수리 및 철도 공사의 청부를 명목으로 창설한 토목회사이다. 이 회사는 혈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대토지 경영을 하였다. 이 회사는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을 논으로 만들기 위해 청라도까지 독을 쌓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을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건물은 비워지게 된다. 그리고 황해사가 간척하려 했던 갯벌은 80년이 지나 동아개발이 매립하게 된다.²⁵⁾

다음으로 한들방죽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대표적인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구한말에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1919년 친일파인 송병준에 돈을 대서 완성된다. 제방은 거둬해서 터져나가서 간척에 실패하다가 원래의 준공 시기보다 3년을 연기해서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방을 쌓고 간척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논으로 개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물면 논바닥에서 염분이 올라와 타 죽고 수확량도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병준은 이 간척사업으로 투자액의 몇십 배에 달하는 재산을 불렸고 서곶 사람들은 그의 소작인이 되었다고 한다. 간척지는 1950년대 후반 대부분 염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²⁶⁾

둘째로 인천 서구 경서동의 녹청자 요지 역시 산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서동 녹청자 요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고려청자의 초기형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급형 청자임이 밝혀졌다. 비록 고려청자의 초기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 지역에 녹청자를 보급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2)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5, 94~96쪽; 신현동회화나무당제는 지금은 서구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23)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의 동막도당굿을 들 수 있다. 동막도당굿은 연수구 동춘동 동막마을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1990년대 갯벌을 매립하며 일대가 개발되면서 동막마을이 사라지게 되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재현행사가 시작되어 명맥을 간신히 있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4년 8월 18일 기호일보에 이영태가 쓴 ‘한시에 나타난 동막 도당굿판’에 의하면 “《경기도산이제굿연구회 인천지회·인천동막도당굿보존회(추)는 15일 오후 7시 남구 학산소극장에서 인천동막굿을 재현하는 창작공연 ‘동막굿! 춤추다’를 무대에 올린다.”고 하였으며 “이번 공연은 전통 굿을 중심으로 동막굿을 재해석한 무대”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 이후 재현된 동막도당굿은 일종의공연으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24) 『서구사上-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487쪽.

25)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96~98쪽.

26) 최원길, 「간척에 의한 인천 서북부 연안의 지역 환경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5~47쪽.

셋째로 염전을 들 수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서구에도 여러 염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동 지역에도 광대한 천일염전이 있었다고 하고,²⁷⁾ 연희동 해안에 상애(相愛)염전이라는 천일염전이 있었으며,²⁸⁾ 경서동에도 바다 쪽에 서주(西州)염전이라는 소규모의 천일염전이 있었다고 한다.²⁹⁾ 이외에 검암동, 왕길동에도 염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남아있는 것은 없으며 위치도 찾기 힘들다. 다만 이 중에서 왕길동 염전 터는 위치가 알려져 있다.³⁰⁾

셋째로 경인고속도로 기공지비도 산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기공식이 1967년 3월 24일에 거행되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각종 물건을 수송하기에 좋은 교통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서구지역 도로 인근의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도시 개발이 촉진되었으며 서구지역으로 각종 공장이 모이게 된다.³¹⁾

5. 국방과 인천 서구의 관방문화유산

마지막으로 서구의 관방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구의 관방유적은 검단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서곶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관방유적으로는 서곶에는 집포군항터, 축곶봉수, 연희진터, 원창포대지, 가정포대지, 중심성지 등이 이 있고, 검단에는 가현산성, 백석산 봉수 등이 있다. 인천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한눈에 서구 3 관방유적』이라는 리플렛에 따르면 원창포대지 및 가정포대지 외에 다른 연희진에 속한 포대지와 계우정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우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룰 수 없으며, 원창포대지 및 가정포대지는 원래 연희진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다.

첫째로 집포군항터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있는데 해면에 돌출한 금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군항이라고 한다. 지금은 매립되어 보이지 않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움푹 들어간 형세를 하고 있어 항구로의 기능을 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³²⁾ 그러나 집포군항터에 대해서는 기록도 부족하고 및 고고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둘째로 축곶봉수는 인천 서구 가정동 축곶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봉수대는 서쪽으로는 바다에 인접하고 있었으나 현재 바다는 매립되어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고려시대 왜구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해안 연변봉수로 돌로 쌓은 연대(煙臺)와 주위 타원형 방호벽을 갖추고 있다.³³⁾

셋째로 연희진 터는 과거 연희진(連喜鎭)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공원화되었다. 연희진은 고종 16년(1879) 7월 1일에 화도진(花島鎭)과 함께 만들어졌다.³⁴⁾ 그리고 고종 16년 11월 15

27)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98쪽.

28)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101쪽.

29)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106쪽.

30) 『인천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 147쪽.

31)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423쪽.

32)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178~179쪽.

33)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230~231쪽.

일에 화도진과 함께 해상방위의 중요성으로 인해 독진(獨鎭)이 되었다.³⁵⁾ 독진(獨鎭)이라는 것은 영장(營將)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군진을 말한다. 이렇게 연희진이 설치된 이유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개항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하나부사 요시타다 [花房義質] 동래에서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전라도에서 해안을 측량하며 올라오겠다고 통보하면서 인천 및 부평의 방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수도인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로 인천에서 부평을 통하는 것이 강화수로로 접근하는 것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서해에서 서울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해 화도진과 함께 설치된 것이다.³⁶⁾ 그리고 연희진의 소속된 포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대략 연희동에 3개, 가정동에 1개, 원창동에 2개, 가좌동에 1개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중 일부가 가정포대 및 원창포대였다.³⁷⁾ 이러한 연희진은 고종 17년(1880)에 인천의 개항이 결정되어 화도진과 연희진의 기능이 쓸모없게 되자 고종 19년(1882) 6월 28일에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후 경기도 연안 방어는 부평부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했다.

넷째로 중심성(衆心城)은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외적의 부평해안 상륙을 저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희진이 혁파된 이후 부평해안 지역과 부평도호부와 도성을 잇는 육상교통로를 차단하고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리고 중심성(衆心城)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중심성사적비문 필사본에 의하면 “지금 부민의 마음으로 성을 쌓은 즉 이것을 우리말로 여러사람의 마음으로 성을 쌓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중심(衆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今以家民之心, 築城則, 此國語所謂衆心成城也.故名以衆心者豈, 不美哉.)”라고 하고 있다.³⁹⁾ 그리고 비문 아래에는 돈을 낸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동 3명, 하동 3명이 있다. 아마도 부평부 부내면의 상동과 하동의 주민들 중 경제력이 있는 5명이 60금(金)을 모아 축조 비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심성(衆心城)’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다섯째로 백석산 봉수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봉화촌의 낮은 구릉지대에 있다. 지금은 바다 쪽이 매립되어 잘 안 보이지만 원래는 서쪽으로 인천만을 조망하던 연변봉수였다. 봉수노선상 남쪽으로 축곶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김포시 대곶면의 수안산 봉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연변봉수였다. 이러한 백석산 봉수대는 1998년 육군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연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는다.⁴¹⁾ 백석산 봉수는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육군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할 때 물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가 보다 지리적 정황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백석산 봉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4) 『고종실록』 16권, 16년 7월 1일 계유 1번째 기사

35) 『고종실록』 16권, 16년 11월 15일 갑신 1번째 기사

36)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337~339쪽.

37)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인천서구문화원, 2024, 204~205쪽.

38)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343쪽.

39) 이경성 지음, 배성수 엮음, 『인천고적조사보고서』, 인천문화재단, 2007, 174~175쪽.

40)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343쪽.

41) 『서구사상-서구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서구, 2014, 332쪽.

여섯째로 가현산성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가현산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흙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터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거로, ‘자하동(紫霞洞)’이라는 금곡동 좌동(佐洞)마을의 예전 지명과 ‘성틀마루테기’, ‘둔전틀’이라는 마을지명을 들고 있다. ‘성틀마루테기’에는 좌동마을 남북으로 흘러 내린 산줄기에 예전에 성이 있었다고 구전된다고 하며, ‘둔전(屯田)틀’은 좌동의 동쪽에 있는 논인데, 둔전(屯田)이란 주둔하는 군대가 군량미를 자체조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⁴²⁾

이러한 관방유적의 존재는 서구가 예부터 국가 방위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해로상으로 배가 서구 앞바다와 강화도를 통해 고려 및 조선의 수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인천에서 부평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것이 강화수로 가는 것보다 짧다는 것을 일본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개항을 전후로 해서 서구지역에 처음에 연희진을 설치하고 나중에 부평부사 박희방이 계양산에 중심성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방유적은 서구가 수도방위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³⁾

6. 결론

이상으로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서구의 문화유산은 지역적·공간적으로 크게 서곶과 검단으로 나눌 수 있다.⁴⁴⁾ 하지만 문화유산의 경향으로 보았을 때 이 둘에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둘 다 오래된 선주성씨가문들이 존재하고 농경이 주요 산업이었다. 그리고 집성촌의 형성과 함께 각 선주성씨들의 묘역과 무덤이 만들어졌며,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당제 등이 행해졌다.

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먼저 신현동 지역의 당제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현재 검단지역에서는 행해지는 당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갯벌과 섬이 많았던 서곶 지역에는 근대 간척사업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보이지만 검단은 그러한 문화유산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검단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방유적의 경우 주로 서곶 지역에 많이 있다. 특히 서곶에는 개항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만든 관방유적이 많은데 이는 서곶을 인천에서 서곶지역을 통해 부평 및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강화수로 가는 것보다 가깝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단은 개항을 전후로 하는 시기 조선 조정에서 육로 상으로 수도인 한양으로 올라오는 진격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진 및 성과 같은 관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도 서곶과 검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특징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는 것들이 다수

42)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9, 201~202쪽.

43) 검단의 관방유적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44) 자세하게 구분하면 북서곶, 남서곶, 검단으로 나눌 수 있다.

45)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해두지만 서곶과 검단을 나누는 것은 본 발표의 주제가 ‘서구의 공간’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구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곶과 검단으로 나눈 것뿐이다.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서인천고등학교 안에 있는 검바위 공원의 검바위는 검암동이라는 동명과 검바위역이라는 역명의 기원이 되는 바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바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이는 인천 서구의 당제도 마찬가지로인데 신현동의 경우 5월에 신현동회화나무 당제가 벌어지고, 10월에 원신근린공원에서 신현동 당제가 벌어진다. 이러한 당제는 5월과 10월이라는 정기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검암동 당제는 전해오는 흥기와 진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서구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서구 지역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저조와 인천 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생각된다.⁴⁶⁾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수집 발굴해내고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은 자료를 가지고도 인천 서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인천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46) 특히 역사분야에서는 구술자료보다는 문헌 및 조사자료를 선호하는데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점이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토론문〉

김영준의 「인천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토론

토론: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그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문화원이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구문화원 개원 이전부터 활동해 온 이훈익, 그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해 온 박한준 등이 펴낸 단행본은 단순한 향토사 수준을 넘어 지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사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하다.

발표자는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 전주 성씨 가문과 문화유산, 산업과 문화유산, 국방과 서구의 관방유적 순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특히 공간적으로 서곶과 검단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서곶 지역에 간척 관련 문화유산과 관방유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뚜렷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것도 타당한 지적이다.

발표자의 글의 전개 방식과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글의 성격상 반론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서구의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의 개념 구분

발표자는 서론에서 "역사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현행 국가유산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곧 역사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역사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2.1절에서는 '서곶지역의 역사문화유산', 2.2절에서는 '검단지역의 문화유산'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에 있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린다.

2. 서구 인근 지역과의 문화유산 비교 필요성

서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특징을 서곶과 검단이라는 두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점은 이해가 간다. 과거 서곶은 옛 부평, 검단은 옛 김포에 속했던 행정 구역이었기에 그 구분이 타당하다. 발표자가 서구 문화유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서구 문화유산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간 간의 구분뿐 아니라, 인천 내 타 지역과의 비교 역시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서구문화원의 조사 사업에 수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구는 다른 인천 지역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언급한 선주가문의 존재뿐 아니라, 옛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인천 내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묘역과 석물을 예로 들면, 서구 곳곳에는 유력 가문의 묘역이 분포해 있으며, 대부분이 처음 조성된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도시 개발로 인해 묘역이 훼손되거나 이전된 사례가 빈번한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해주정씨 묘역처럼 옥련동에서 오류동을 거쳐 김포시 대곶면으로 이전한 예도 있으나,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곳이 많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서구 내부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더해, 향후 연구에서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병행한다면 서구 문화유산의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보존 방안

서구 문화유산의 또 다른 특징은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유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멸실 위험이 상존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서구 지역은 지정문화유산 7건, 비지정문화유산 72건이며, 검단 지역은 각각 6건, 4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사업에 참여하며 서구의 노거수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당시 도시 개발로 인해 노거수의 존재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비교적 많은 노거수가 남아 있었다. 신현동의 회화나무처럼 지정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지정 상태이다. 그러나 이 노거수들이 모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향토유산, 기억유산, 또는 미래유산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015년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사업에 참여했을 때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묘역이 많았음에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하동의 고성이씨 묘역의 경우, 이칙의 묘비에 검은 철이 되어 있어 원형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었다. 원당동의 신섬 묘 역시 묘비만 이전하고, 기단과 망주석, 상석 등은 방치된 상태였다.

비지정문화유산 중에는 유물 산포지로 지정된 곳도 많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개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조사 당시에는 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화유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관리 및 보존 체계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발표자께서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보존 방안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궁금하다.

〈제4 발표〉

사회경제적 입지로 본 서구 - 산업을 중심으로 -

강철구(인천대학교 강사)

토론: 김태훈((협)다운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적 입지로 본 서구

- 산업을 중심으로 -

강철구 (인천대학교 강사)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의 행정구역 및 일반현황
3. 서구의 지역경제 분석
4. 나오며

I. 들어가며

서구는 최근 청라신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인천시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도시이다. 2008년 기준 393,346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2,692,696명)의 14.6%를 차지하였는데, 2024년 기준 634,064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3,021,010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부평구였지만, 2018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인천에서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년 1월 인천시의 행정 체제 개편 발표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서구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사용했던 ‘서구’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서해구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서구 지역의 산업구조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구의 행정구역 및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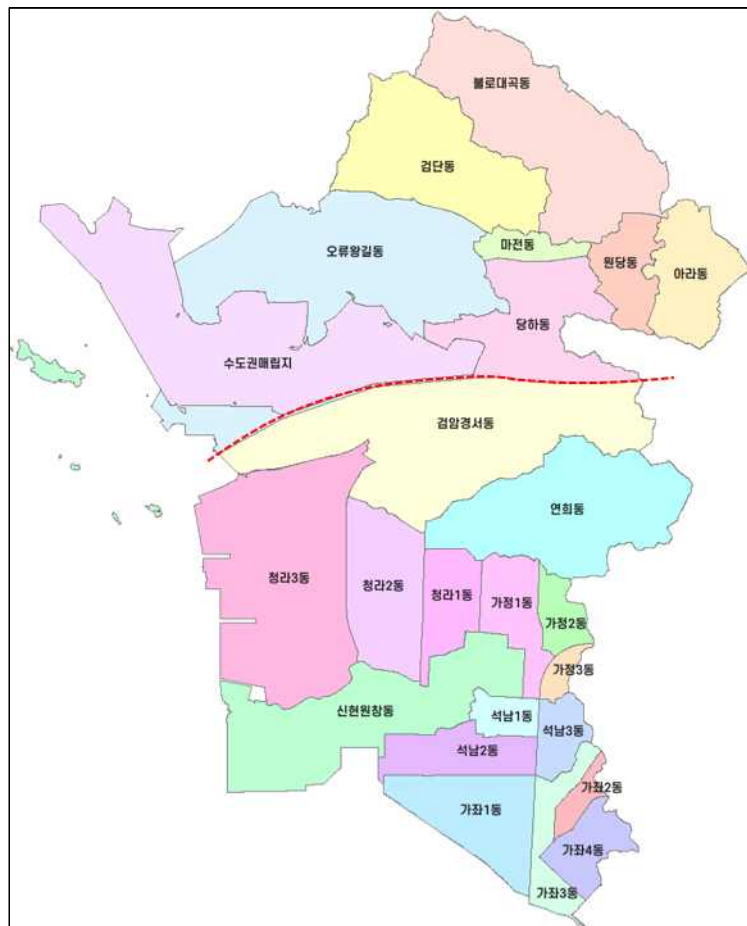
조선 태종 13년(1413년) 부평도호부에 속해있던 서구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었고 1940년 인천부가 확대되어 옛 부평 지역까지 관할하면서 인천부에 편입되었고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었다.¹⁾ 1945년 광복을 맞이함에 따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인천부가 인천시로 개칭되고 북구 서곶출장소는 1968년 구제(區制)가 시행되면서 인천시 북구에 편입되었고 1987년까지 유지되었다. 1988년 1월 1일 북구에서 분구되면서, 현재 ‘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서구의 행정구역은 점차 넓어지게 되었는데,

1)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알기쉬운 서구사』, 2008, 8쪽.

1995년 3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에 통합되면서 행정구역의 면적도 확대되었다. 2024년 기준 119.06㎢로 강화군(411.41㎢), 옹진군(172.95㎢)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뉘었을 때 중부는 주거·상업지역, 남부 공업지역(목재단지), 서부는 해안매립지역(청라국제도시), 북부는 농경·신흥개발지역(검단신도시)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항 신항만과 경인아라뱃길,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등이 인프라를 갖추어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²⁾

[그림 1] 서구 행정구역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검색일: 2025.10.02.)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도시개발이 본격화했는데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경제특구 개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2002년 송도, 영종, 청라가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본격화했고, 2000년대 후반 전동, 당하동, 원당동, 불로동 일원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또한 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공사가 2009년에 착공하였다.

2) 서구청, 『2025 구정백서』, 2025, 41쪽.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내 조성된 아파트의 입주는 각각 2010년과 2021년쯤부터 시작됐고, 이때부터 서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88년 서구 최초 설치 당시 20만여 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의 인구는 30여 년 만에 3배에 육박하는 64만 명까지 확대돼 인천 자치구 내 인구 1위 지역이 됐다.

〈표 1〉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및 10개 군구의 인구 추이를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였다. 2008년만 하더라도 4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서구의 인구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유입된 결과 2015년 5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6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25년 9월 기준 649,040명으로 다른 군구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서구로 분구할 당시 인구가 20만여 명에서 30년 만에 3배가 증가하였으며, 인구수만으로 봤을 때 서울 송파구를 넘어서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표 1〉 인천시 및 10개 군구 인구 추이(2008년-2020년)

단위: 명

구분	인천시	서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08	2,692,696	393,346	88,713	74,866	420,741	268,668	450,054	569,246	342,299	67,387	17,376
09	2,710,579	395,508	89,688	77,308	419,935	271,497	463,414	563,920	344,039	67,049	18,221
10	2,758,296	408,068	92,890	79,663	423,876	279,230	473,423	567,493	347,810	67,104	18,739
11	2,801,274	436,134	93,581	78,692	417,996	287,903	495,469	560,936	344,299	66,779	19,485
12	2,843,981	469,887	98,648	76,720	414,500	292,589	503,597	559,047	342,202	66,752	20,039
13	2,879,782	490,035	107,774	75,093	411,330	300,305	507,021	556,985	343,806	66,735	20,698
14	2,902,608	498,686	111,929	73,978	408,305	310,703	514,656	556,992	339,538	67,118	20,703
15	2,925,815	504,606	114,493	72,571	404,893	319,052	531,395	555,844	334,332	67,667	20,962
16	2,943,069	510,733	115,249	71,014	417,103	328,627	530,982	549,716	330,284	68,010	21,351
17	2,948,542	516,017	117,999	69,487	419,267	335,142	536,578	539,941	323,784	68,754	21,573
18	2,954,642	538,596	122,499	66,233	416,542	346,359	537,161	524,640	312,680	68,896	21,036
19	2,957,026	544,556	135,135	64,427	408,862	366,550	532,704	511,577	303,471	69,178	20,566
20	2,942,828	542,040	139,729	62,542	404,343	387,450	525,354	494,962	296,750	69,203	20,455
21	2,948,375	555,380	143,633	61,486	407,464	389,644	518,272	486,765	295,696	69,693	20,342
22	2,967,314	589,013	152,931	58,999	406,004	385,796	506,181	489,118	288,856	69,803	20,613
23	2,997,410	624,358	158,958	59,482	405,995	392,416	492,415	494,138	280,266	69,005	20,377
24	3,021,010	634,064	167,113	58,296	412,274	400,213	486,225	493,200	280,227	69,402	19,996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동구(7.1km²), 미추홀구(24.8km²), 계양구(45.5km²)와 부평구(32km²)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행정구역, 공항철도·공항고속도로·아라뱃길 등 교통인프라가 서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는 점, 검단 지역은 과거 김포군에서 서구에 편입(95년도)되면서 다른 서구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곳에 서구검단출장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

의 비효율성 증가의 이유로 분구가 확정되었다.³⁾ 내년 7월 예정된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게 되는데, 분구 시 서해구 인구는 39만 명, 검단구 인구는 26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III. 서구의 지역경제 분석

1. 지역내총생산(GRDP)

〈표 2〉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 및 10개 군·구 지역내총생산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액은 약 190조 원이며, 이중 서구의 지역내총생산액은 약 49조 원으로 인천시 전체의 25.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2016년 이후로 서구가 인천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 지역 내 경제활동활동별 주요 산업 부문의 지역내총생산액 및 비중은 〈표 3〉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⁵⁾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서구 지역 지역내총생산액은 약 49조 원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제조업으로 전체 생산액에서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전체 산출액에서 50%를 웃돌았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14.58%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당 부문은 2016년 이후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건설업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8.54%이다. 2016년 7.08%에서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서구 지역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이유는 청라국제도시⁶⁾(2003~2025년 12월), 루원시티 도시개발(2006년~2024년)의 영향과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⁷⁾(2009년~2026년)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차 산업의 항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4.2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서비스업(4.16%), 부동산업(3.81%), 운수 및 창고업(2.4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항만, 공항 등 화물운송이 집적되어 해당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서구 지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산업 부문의 지역내총생산액 비중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고 서구 지역 전체 생산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않아 인천시의 산업구조 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3) 인천광역시, 2022.08. 31 보도자료, “인천시,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

4) 『조선일보』, 2025. 09. 08,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09/08/ET2PLAUWM5EFXAYS7SCHIL3SME/>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1차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며, 제2차 산업은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이며 나머지 항목은 제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 광업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별개로 표시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광업을 넓은 의미에서 1차 산업에 포함했다.

6) 이외 청라 지역에 로봔랜드(2009년~2027년), 스타필드(2013년~2027년), 하나금융타운(2014년~2025년), 청라의 료복합타운(2014년~2029년), 청라시티타워(2017년~2030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서구청 홈페이지).

7)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도시철도 1호선 연장: 2017년~2025년) 사업이 진행 중이다(서구청 홈페이지).

〈표 2〉 인천시 및 10개 군·구 지역내총생산 추이(2016년-2020년)*

단위: 백만 원, %

시군구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시	193,065,915 (100)	199,508,670 (100)	199,199,444 (100)	198,397,102 (100)	189,558,050 (100)
서구	46,401,599 (24.03)	49,086,157 (24.60)	49,297,406 (24.75)	46,299,679 (23.34)	49,158,208 (25.93)
강화군	2,526,895 (1.31)	2,726,374 (1.37)	3,032,090 (1.52)	3,149,681 (1.59)	3,036,081 (1.60)
옹진군	1,063,193 (0.55)	1,073,574 (0.54)	1,009,227 (0.51)	1,035,718 (0.52)	1,364,159 (0.72)
중구	34,644,683 (17.94)	34,482,179 (17.28)	34,909,512 (17.52)	36,064,485 (18.18)	25,760,995 (13.59)
동구	8,798,973 (4.56)	9,639,899 (4.83)	9,793,320 (4.92)	9,376,397 (4.73)	9,623,066 (5.08)
미추홀구	13,788,325 (7.14)	14,013,680 (7.02)	13,747,632 (6.90)	13,743,040 (6.93)	14,911,219 (7.87)
연수구	18,234,262 (9.44)	20,024,468 (10.04)	21,397,145 (10.74)	22,808,098 (11.50)	22,982,755 (12.12)
남동구	34,752,683 (18.00)	35,287,272 (17.69)	34,068,755 (17.10)	33,949,716 (17.11)	34,174,830 (18.03)
부평구	24,765,464 (12.83)	24,821,396 (12.44)	23,644,308 (11.87)	23,214,632 (11.70)	23,617,529 (12.46)
계양구	8,089,837 (4.19)	8,372,661 (4.20)	8,297,160 (4.17)	8,772,110 (4.42)	8,772,442 (4.63)

*2015년 기준연쇄가격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 총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와 서구 두 지역 모두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제조업의 경우 인천시와 서구의 비중은 2020년 기준 40%대를 보이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 제조업 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인천시의 경우 2019년 40%를 밑돌긴 하였으나, 2020년 다시 40%대 수준을 보였다. 제2차 산업 부문에서 인천시와 서구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다. 서구의 경우 2016년 이후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구와 달리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2020년 기준 운수 및 창고업이 약 17조 원으로 8.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부문의 비중은 12%~13%대를 유지하였다가 산출액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2019년 말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여객 및 화물 운송 관련 산업이 집적된 인천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서구 지역 산업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추이(2016년-2020년)*

단위: 백만 원, %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내총생산(산출액)		46,401,599 (100)	16,229,492 (100)	49,086,157 (100)	17,134,355 (100)	49,297,406 (100)
제1차	농업, 임업 및 어업	177,564 (0.38)	74,752 (0.41)	202,371 (0.48)	87,083 (0.44)	235,667 (0.28)
	광업	82,769 (0.18)	43,208 (0.13)	61,576 (0.09)	32,037 (0.10)	46,287 (0.08)
제2차	제조업	22,646,220 (48.80)	5,472,593 (50.30)	24,690,568 (50.40)	5,866,361 (47.37)	24,848,076 (44.9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327,244 (20.10)	3,310,462 (18.33)	8,997,993 (17.52)	3,453,559 (17.02)	8,638,983 (14.58)
	건설업	3,285,140 (7.08)	1,246,213 (6.92)	3,395,142 (5.54)	1,275,583 (6.34)	2,729,886 (8.54)
제3차	도매 및 소매업	1,552,825 (3.35)	826,970 (3.28)	1,611,625 (3.54)	854,327 (4.03)	1,743,371 (4.21)
	운수 및 창고업	1,112,584 (2.40)	543,188 (2.70)	1,326,125 (3.39)	644,277 (2.96)	1,669,617 (2.45)
	숙박 및 음식점업	816,817 (1.76)	232,943 (1.79)	877,011 (2.02)	243,937 (2.22)	995,174 (1.92)
	정보통신업	324,297 (0.70)	163,728 (0.75)	367,415 (0.80)	188,846 (0.90)	393,881 (1.38)
	금융 및 보험업	306,586 (0.66)	197,641 (0.66)	324,304 (0.74)	213,662 (0.93)	367,223 (1.22)
	부동산업	1,374,524 (2.96)	1,026,413 (3.05)	1,495,223 (3.22)	1,086,060 (3.75)	1,587,596 (3.81)
	사업서비스업	1,491,118 (3.21)	923,674 (3.13)	1,534,825 (3.58)	928,650 (4.59)	1,764,734 (4.1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6,499 (1.63)	466,641 (1.63)	799,881 (1.63)	492,454 (1.66)	803,167 (1.60)
	교육 서비스업	847,206 (1.83)	591,037 (1.84)	904,763 (1.88)	623,679 (2.03)	926,398 (1.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2,527 (1.90)	480,390 (2.12)	1,039,525 (2.24)	558,240 (2.74)	1,103,087 (2.6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417,680 (3.06)	629,639 (2.98)	1,463,395 (2.89)	595,770 (2.89)	1,424,462 (2.48)
제1차 산업		260,333 (0.56)	263,947 (0.54)	281,954 (0.57)	248,903 (0.54)	177,061 (0.36)
제2차 산업		35,258,604 (75.99)	37,083,703 (75.55)	36,216,945 (73.47)	32,745,928 (70.73)	33,463,959 (68.07)
제3차 산업		10,882,663 (23.45)	11,744,092 (23.93)	12,778,710 (25.92)	13,287,692 (28.70)	13,652,315 (27.77)

*2015년 기준연쇄가격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표 4〉 인천시 산업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추이(2016년-2020년)*

단위: 백만 원, %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내총생산(산출액)		193,065,915 (100)	199,508,670 (100)	199,199,444 (100)	198,397,102 (100)	189,558,050 (100)
제1차	농업, 임업 및 어업	497,802 (0.26)	487,533 (0.24)	528,906 (0.27)	575,272 (0.29)	565,603 (0.30)
	광업	278,435 (0.14)	252,626 (0.13)	171,819 (0.09)	109,475 (0.06)	187,107 (0.10)
제2차	제조업	80,187,208 (41.53)	83,293,901 (41.75)	81,038,289 (40.68)	76,559,419 (38.59)	76,355,048 (40.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711,811 (6.58)	12,215,453 (6.12)	11,744,101 (5.90)	10,678,471 (5.38)	9,994,911 (5.27)
	건설업	12,094,410 (6.26)	12,797,851 (6.41)	11,572,661 (5.81)	11,755,149 (5.93)	14,244,871 (7.51)
제3차	도매 및 소매업	9,713,701 (5.03)	10,326,741 (5.18)	10,859,779 (5.45)	11,422,651 (5.76)	10,736,218 (5.66)
	운수 및 창고업	23,665,480 (12.26)	23,920,337 (11.99)	24,764,930 (12.43)	26,186,779 (13.20)	16,761,841 (8.84)
	숙박 및 음식점업	6,003,238 (3.11)	6,227,479 (3.12)	6,655,311 (3.34)	6,774,633 (3.41)	5,553,162 (2.93)
	정보통신업	2,910,948 (1.51)	2,949,690 (1.48)	3,087,939 (1.55)	3,180,873 (1.60)	3,326,597 (1.75)
	금융 및 보험업	5,429,869 (2.81)	5,678,300 (2.85)	5,918,567 (2.97)	6,014,328 (3.03)	6,063,362 (3.20)
	부동산업	8,286,900 (4.29)	8,690,641 (4.36)	9,088,410 (4.56)	9,484,219 (4.78)	9,970,660 (5.26)
	사업서비스업	8,515,318 (4.41)	8,511,082 (4.27)	8,741,414 (4.39)	9,173,082 (4.62)	9,376,009 (4.9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006,686 (3.11)	6,381,065 (3.20)	6,510,875 (3.27)	7,013,245 (3.53)	7,271,821 (3.84)
	교육 서비스업	5,530,127 (2.86)	5,722,315 (2.87)	5,717,410 (2.87)	5,815,411 (2.93)	5,638,813 (2.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29,014 (3.07)	6,533,647 (3.27)	7,079,976 (3.55)	7,828,579 (3.95)	7,896,880 (4.1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304,968 (2.75)	5,449,856 (2.73)	5,566,222 (2.79)	5,523,781 (2.78)	5,123,601 (2.70)
제1차 산업		776,237 (0.40)	740,159 (0.37)	700,725 (0.35)	684,747 (0.35)	752,710 (0.40)
제2차 산업		104,993,429 (54.38)	108,307,205 (54.29)	104,355,051 (52.39)	98,993,039 (49.90)	100,594,830 (53.07)
제3차 산업		87,296,249 (45.22)	90,391,153 (45.31)	93,990,833 (47.18)	98,417,581 (49.61)	87,718,964 (46.28)

*2015년 기준연쇄가격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시 전체 산업 비중과 서구 지역의 산업 부문 비중은 <표 5>에서와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표 5> 인천시 및 서구의 산업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이(2016년-2020년)*

단위: %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제1차 산업	0.4	0.56	0.4	0.54	0.4	0.57	0.3	0.54	0.4	0.36
제2차 산업	54.4	75.99	54.3	75.55	52.4	73.47	49.9	70.73	53.1	68.07
- 제조업	41.53	48.80	41.75	50.30	40.68	50.40	38.59	47.37	40.28	44.96
제3차 산업	45.2	23.45	45.3	23.93	47.2	25.92	49.6	28.70	46.3	27.77
2차-3차	9.2	52.54	9	51.62	5.2	47.55	0.3	42.03	6.8	40.3

출처: 필자가 재가공

인천시의 경우 서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중 차이는 크지 않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0.3%p로 사실상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물론 2020년에 격차는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10%p 내인 반면, 서구의 경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격차는 많게는 50%p를 넘기도 하였다. 물론 2016년을 기점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격차는 2020년 기준으로 40.3%p로 줄어들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제조업만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40% 내외로 시기별로 3차 산업 비중보다는 낮았던 반면, 서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인 3차 산업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구의 제조업 비중이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산업구조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서구 지역은 제2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지역내총부가가치율

앞서 지역내총생산의 수치를 통해서 서구 지역은 2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천과는 달리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별 지역내총부가가치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인천시 및 서구의 산업별 지역내총부가가치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지역내총부가가치율은 2020년 기준 40.8%로 2016년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서구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부가가치율은 2020년 기준 35.1%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정체되어 있다.

2차 산업을 살펴보면, 서구 지역은 2017년을 기점으로 총부가가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서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3차 산업의 경우 인천이나 서구 지역이 2019년까지 부가가치율이 조금씩 상승하다 2020년 소폭 하락하였다.

〈표 6〉 인천시 및 서구의 산업별 지역내총부가가치율 추이(2016년-2020년)*

단위: %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총부가가치율		38.6	35.0	38.9	34.9	39.5	34.6	40.4	36.9	40.8	35.1
제1차	농업, 임업 및 어업	0.1	0.2	0.1	0.2	0.1	0.2	0.1	0.2	0.1	0.1
	광업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제2차	제조업	10.6	11.8	10.8	12.0	10.6	11.9	10.4	11.7	11.1	11.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	7.1	2.2	7.0	1.9	6.1	2.0	6.7	2.0	5.9
	건설업	2.4	2.7	2.4	2.6	2.2	2.1	2.2	2.4	2.8	3.2
제3차	도매 및 소매업	2.7	1.8	2.7	1.7	2.9	1.9	3.0	2.1	2.9	2.2
	운수 및 창고업	4.3	1.2	4.4	1.3	4.8	1.5	5.1	1.4	3.1	0.8
	숙박 및 음식점업	0.9	0.5	0.9	0.5	1.0	0.6	1.0	0.6	0.8	0.5
	정보통신업	0.7	0.4	0.7	0.4	0.8	0.4	0.8	0.5	0.9	0.7
	금융 및 보험업	1.6	0.4	1.6	0.4	1.7	0.5	1.7	0.6	1.9	0.8
	부동산업	3.2	2.2	3.2	2.2	3.3	2.3	3.4	2.7	3.8	2.7
	사업서비스업	2.7	2.0	2.6	1.9	2.6	2.1	2.7	2.7	2.8	2.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	1.0	2.3	1.0	2.4	1.0	2.5	1.1	2.7	1.1
	교육 서비스업	2.0	1.3	2.0	1.3	2.0	1.3	2.0	1.4	2.1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	1.0	1.8	1.1	1.9	1.2	2.1	1.5	2.2	1.4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2	1.4	1.2	1.2	1.2	1.2	1.2	1.1	1.1	1.0
제1차 산업		0.2	0.3	0.2	0.2	0.2	0.3	0.2	0.2	0.2	0.1
제2차 산업		15.1	21.6	15.4	21.6	14.8	20.1	14.6	20.7	15.8	20.3
제3차 산업		23.3	13.1	23.3	13.1	24.4	14.1	25.6	15.8	24.5	15.0

* 지역내총부가가치율 = 지역내총부가치 / 지역내총산출액 × 100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부가가치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역내총부가가치율을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내총부가치를 지역내총산출액(GRDP)으로 나눠서 단순하게 계산하였다. 단순 계산 방식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는 없다. 〈표 7〉은 서구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보여주는데, 2차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구 지역의

지역내총부가가치 35.1% 중 2차 산업이 21.3%인데, 이는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약 57.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차 산업의 경우의 서구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에서 68.0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2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3차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에서 27.77%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5% 다시 말해서, 서구 지역에서 만들어 낸 부가가치 중 약 4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 서구의 산업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부가가치율 추이(2016년-2020년)*

단위: %

항 목	2016		2017		2018		2019		2020	
	GRDP	부가 가치	GRDP	부가 가치	GRDP	부가 가치	GRDP	부가 가치	GRDP	부가 가치
제1차 산업	0.56	0.3	0.54	0.2	0.57	0.3	0.54	0.2	0.36	0.1
제2차 산업	75.99	21.6	75.55	21.6	73.47	20.1	70.73	20.7	68.07	20.3
- 제조업	48.80	11.8	50.30	12.0	50.40	11.9	47.37	11.7	44.96	11.3
제3차 산업	23.45	13.1	23.93	13.1	25.92	14.1	28.70	15.8	27.77	15.0

출처: 필자가 재가공

결론적으로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3차 산업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의미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2차 산업의 특징이 3차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있고 3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의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안정화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을 모두 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2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다시 말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인천연구원)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⁸⁾ “서구 지역은 1960~80년대 인천항 지역을 기반으로 목재류 수입이 활발했고, 이를 다시 제재·가공하거나 합판, 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원부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서구 소재 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하였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저렴한 가구 소재가 개발되면서 목재 관련 연관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목재가구업체들이 전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구는 목재 가공 및 목재가구 제조업체들의 비중이 인천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목재 관련 산업을 서구의 지역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8) 인천발전연구원, 『인천 목재가구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인천서구를 중심으로』, 2011, 3쪽

〈표 8〉 서구 사업체규모 별(중분류별) 광업 및 제조업 현황(10인 이상)

단위: 개, 명, 백만 원

분류 번호	산업중분류별	사업 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부가 가치율*
B-C	2016	1,419	43,525	17,497,344	5,199,384	29.7%
B-C	2017	1,462	44,917	20,799,526	5,505,321	26.5%
B-C	2018	1,376	43,579	22,490,184	5,259,106	23.4%
B-C	2019	1,405	42,844	19,197,656	5,259,353	27.4%
B-C	2020	1,426	43,043	17,686,649	5,168,456	29.2%
B-C	2021	1,495	44,517	22,622,817	6,329,533	28.0%
B-C	2022	1,524	45,960	27,447,846	7,865,823	28.7%
B	광업	5	134	58,277	26,632	45.7%
C	제조업	1,519	45,826	27,389,569	7,839,191	28.6%
10	식품제조업	96	2,986	1,538,971	389,141	25.3%
11	음료제조업	-	-	-	-	-
12	담배제조업	-	-	-	-	-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 제외)	19	385	48,578	27,185	56.0%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7	247	41,293	24,455	59.2%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2	X	X	X	X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101	2,644	1,107,006	359,015	32.4%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404	143,704	38,062	26.5%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2	314	77,655	33,053	42.6%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676	9,589,474	2,067,974	21.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66	2,065	1,179,142	344,303	29.2%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7	4,106	1,083,849	455,022	42.0%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2	1,663	833,488	346,152	41.5%
24	1차금속제조업	86	2,641	2,742,817	430,152	15.7%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2	5,257	1,415,785	567,835	40.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29	5,049	1,664,256	586,784	35.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0	1,084	405,804	178,618	44.0%
28	전기장비제조업	109	4,186	1,489,774	377,207	25.3%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80	7,703	2,566,138	1,115,239	43.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61	2,283	897,140	256,414	28.6%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	66	13,228	5,712	43.2%
32	가구제조업	43	1,235	360,784	144,064	39.9%
33	기타제품제조업	21	704	161,909	65,530	40.5%
34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	X	X	X	X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출하액 × 100

출처: 서구청, 『제35회 2023 서구기본통계』, 2024, 88쪽

2011년 당시 인천시 내 170개 업체 중 서구에 소재한 목재가구 제조업체는 77개로 45.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천시 전체 102개 가구제조업체 중 서구에 소재한 목재가구 제조업체는 43개로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약 3.3%p 차이지만, 업체 수로 볼 때 약 55%가 감소한 수치이다.⁹⁾ 2022년 기준 서구의 사업체규모별 광업 및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¹⁰⁾

오히려 서구의 제조업 부문 중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개 사업체가 있는데, 출하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는 26.3%를 차지하고 있다. 1차 금속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율로 봤을 때의 양상은 사뭇 다른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59.2%), 섬유제품제조업(의복 제외)(5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44%),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43.5%)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유망 산업에 대한 전망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도 필요하다.

VI. 나오며...

내년 7월 1일이 되면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인천시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25.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각각의 자치구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향후 두 자치구의 인구 유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최근 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반시설과 환경조성이 중요한데, 이중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다시 말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하는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서구 지역 내 한국수출(주안) 국가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인천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 뷰티폴파크, I FOOD Park 산업단지,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한국수출(주안) 국가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3곳은 타구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단지이면서 초창기에 지어진 산업단지이다. 나머지 5곳은 온전히 서구에 입지한 단지이고 앞선 3곳에 비해 비교적 나중에 건설된 단지이며, I FOOD Park 산업단지¹¹⁾, IHP도시첨단산업단지¹²⁾ 경우 특정 산업을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고도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9) 인천광역시, 『제64회 인천광역시통계연보(2024)』, 2025, 215쪽.

10) 서구청, 『제35회 2023 서구기본통계』, 2024, 88쪽.

11) 식품제조가공 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목적.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 중심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

사회경제적 입지로 보는 서구

- 미래지향적 산업 전망 -

김태훈 ((협)다운정책연구원)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적 변화와 저성장 국면인 경제적 변화는 이를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받고 있으며 신산업의 확대, 주력산업의 해외 이전 등이 나타나면서 근로환경 또한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발표 때 살펴본 결과 서구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구는 제조업이 아직도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2차 산업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신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서구의 제조업은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전체 산업 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이 포함된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약 68%로서 광역시 중에서도 비교적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인천(약 53%)과 비교해도 높은 비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의 미래상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모든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경제활동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는 실제 제조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으며 산업입지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제 3세계로의 해외 이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공장들의 해외 이전을 통해 현재 지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서구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혹은 나타날 것이며 이를 대비할 필요가 존재한다.

현재 서구는 뷰티폴파크, I FOOD Park 산업단지, IHP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뷰티폴파크는 기존 검단일반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하였으나 기존 제조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I FOOD Park 산업단지 또한 식품산업과 기타 산업 등의 융합을 권장하며 환경을 위한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형태고 IHP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형 공장을 입주시켜 자동차 및 자동차수소전지 등 에너지 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산업단지 공급은 과거 산업입지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이었으며 산업단지 공급에 관해 우려하는 연구 결과 또한 기존 형태의 산업단지'만'을 공급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산업단지 공급 그 자체는 필요하다 보고 있다. 물론 1인 기업, 3D 프린팅 등 새로운 제조업 생

산방식과 기존 대규모 생산보다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집적과 도시기반시설에 연계된 형태의 산업입지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산업단지 공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프라, 경제 요소, 나아가서는 생산시설까지 공유할 수 있는 공유형 산업단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지향적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맞춰 기술, 환경, 사회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의 미래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치하려고 주력하는 산업 형태이다. 대표적으로는 AI나 로봇 등을 대표로 하는 첨단기술산업 등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산업 등이 있으며 산업 간 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산업이나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 또한 이에 포함된다.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 공급으로 서구의 산업을 살펴보면 기존 제조업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에 환경과 산업 간 융합을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기존 서구 및 인천 지역의 경제 환경에 근거한 입지를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선택이며 전망 또한 밝은 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기존 산업단지 정책에 추가하여 사회경제적 입지를 고려한 서구에 맞는 미래지향적 산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서술하고자 한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며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젊은층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역동적인 인구구조가 구성되었다. 인구 현황은 새로움, 도전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 산업 중 하나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산업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과 결합하여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등의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창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의 임대와 중간 조직의 확대를 통해 적은 투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를 통한 소비자 증가와 청라신도시의 하나금융타운과 연계한 핀테크 산업,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리사이클링 산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 등이 존재한다.

2025년 제2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
인천 서구의 공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광역시 서구